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737-8881(대)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2월 16일(음력1월 8일) 수요일 (주간) 제513호

불교성지순례전문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5일
3월1일, 15일, 29일 59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 yahotour21@hanmail.net

외국어학림 비구니 전법사 세계로 세계로

목판인쇄문화박물관 팔만대장경 '진면목' 한눈에

해인사 '변화삼매'

지난해 네차례 토론 바탕 '업그레이드' 설계 내놔

#1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릴 15명의 비구니 스님이 '외국어 학림' 2년간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해인사 대웅보전 부처님 전에 섰다. 해인사가 세계 전법 교화 인력 양성을 위해 개설한 어학전문 교육수행기관인 외국어학림에 선발된 후, 한국불교 세계화를 꿈꾸며 보낸 짧지만 긴 2년이었다.

졸업을 앞두고 여기저기 전법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외국어 학림을 졸업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눈은 이미 세계로 향해 있었고, 활동의 폭은 세계를 향해 끝없이 펼쳐져 있다.

#2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해인사 목판인쇄문화박물관을 한국 사찰 방문 코스에서 빠뜨리지 않는다. 1000년 전 정보화 시대를 이끌었던 목판인쇄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인사가 매년 10월이면 목판문화인쇄박물관과 연계해 열고 있는 3박 4일간의 목판인쇄문화축제 때는 세계인의 이목이 해인사로 집중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팔만대장경의 신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결코 상상이 아니다.

'열린 해인사'를 표방하면서 지난해 4차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해인총림 및 교구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을 한 해인사가 추진 중인 개혁과 쇄신이 가져올 모습들이다. 2월 7일 보경당에서 열린 첫 교구종회에서 해인사가 밝힌 청사진은 해인사와 한국불교의 변화를 예고하기에 충분했다.

해인사는 선, 수행, 인재 양성 도량으로서의 전통과 가풍을 진작시키고 이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교학, 선학, 응용불교학 등 경·율·론 삼장에 능통한 7~11명의 스님을 초빙해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을 비롯,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릴 전법사 양성 외국어학림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해인사는 연구원의 스님들이 연구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구원 스님들을 차후 율원 등에 개설될 연구과정의 지도인력으로 충원한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다.

연구소와 외국어학림은 임회의 동의가 남아 있지만 선·교육·수행 도량으로서의 가풍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무난히 동의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인사 변화의 바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답게 성보박물관을 목판인쇄문화박물관으로 특화시킬 예정이다.

1000년을 이어온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기술 관련 자료와 각종 문화재 등을 총망라해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세계적인 박물관으로서 주목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말사들이 해인사에 내는 교구분담금을 교구 운영에 사용해 오던 관습을 과감히 탈피, 각 말사들이 지역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변화를 시도한다.

해인사는 이미 말사가 집중돼 있는 거창·합천·의령·진주·함양 등에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8천만 원까지 어린이집 불사·교양대학 운영·복지시설 건립·장학기금·불우이웃돕기 등의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을 책정했다.

대형불사 논란으로 끊임없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해인사가 어떤 변화를 이룰지, 과연 지역불교 활성화와 한국불교 세계화로 번져갈 수 있을 것인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해인사는 2월 7일 보경당에서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열린 해인사'를 표방하며 개혁과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설 연휴 관계로 일부지역 512·513호 배달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

새희망운동본부 '상불경 보살' 되기 서원

희망찾기 시민운동·강좌 전개 … 국민운동으로 확산 계획

'상불경보살'은 사람들에게 불성이 갖춰져 있음을 일깨워주는 보살이다. 2005년, 상불경보살이 되길 발원하며 나선 사람들이 있다. 바로 새희망운동본부(상임회장 임채수) 회원들이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지역인사들로 결성된 새희망운동본부는 새해 첫 달인 1월부터 '희망'을 전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에는 임채수 상임회장을 비롯 김영환 시인, 이영숙 전국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배승원 국제신문 前 논설위원 등 지역의 학계, 종교계, 문학계 인사 7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주말마다 부산역광장 등지에서 '우리 조국의 희망찬 미래'라는 팸플릿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우리 민족의 저력과 우수성을 알리고 21세기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새희망운동본부 회원들이 부산역 광장에서 '우리 조국의 희망찬 미래'라는 팸플릿을 나눠주고 있다.

만나는 이마다 '당신들을 공경하고 가벼이 여기지 않노니 당신네가 마땅히 보살도를 수행하여 반드시 성불하게 되리라'는 말을 되풀이한 상불경보살의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시민들의 쳐진 어깨에 힘을 불어넣는 희망 전하기 운동은 부산을 중심으로 '희망 찾기 400만 시민운동' 서명도 받고 있다.

3월부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정신 시민강좌'를 열 계획이다. 교육, 봉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희망을 일구는 운동에 동참할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마산, 창원, 진주 등에 지역대표를 두고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새희망운동본부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희망'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각오다.

'상불경보살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원력을 세운 임채수 상임회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희망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051)469-3100

글·사진=천미희 기자

신계사 복원·영통사 순례 '순풍'

조계·천태종 北과 실무회담

불교계 대북사업이 2005년에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조계종과 천태종은 2월 1일부터 4일간 금강산과 북경에서 각각 조선불교도연맹 및 영통사 복원위원회와 실무회담을 갖고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사업을 전개키로 합의했다.

조계종은 신계사 복원을 위한 2단계 사업을 2월말에 열릴 예정인 사찰 복원 전문가 실무회담에서 확정한 뒤 3월부터 벌여나가기로 조선불교도연맹과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은 올해 만세루와 요사채, 산신각 등을 우선 복원하며, 이를 위한 발굴조사를 3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진 스님들의 방북문제는 양측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천태종은 북한 영통사 복원위원회와 2월 1~2일 북경에서 회의를 갖고, 3월부터 10만그루 '통일동산 가꾸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6·15 공동선언일을 전후해 영통사 낙성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천태종과 영통사 복원위원회는 낙성식에 앞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사상을 기리는 학술세미나를 5월경 열기로 했으며, 개성관광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영통사 성지순례도 1주일에 2회씩 실시키로 했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3월부터 개성에 1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통일동산 가꾸기'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원우·유철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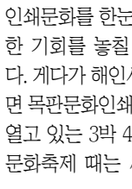
'할'



그림·조태호

의룡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10, 11면에서 만나세요)

봉 인류평화기원 및 유주무주 애혼 영가 극락왕생을 위한 행
대운산 묘림사 노천 지장대불 조성기념 만등불사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지극 정성으로 귀의합니다.
묘림사와 과거 현재의 인연으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불자님들께 소승 두손 모아 감사드리오며 불자님 가정에 일체 액난이 소멸하시어 뜻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원만성취 이루시길 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지장대불을 조성 봉안하고자 함께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제 지장 대불조성 회향을 아래 와 같이 알리게 되어 소승 너무나 큰 감사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크나큰 기쁨을 부처님 전에 회향 올리며,

인류평화기원과 유주무주 애혼 영가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8m 높이(28자)의 지장대불 봉불점안식과 대법회를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 봄날에 갖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업장소멸하시고 선근인년 복덕을 지어 세세생생토록 복락을 누리시길 합장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운산 자락에서 관진 합장
불기 2549년 1월 좋은날

◗ 지장대불 점안법회 안내
증명법사 우룡 큰스님 (울산 학성선원 조실)
• 일시 : 불기 2549년 3월 6일 일요일 (음, 을유년 1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 대운사 묘림사 노천 지장대불전



◗ 만등불사 점등식 및 전야재 안내
• 일시 : 불기 2549년 3월 5일 토요일 (양력) 오후 7시
• 장소 : 노천 지장대불전 • 동참금 : 1인 1등 1만원
• 온라인번호 : (예금주 묘림사)
조흥은행 922-03-003246 부산은행 032-01-045509-9
농 협 815040-51-035170

※ 차량운행안내 ▷범어사 전철역 시립공원묘지 입구에서 매일(오전 9시 30분) 차량운행대기
▷양산서창 파출소 앞 수시운행

가족과 함께 공부하며 기도하는 도량 대운산 묘림사 주지 관진 합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면 내광리 778번지 전화 052)237-4366. 238-6264 (팩스겸용)

군불자수 제자리
군종병·법사 미달
특별교구 불투명

군포교 내우외환

개신교 공격적 선교
원불교 올 '진입' 계획
신흥종교 가세 노려

2020년에는 남한 전체인구의 약 75%가 개신교도가 된다. 이는 헌법 개정안 추진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 2/3를 선출할 수 있는 숫자다. 황당하기까지 한 이야기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완전 허구만은 아니라는 데 있다. 그 핵심에 '대한민국 국군'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선교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매년 군부대 내에서 세례를 받는 숫자는 25만 명 정도다. 이정도의 숫자가 매년 세례를 받으면 2020년까지 625만 명의 개신교 신자가 탄생하고, 그들이 결혼해 교인 가정을 만든다면 개신교 신도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3700만 명이 신자가 된다는 것이다. 개신교의 공격적인 군부대 선교는 이런 미래종교의 판도 변화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 개신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불교계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국방부 군종실장 김말환 법사는 군불교의 현황을 '내우외환'이라고 단언했다. 그에 따르면 군 불자 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군 포교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군법사는 모두 150명이지만 지원자가 없어 130명만이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지원을 마감한 군종병 모집도 개신교가 9대 1 이상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반면 불교는 0.8대 1에 불과한 상태다.

군포교의 '사령탑'인 군승특별교구의 설립도 요원하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법안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상정된 '군승특별교구법'의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중앙종회의원 원택 스님은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그 이후 2~3차 수정 및 검토가 이뤄져 3월 예정된 종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불교 내부 정책 조율도 삐걱거리고 있다. 진각종과 천태종이 조계종이 독식해온 군승 파견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군승 지원자가 현격하게 부족한 형편인 만큼 조계종이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조계종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여기에 꾸준히 포교요원 파견과 교당 건립을 추진 중인 원불교가 올해 군내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를 기점으로 대순진리회 등 신흥종교의 군포교마저 가능해진다면, 군부대는 '포교의 황금시장'에서 신도 확보를 놓고 치열한 종교간 경쟁을 벌이는 '각축장'으로 변할 태세다.

군승단장 장승화 법사는 "군불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군승특별교구를 하루 빨리 발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승특별교구는 현재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법당 등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불교계가 직접 통제해, 군 포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장 법사는 "그래야 종단과 함께 군포교를 총괄 관리하는 게 가능하고 산만한 후원 시스템 정비, 우수한 군승자원 수급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법사 130명, 군법당 400여 곳, 신도 15만을 거느린 거대한 몸집의 '군불교'를 포교원 산하 단체로 묶어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다. 불교계 군 포교 관계자들은 또 개신교의 군 선교 조직인 '군선교연합회'도 주목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환경파괴 심각하다면 공사중지"

남영주 수석 '공동조사' 협의 앞두고 언급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관통 여부는 '도롱뇽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남영주 민정수석은 2월 4일 "천성산 공동조사 결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지율 스님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 수석은 이어 "천성산 터널 공사가 심각한 환경파괴를 야기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 노선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수석의 발언은 정부가 처음으로 대안노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도 "조사결과 습지의 물이 지하수맥으로 빠져나오고, 어떤 보완공법으로도 그것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남 수석은 또 합의 당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환경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조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발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해 조사가 실시되는 기간에는 공사가 중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천성산 환경조사와 관련한 양측 협의는 2월 20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율 스님의 건강 회복속도를 확인하고 양측이 내부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율스님 건강 '안정적 상황'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요.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100일간의 단식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던 지율 스님. 단식 회향 8일만인 2월 11일 저녁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율 스님은 차분하면서도 담담한 목소리로 이와같이 말하며 "몸을 추스린 이후에 보자"며 여운을 남겼다.

한편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2월 6일 "지율 스님의 건강이 안정적인 상황에 돌입한 것 같다"며 "단식회향 이후에는 된장국물과 곡식을 우려 만든 물을 마시면서 기력을 회복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당대 최고 강백 '총출동'

지관·무비·종범·우룡 스님 등 불교서울전문강원서 강의

지관, 무비, 종범, 우룡 스님 등 조계종 최고의 강백 스님들이 교학발전과 수행종풍진작을 위해 오는 3월 개강하는 제2기 '불교서울전문강당(이하 전문강당)'의 교수사로 나서 교계의 화제다.

3월 7일 개강하는 2기 전문강당에서 펼쳐지는 강좌는 초발심자경문(무관 · 조계종 총무부장), 서장(종범 · 중앙승가대 총장), 도서(지운 · 前 송광사 강주), 절요(통광 · 쌍계사 강주), 선요(우룡 · 함월사 조실), 원각경(우진 · 통도사 강주) 능엄경(혜거 · 금강선원장), 금강경(지관 · 조계종 원로의원), 기신론(각성 · 前 해인사 강주), 화엄경1(지안 ·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화엄경2(무비 · 前 교육원장) 등이다.

전문강당 2기생 모집은 2월 18일까지로, 수업은 주2회(화 · 수요일 오후6시부터) 각 3시간씩 서울 사간동 법련사 강당에서 실시하며, 모집인원은 스님 50명, 재가 20명이다. 02)732-4923

한편 전문강당은 2월 28일, 1기 졸업생 58명을 배출한다. 지난 2003년 스님들의 전문재교육과 고급포교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개원한 전문강당은 첫 기수로 85명이 입학 했지만 수준 높은 강의와 엄격한 학사관리로 이수율은 68% 수준이었다.

조용수 기자

'비구니 원로회의' 추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2월 1일 서울 일원동 비구회관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오는 3월 30일 비구니회총회 개최를 확정했다.

총회 안건으로는 한국 비구니의 수행전통을 조명하는 학술대회(9월) 개최, 총무원내 비구니부 신설 준비, 강원 · 선원 · 주지 중진 지도자 연수 등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회칙개정을 통해 비구니 계단 차원의 별도 '원로회의'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지상파 DMB 사업진출
불교방송, NDMB사와 약정

불교방송(사장 이성언)은 2월 4일 불교방송 15층 회의실에서 지상파 DMB 방송 사업권획득을 위해 NDMB플러스 컨소시엄(대표 김태섭)과 MOU(비공식 양해각서) 및 출자약정을 체결했다.

NDMB플러스 컨소시엄이 지상파 DMB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 불교방송은 오디오 채널 운영, 프로그램공급, 영상-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DMB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불교방송 이성언 사장은 "불교방송이 지상파DMB 방송에 진출한다면 기존의 FM라디오방송 영역을 보완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방송매체로서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NDMB플러스는 DMB플러스와 NDMB의 통합 선언에 따라 2월 3일 출범한 컨소시엄으로 KDC 정보통신, 중소기업유통센터, 현대디지털텍, 현대정보기술, 모빌리언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노병철 기자



이해찬 국무총리(사진 가운데)가 관장 혜성 스님(왼쪽)과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과 함께 2월7일 서울 금천구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이해찬 총리 청담복지관 방문

'사랑의 떡국거리' 전달

이해찬 국무총리는 설날을 맞아 2월 7일 서울 금천구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성) '기초 푸드뱅크'를 방문하고, 저소득 주민, 독거노인에게 '사랑의 떡국거리'를 전달했다.

이 총리는 이날 관장 혜성 스님으로부터 '금천구 기초 푸드뱅크' 사업 현황과 시설 이용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관내 결식아동 등 취약 계층에게 차질 없이 식사를 제공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철우 기자

통도사·구룡사 '쓰나미' 성금 1억 전달



양산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사진 왼쪽)은 2월 4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돕기 성금 1억10만7000원을 전달했다. 성금 중 3000만원은 서울 구룡사에서 모금한 것이다.

남동우 기자

선객만을 위한 특별한 법회

전국선원수좌회 '선화자법회' 복원
해인사서 2월28일 입재

수좌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회가 열린다.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함주 현산 인각) 선림위원회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 합천 해인사 선원에서 '선화자(禪和子)법회'를 개최한다.

선화자법회는 선방 안거 해제일에 조실 스님의 상당법문에서 시작된 것으로, 선방 스님들에게 선어록 등을 통해 불법의 안목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복원되는 선화자법회에는 구참(선덕) 스님과의 대화를 비롯해 고우 스님(전국선원수좌회 선림지도위원)의 특강, 무여 스님(축서사 주지)의 <신심명> 강설 등이 진행된다. 또 '수행풍토 개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선원과 수좌의 역할' 등을 주제로 분과토론도 개최된다.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은 "제방선원의 수행풍토를 개선하고, 조사가풍과 간화선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선화자법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053)985-2707

김철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Btn 불교TV

불교TV 와 떠나는 홍콩*심천 불교성지순례

2005. 2. 27(일) ~ 3. 2(수) 3박 4일 일정 금액 890,000 원

제1일
* 인천 출발
*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도착
* 리펄스베이 / 해양공원순례
* 빅토리아 산정에서 백만불 야경 감상

제2일
* 12,800여개의 작은 불상의 만불사 순례
* 홍법사 순례
* 소인국, 민속문화촌(소수민족쇼 1, 2부) 관람

제3일
* 동양최대의 청동 좌불상이 있는 보련사 순례
* 수상 레스토랑 점보식당에서의 광동식 디너
* 홍콩만의 독특한 저자거리인 몽콕 야시장 견학

제4일
* 홍콩 최대의 도교사원인 웡타이신 사원 순례
* 홍콩 출발
* 인천 국제 공항 도착

지도법사 천안 각원사 현민스님

불교TV 사업부 ☎ 02-3270-3333 / 887-2148 여행매니아 02-720-8828 www.btn.co.kr



흥겨운 무대는 어르신들도 어깨춤을 절로 추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했다. 자연스럽게 무대 아래에 어르신들의 작은 무대가 만들어졌다.

목포 어르신들 경사났네

보현정사, 3일 경로잔치 열어
2천여명 참석 흥겨운 무대

설날을 일주일 앞둔 2월 3일, 남도 땅 목포에서 경로잔치가 열렸다.

흔한 동네잔치가 아니라 목포시내 26개 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초대형 잔치였다.

목포 KBS 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잔치에는 무려 2000여명의 어르신이 모였다. 자원봉사 버스 10여대가 목포시내를 오가며 노인들을 모셨다.

대형 잔치마당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초청한 이는 보현정사 주지 정각 스님(법륜종 종정).

"이제는 목포 시민에게 회향하고 싶다."는 뜻이 경로잔치로 실현됐다.

식전행사에서 정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닭의 해로 금 닭에 비유되는 좋은 해이다"며 "닭처럼 활기차고 건안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배용태 목포시장 권한대행도 "효는 백가지 행실의 근본으로 불교계에서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며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연예인 공연이 시작되면서 체육관은 서서히 달아올랐다.

보현정사 가릉빈가 합창단의 음성공양을 시작으로 승무, 북춤, 대금산조, 판소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음악이 펼쳐졌다.

이어 2부에서 국내 정상급 연예인들이 대거 등장했다. 방송국 '노래자랑'의 대명사격인 송해씨가 사회를 맡았다. 인기 가수이자 포교사로 알려진 남강수, 송춘희 법사의 무대에 이어 목포가 낳은 가요계 거목 남진씨가 등장하자 체육관은 떠나갈 듯 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가슴 아프게' '님과 함께' 등 국민가요가 되어버린 남진 씨의 애창곡이 끊이지 않았다.

목포 대성동 복지회관에서 동료들과 함께 온 강동심(76) 할머니는 "가수들이 직접 나오는 잔치는 처음이다"며 "불교는 믿지 않지만 스님이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용해동에 사는 김성길(80) 할아버지도 "말로만 노인들 위한다면서 변변한 놀이하나 없던 차에 오늘은 좋은 나들이였다"며 "이런 공연이 자주 있기를 바란다"며 미소 지었다.

"부처님의 자비를 지역민에게 회향하겠다"고 강조하는 정각 스님은 지난달 목포 시내에 무료노인 급식소를 개설한바 있다. 요즘은 복지법인 영산 정각원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목포시가 들썩거린 '설맞이 어르신을 위한 큰 잔치'는 이렇듯 더욱 큰 원을 세우며 회향됐다.

글 · 사진/목포=이준엽 기자

교법사 신분 '교사'에서 '법사'로

광동학원, 정관 개정…교계 최초로 공식 보장

교사자격증이 있는 불교대학 출신자로 종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을 담당하던 '교법사'의 신분이 교사에서 '법사'로 보장된다.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은 지난해 12월 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법사실을 두고, 자격을 갖춘 법사를 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법인 정관을 개정했다. 이로써 광동학원에 재직하는 교법사는 '법사'로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지금까지 교법사의 지위는 일반교사와 동일한 선상에서 처리되어 왔다. 교사이기도 하고 법사이기도 한 두 가지 신분을 유지한 교법사들은 교사로 일선 수업에서 도덕 윤리 교학수업 등을 진행하면서 법사로 청소년 불교 교재 개발, 법회 진행 및 포교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법적으로 교사의 신분이다 보니 법사로서의 포교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 교법사단에서는 교법사의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계속 요청했었다.

종립학교에서 학교법인 정관에 '교법사'의 지위 규정 조항을 둔 것은 광동학원이 처음이어서 다른 종립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지연 기자

선남선녀 맺어주기 법회 연다

옥천 대성사 만남 주선

'절에서 배우자를 찾는다.'

사찰을 법문 듣고 기도 하는 수행처로만 생각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사찰은 이미 문화의 장이 됐다. 여기에 충북 옥천 대성사는 한 가지를 더 보탰다. 다름 아닌 '선남선녀 결연 맺어주기'.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최근 들어 신도들과 지역민들로부터 본인 또는 자식들의 '짝'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잦아지자 아예 발 벗고 나섰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인터넷을 통해 구혼자의 신상과 이력을 공개하고, 이를 본 사람들이 만남에 응하도록 하는 방식. 이를 위해 대성사는 최근 옥천신문 홈페이지에 이 코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남이 주선되면 당사자들은 매주 일요일 오전 '선남선녀 특별법회'에 참석해 상견례를 하게 된다. 이 법회에는 매주 일요일 오전 대성사에서 법회를 갖는 지역 전의경과 군인들도 함께 하도록 해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에게 맞는 '짝'을 찾도록 할 생각이다. 벌써 6명이 신청을 했을 정도로 관심도는 상한가. 이 특별법회는 이달 중순경 시작돼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게 된다.

혜철 스님은 "대중에게 다가가는 포교를 위해서는 대중의 요구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043)732-5560

한명우 기자

도선사 · 감로사, 지진해일 희생영가 49재

서울 도선사와 부산 감로사가 2월11일과 12일 남아시아 지진해일 희생자들을 위한 49재를 봉행했다.

도선사(주지 혜자)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참회원에서 49재를 봉행하고 지진해일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감로사(주지 혜총)는 하루 앞당겨 11일 삼천불전에서 2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해일 희생 영가를 위한 49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천미희 · 강유신 기자



2월12일 서울 도선사에서 열린 지진해일 희생자 49재 법회에서 법문을 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이 시장 '서울시 봉헌' 발언
108 소송인단 항고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 발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108소송인단(대표 김재일)이 1심 기각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2월 3일 항고했다.

항고장에서 소송인단은 이명박 시장의 행위가 정교분리 · 종교평등 · 공무원법상 직무전념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서울시민의 행복추구권 및 명예 훼손 등이어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강지연 기자

인드라망 불교귀농학교
3월 15일부터 화 · 금요일

1998년부터 매년 2기씩 불교귀농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가 제16기 불교귀농학교를 개설한다.

3월 15일부터 매주 화, 금 저녁 7시에 진행되는 귀농학교는 '땅을 살리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 서로를 살리는 길'을 주제로 '왜, 아직도 귀농인가?', '생명의 경제, 공생의 경제', '친환경 농장 만들기' 등 총 20강좌의 이론교육과 2차례의 실상사지역공동체, 강원도 횡성 현장학습이 진행된다.(02)733-1884 유철주 기자

중앙신도회 동안거 수행논강
석종사서 19·20일 회향법회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가 지난해 11월 23일 입재한 동안거 수행논강 <돈오입돈요문론> 강설이 2월 19~20일 3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회향한다.

충주 석종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향식은 여주 신륵사, 금봉선원, 법흥사 적멸보궁 등을 참배하고 논강을 총 정리하는 종합수련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논강 총정리는 법인정사 선원장 설우스님의 <돈오입도요문론> 강설 총의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의 동안거 수행논강 회향법문은 20일 새벽 6시 40분에 열린다. (02)733-7277 강지연 기자

사회복지법인 각원복지재단
불우이웃에 생필품 2차 전달

사회복지법인 각원복지재단(이사장 광도)은 2월 7~18일까지 쌀 10kg 27포대와 양말 등을 경남 마산시 진북면, 진전면, 진동면 일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사회복지법인 각원복지재단 준비위원회를 거쳐 진북면 지역사회의 복지활동을 개척하며 진북면 복지패밀리협의회를 태동시킨 각원복지재단은 2004년 12월 1차 생계 지원에 이어 2차 전달식을 가진 것이다.

천미희 기자

대불련 총동문회 정기총회·워크숍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성기태)가 2월 19~20일 대전 경하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동문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불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19일 △대불련 동문 윤리강령 제정(윤세원 부회장) △대불련인의 사회참여와 자비실천 방안(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 △대불련 활성화와 회관 건립방안(정용학 재정부위원장) 등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또 20일 총회에서는 새 회장 및 임원단 선출, 2004년도 모범 지부 및 지회 표창,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한다. 모범 지부 및 지회로는 부산 지부, 중앙대 지회, 전남대 지회, 부경대 지회 등이 선정됐다. 총회 후에는 계룡산 등반 및 태극권 특강이 마련된다.

강지연 기자

새만금 법정 공방 장기화
정부 · 환경단체 각각 항소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2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새로운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새만금 사업 방조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어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철주 기자

제11회 「선우논강」 법석에 초대합니다

주제 : 대념처경 大念處經으로 읽는 초기불교의 수행

청안청락 하십니까

바람직한 승가상 정립과 승풍진작을 위하여 탁마정진하는 선우도량에서는 '대념처경으로 읽는 초기불교의 수행'이란 주제로 논강의 법석을 펼칩니다.

대념처경은 초기불교수행법을 몸(身) · 느낌(受) · 마음(心) · 법(法)의 네 가지 주제 하에 집대성한 경으로, 초기수행법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경입니다. 마음챙김으로 대표되는 초기불교 수행법은 이 경을 토대로 지금까지 전승되어오고 있으며, 윗빠사나 수행법은 모두 이 경을 토대로 하여 가르쳐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선우논강에서는 대념처경을 초기불교연구원의 각묵 스님이 집중 강의하고, 이어 대중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논강을 통하여 초기불교 수행의 원형을 명확하게 밝히고, 나아가 부처님 사상과 정신을 토대로 모든 수행법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인연을 삼고자 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탁마와 정진의 아름다운 법석을 장엄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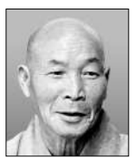
■ **일 시** : 불기 2549년 2월 26일 토요일 (음력 1월 18일) 오후 3시 ~ 10시
■ **장 소** : 지리산 실상사
■ **대 상** : 조계종 출가대중
■ **지참물** : 대가사. 동참금 3만원
■ **문 의** : 063)636-3031(실상사)

** 교재 대념처경이 필요하신 스님은 010 - 3020- 3698 (사무처장) 앞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선우도량 공동대표 철오 · 현각 합장

일주문



봉은사서 법문

순천 송광사 천자암 조실 활안 스님은 2월 11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내안의 부처님을 보라' 주제로 법문을 했다.



재소자 설날 차례상 차려

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 현성 스님은 2월 9일 안양교도소를 방문, 전 재소자에게 떡국공양을 하고 모범수들을 위해 차례상을 차려주었다.



신임포교사 품수식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2월 19~20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10회 신임포교사 품수식을 거행한다.(02)2011-1893



법흥사에서 방생법회

화성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은 2월 19일 강원도 법흥사에서 용주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방생법회를 봉행한다.(031)234-0040



불교환경연대 정기총회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2월 24일 오후 3시 서울 조계사 교육관에서 신년 사업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일본불교련 천도법회 참석

제주 불광사 주지 지범 스님은 3월 1일 동경 묘엄사에서 열리는 조총련 일본불교연합회 합동천도법회에 참석, 부모은중경 게송 등 찬불가 공연을 한다.



승만경 강의

우리는선우 이사장 성태용 교수는 2월 19일 오후 3시 서울 사무실에서 <승만경> 강의를 한다.(02)2278-8672



기무사령관 퇴임

국군불교총신도회 고문 송영근 중장은 1월 27일자로 기무사령관직에서 퇴임했다. 송 중장은 2003년 기무사령관에 임명돼 그동안 기무사 개혁을 주도했다.



신수회 회장 재임

신수회 회장 이남숙 씨(조계종 포교사)는 1월 29일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당선자 모임인 신수회 제3대 회장에 재선됐다.



정기대의원 총회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 현일환 회장은 2월 18일 오후 8시 서울 만해교육원에서 제28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02)739-4448

"전통문화 계승 발전의 주역 배출할 것"

동방대학원 대학교 초대 총장 정상옥 박사



1996년 12월 대학원대학 설립 신청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이후 10년만인 올해 3월 14일(예정) 개교하는 동방대학원 대학교의 산증인 정상옥 총장(59 · 사진). 정 총장은 2월 4일 기자에게 "천신만고 끝에 동방대학원 대학이 문을 열게 돼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 총장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동양사상을 양지로 끌어내 계승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1946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해 동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 한문학 석사와 산동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 총장은 계명대 서예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산동대 겸임교수이다.

▲개교를 축하드립니다. 10여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지요?

-1995년 대학원대학 설립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포천에 짓던 학교건물이 공사비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뒤 어려운 고비를 3~4번이나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재까지 모두 소모했습니다. 다행히 2002년 태고종과 인연이 됐고, 이후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개교까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개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종단의 원로 대덕 스님들과 종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동방대학원 대학의 특징은?

-동방대학원 대학교 교육이념은 '동방문화 창달'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전통문화 속에 녹아 있는 특질을 찾아내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학과개설도 이러한 특색에 맞췄습니다. 문인서화학과와 민속문화학과, 불교문예학과가 있는데요. 문인서화학과에는 서법예술(서예)회화예술(동양화), 민속문화학과에는 역경예측과 풍수환경, 불교문예학과에는 불교미술과 불교음악학 석사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신입생 등록현황은?

-신입생 정원이 50명인데 지금까지 석사과정에 30명이 등록했습니다. 연구과정으로 등록한 학생까지 총 48명입니다. 신입생 입학 전형을 하며 가장 처음 원서를 접수한 학생을 직접 만났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한 이 학생은 동양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크고 학문에 대한 의욕도 대단했습니다. 이 학생을 보고 대학원의 전도가 밝을 것이라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학교 운영계획은?

-교수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사회의 각종 장학금을 끌어들이고, 교내 장학금 조성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연구과정도 개설해 대학원 입학 자격요건이 안되는 보다 많은 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박사과정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미 확보된 학교 수익용 재산 12억원을 활용하여 50명의 현재 신입생 정원을 늘려 2~3년내 학교운영에 적정수준인 300명의 재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립기반 구축에 대한 복안은?

-태고종에서 매년 1억원의 재단 전입금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양사상을 두루 공부할 수 있는 41개 강좌가 개설된 대학원대학 부설 동방문화교육원을 운영하고, 학점은행의 독학사 제도를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늦깎이요? 대학원 진학해요"

위덕대 최고령 졸업 이천우씨 '끝없는 향학열'



"불교를 제대로 알게 되면서 일상생활에 여유가 생기니 사업도 더 잘됩니다."

2월 17일 위덕대 불교문화학부를 졸업하는 늦깎이 대학생 이천우(47 · 적담 · 사진) 거사. 이 거사는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2003년 위덕대에 편입했다. 원래 금속공학을 전공했던 그가 불교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포항 죽림사 불교대학을 마치고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다.

물론, 자식뻘 되는 대학생들과 어울려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자신보다 불심이 더 돈독한 아내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는 이 거사는 포항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가다. 학업과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올해 다시 대학원 진학을 앞둔 이 거사는 "교학적 이해가 넓어질수록 불교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남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며 만학의 즐거움을 밝혔다. **조용수 기자**

■언론사불자연합회장에 이연재씨 취임



"여의도 직장불심 하나로 모을 터"

"회원 참여율을 높이고 모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언론인 불자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2월 17일 MBC, KBS, SBS 등 방송 4사 소속 불자언론인들로 구성된 언론사불자연합회 새 회장으로 취임하는 이연재 MBC 불교연구회장(51 · 사진)은 연합회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의 관심과 신입회원 가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회장은 "불자 모임이 없는 언론사에 불자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지역 포교에 대한 각오도 내비쳤다. 이 회장은 "여의도 지역은 방송 · 신문사를 비롯해 증권사, 은행 등이 집중돼 있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포교활동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언론사불자연합회를 중심으로 여의도 지역 직장인불자들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책을 맡으면서 느슨했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이 회장은 "회원들이 바른 신행을 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연구원 김열권 법사로부터 불교를 익힌 이 회장은 지금도 각종 수행모임에 참여하는 등 수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MBC 기자회장, 업무혁신위원, 인력개발위원을 거쳐 현재 보도전략팀장을 맡고 있다. **박봉영 기자**

갑사, 괴목대신제 봉행



공주 갑사의 괴목대신제가 2월 11일 대웅전과 괴목 앞에서 진행됐다. 주지 장곡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괴목대신제는 제사 의식과 놀이마당 등으로 꾸며졌다. 갑사 괴목대신제는 사찰과 마을 주민들이 이 지역을 지켜온 괴목에 제사를 지내는 전통문화행사다.

동산불교대 2005학년도 입학식



서울 동산불교대(학장 무진장) 2005학년도 입학식이 2월 5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신입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입학식 1부 순서에서 학장 무진장 스님은 "오늘의 한국불교를 바르게 공부해 열심히 포교하는 역군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2부에서는 동국대 우제선 교수가 인도불교사를 강의했다.

이웃돕기 자비의 쌀 나누기



서울 능인정사 포교원(주지 법경)은 2월 4일 '이웃돕기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법경 스님과 신도들은 이날 그동안 모아온 자비의 쌀 60포대를 광진구 관내 어려운 이웃 60세대에 전달했다. 능인정사는 지난해 동지에도 성동구 관내 불우이웃들에게 쌀 60포대를 지원했다.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2005년도 1학기(12기생)

종무행정 고위자 과정 모집

1. **수업시간** : 불기 2549년(2005년) 3월 8일부터 ~ 6월 21일까지(15주)
2. **강의요일 및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3시간)
3. **모집인원** : 30명 4. **수 강 료** : 40만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16-24-0629-134 사회교육원)
5. **접수기간** : 3월 3일까지 ※ 전화접수 가능
6. **문 의 처** :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41-4번지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차 4번 출구 200m, 2분거리)
사회교육원 교학과 전화 : 02)760-5781~2 / Fax : 02)760-5789

※ **2년 전과정 수료생에게는 한성대학교 총장, 1학기 과정 수료생에게는 사회교육원 원장명의의 종무행정 고위자 과정 수료증을 드립니다.**

종무행정 고위자 과정 개설과목

교 육 내 용	요일 및 시간	교육기간	교 수 진
컴퓨터 교육 · 문서작성 기초부터 문서작성과 홈페이지 작성까지 (컴퓨터 1인 1대 실기위주)	매주 화요일 1교시 오후 1시 ~ 2시50분	1학기 8주 15시간	이태주 원장 연정열 교수 황범명 교수 오형근 교수 황진수 교수 최용식 교수 김의식 교수 김세종 교수 이용윤 강사 이천복 강사 최미순 강사 강희종 강사 (※과정에 따라 강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불교와 사회와의 연관성 강의 · 승려복지 불교미술, 홍포학과 비교종교, 수행형태학, 유식철학(원효사상) 성명학 · 명리학 · 풍수지리학 등 사회계층관련 심층강의	매주 화요일 2교시 오후 3시20분 ~ 4시30분	1학기 8주 15시간	
종무행정과 정보 · 재산관리 종무행정의 이론과 실제 · 법무행정 및 부동산관련법 해설 금융자산의 활용, 정보관리 등 심층강의	매주 화요일 1교시 오후 3시 ~ 4시30분	1학기 8주 15시간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http://cce.khu.ac.kr 열린 대학교육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학생 모집

기문명리학	사주, 작명, 택일, 양택, 단시 등을 기문역학으로 파악하고 실생활에 응용하는 과정 ● 수 19:00 ~ 21:00 (2학기과정) 학기당 200,000원 ● **60세 이상 수강자에게 수강료 50%** 할인.
웰빙관상학	우리 얼굴, 신체 모든 부위의 형태와 기색을 살펴 운명 변화, 풍수 등 웰빙법 연구 ● 월 10:00 ~ 12:00 (15주) 200,000원
한 국 전 통 민 속 문 화	한국인의 전통무속신앙, 자연숭배사상, 풍수지리를 연구, 현장답사 및 실습체험 ● 금 19:00 ~ 21:00 (2학기과정) 학기당 200,000원
한문해석법	체계적인 한문해석법 습득과 「명심보감」「동몽선습」「계몽편」독해, 한시감상 ● 월 14:00 ~ 16:00 (15주) 200,000원 ● **60세 이상 수강자에게 수강료 50%** 할인.
한 시 창 작	한시의 역사와 작법을 습득하고 고문 이해, 명시 감상 및 창작을 통한 한시장르 연구 ● 목 10:00 ~ 12:00 (15주) 200,000원

▶ **특 전** : 경희대 총장명의의 수료증, 도서관 이용 ▶ **접수기간** : 2005년 2월 25일(금)까지 (방문접수 : 평일)

■ **개 강** : 2005년 3월 2일(수)부터 각 강좌 해당 요일
■ **접 수 처** : 동대문구 회기동1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네오르네상스관 2층)
■ **문 의 처** : ☎ (02) 961-0870~2 홈페이지 http://cce.khu.ac.kr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교육과정을 보실수 있습니다.)
■ **교통안내** : 지하철 1호선 회기역 하차 1번출구(마을버스 정문하차)

“계단 설치해 법통 세우겠다”

원융종 총무원장 법륜 스님 신년 인터뷰

2월 6일 서울 구로동 원융사에서 만난 원융종 총무원장 법륜 스님은 “올해는 군소종단 이미지를 벗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창종 25주년을 맞아 원융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인재 양성과 교육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어떻게 군소종단 이미지를 벗겨내시겠습니까?

-오랫동안 스님 득도 수계식을 봉행하지 못했어요. 이 때문에 스님 자격을 둘러싼 시비에 휘말려 오해를 산 일이 적지 않았고요. 올해는 이런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단일계단을 열고 스님들에게 구족계를 수여하는 일을 제일 먼저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선 창종 기념행사가 진행될 3월 26일 경 단일계단을 만들기 위한 호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3~4년 주기로 수계식을 하고 법계고시도 4년마다 한번씩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우리 종단이 군소종단의 이미지를 벗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님들이 종단 일에 자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리겠지요.

▲올해 주요사업은?

-총무원이 소재한 원융사를 주축으로 무의탁 노인과 결실아동 돕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올해는 이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7월말 복지원을 신설하겠습니다. 전담부서가 생기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복지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것입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승려 분한신고를 올해 말까지 모두 마칠 생각입니다. 종단 동록사찰이 1천 곳을 상회하고 있지만 제대로 분한신고를 한 곳이 많지 않아요. 이를 마무리하는 대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스님들을 철저히 교육해, 지역 사찰 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생각입니다.

창종 25주년 맞아 복지 · 해외교류 주력
스님 교육통한 사찰 관리시스템 가동

임원교육과 종도교육은 3~4년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재개됐습니다. 종단 임원 교육을 먼저 해서 애종(愛宗) 사상을 고취하고 적극적으로 종단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교육원과 포교원이 연대해 종도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해외교류사업에도 주력한다고 들었는데요?

-올해 현해탄 수륙대재를 한일 불교 교류의 기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일본 변천종 쪽의 행사 참여의사를 타진해 불교 교류를 구체적인 단계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만 임제종 계열 복혜사, 호국사와는 꾸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불교 교류에 대한 종정스님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 일도 무난하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인도불교 지원을 위해 캘커타 현지에서 복지사업을 벌이는 비말 스님에게 헌옷 보내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총무원이 중심이 돼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발생한 남아시아 지진해일 때문에 잠시 지체된 감이 있어요. 지역 사정이 회복되는 대로 후원사업을 재개하겠습니다. 학용품이나 식료품 등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품을 먼저 지원할 생각입니다.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다 보면 원활히 진행되겠지요.

▲새해 덕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사회 불신 풍조가 만연되면서 개인, 종교계, 사회 모두가 어려움에 빠진 게 현실입니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할 것 없이 종교인이 먼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헤쳐 나갈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종교 국가에서 종교간 싸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포항시장, 목포시장의 종교편향행위를 통해 종교인들의 바른 자세가 사회안정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종교인들이 먼저 신뢰 형성에 앞장서면 경제, 정치 불안도 금방 극복될 것입니다. 종교인이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조직 점검 · ‘중앙’ 역할 최대화”

인터뷰 원융종 중앙신도회 류택화 회장

원융종 중앙 신도회 류택화(59 · 김포농협) 회장은 “그동안 활동이 미약했던 중앙신도회 활성화해 신행활동할 맛이 나는 신도회로 가꾸겠다”며 “올해는 느슨했던 조직을 하나씩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올해 최대 과제는?

-무엇보다 중앙 신도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신도회가 결성된 것은 꽤 오래 전이지만 위상에 맞는 활동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총무원이 제대로 힘을 낼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도 규합이 어렵기 때문에 종단 차원의 행사를 치르는 것도 힘들었고, 이 가운데 종단사업이 진행되다보니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종단 스님들과 함께 이 일을 바로 잡아 가는 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복안이라도 있습니까?

-현재 개별 사찰 신도회는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별 사찰 신도회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전체 신도회장단 모임을 가질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중앙신도회 임원진을 구성하고 임원진 선거를 통해 중앙신도회장을 제대로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틀이 다져지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앙신도회 차원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사업은?

-올 가을경 국제보살계 수계법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신도들이 계율에 대해 배우고 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신도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스리랑카 파나두라 시암종 사찰에 설치된 수재민들의 텐트. 사진은 600여명을 수용중인 갈고다 캠프 모습. 사진제공=진각종

스리랑카 시암종에 1만달러 전달

진각종, 지진해일지역서 의료 · 구호봉사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2월 2일 지진해일 피해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스리랑카 시암종 남부지역 총무원인 파나두라 우디토디타라마야 사원에서 사드하난다 총무원장에게 구호지원금 1만 달러를 전달했다.

사찰에 설치된 갈고다캠프에는 600여 명의 수재민들이 천막으로 만든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국제불교연구소 수각 시무와 스리랑카JGO센터 무오 스님, 위덕대 유학승 실라 스님, 최용수 진각복지재단 총무과장은 아루보물래 사드하난다 남부지역 총무원장에게 진각종 신교도들의 성금을 전달했다.

사드하난다 총무원장은 메시지와 성금을 전달 받은 뒤 “옷과 학용품, 식용자재 등으로 바꿔 수재민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 · 구호봉사대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갈고다 수용시설과 모다라윌라, 호빌라고델라, 네곰보 JGO센터 등에서 총 4차례의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원우 기자



2월 6일 관문사 알뜰장터 개장식에서 주지 춘광 스님이 신도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

“지진해일 피해 국가에 온정을”

천태종 관문사 알뜰장터

천태종 서울 관문사(주지 춘광)는 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해일 피해국가를 돕기 위해 2월 6일 경내에서 ‘설날 알뜰장터’를 열었다.

관문사 주지 춘광 스님은 이날 알뜰장터 개장식에서 “보살의 자비심으로 십시일반의 정성을 모아 뜻하지 않는 재난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하자”고 말했다.

알뜰장터에는 피자 떡볶이 호박죽 식혜 순대등 먹거리와 과일 나물 과자등 제수용품이 다양하게 나와 일요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관문사는 알뜰장터 수익금 500만원 전액과 1월 한 달 동안 매주 정기법회에서 모금한 성금을 지진해일 피해국가 주한 대사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태고종 비구니회 새 회장에 여초 스님



태고종 비구니회 새 회장에 경기도 이천 무량사 주지 여초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태고종 비구니회는 1월 31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부회장으로 있던 여초 스님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부회장에는 충주 대원정사 주지 법담 스님과 울산 보덕사 주지 보문 스님을, 감사에는 법흥사 주지 혜은 스님과 영천사 주지 보원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여초 신임 회장은 1952년생으로, 78년 혜만스님을 은사로 서울 법륜사로 출가한 뒤 93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태고종 중앙종회의원이며 이천 무량사, 장호원 여의정사 주지이다

김원우 기자

총화종 금강산 성지순례
5·6월 2박3일간 네차례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올해 5, 6월 4차례에 걸쳐 금강산 성지순례를 떠난다.

각 교구별 성지순례 일정은 부산 5월 25~27일, 경북 울산 5월 27~29일, 충청 강원 6월 2~4일, 서울 경기 6월 4~6일 등이다.

세부일정은 1일차 출발 및 온천욕, 2일차 교예공연, 구룡연 혹은 삼일포 관광, 3일차 만물상 혹은 삼일포 관광 등으로 잡혀있다. 동참비용은 1인당 50만원이다. (031)592-8891 강유신 기자

미륵불교 신년하례
예·결산 정기총회도

미륵불교(총무원장 자인)는 2월 2일 총본사 경남 고성 대무량사에서 신년하례식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 제2차 결산보고와 신년예산 편성을 위한 정기총회에는 종정 법연, 종회의장 청송, 부의장 덕운 스님 등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이후 열린 신년하례법회에서는 남아시아 지진해일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가 함께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종정 법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마음이 독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욕심을 따라 뒤쫓아 다니면서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의 법의에 알맞지 않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재충전을 통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수 강 생 모 집

불교문예 분야
◆ 사찰 기초의식 습의과정
◆ 범패 · 무용 실기가정
◆ 불교조각 · 불화 실기
◆ 불전기초 · 대승경전연구

서화예술 분야
◆ 서예(한문 · 한글) 실기
◆ 전각 예술 실기
◆ 문인화 · 수묵화 실기
◆ 옻칠화 · 채묵화 실기
◆ 도판 (도자기 서예) 실기
◆ 서 · 화론 선독 과정

외국어 회화 분야
◆ 중국어 회화
◆ 일본어 회화
◆ 한문 사서

사주명리 분야
◆ 사주명리 초급 · 고급과정
◆ 주역과 현대생활 응용
◆ 점성술 · 복서육효 응용
◆ 육임 · 기문둔갑 미래 예측

생활풍수 분야
◆ 생활에 응용되는 풍수
◆ 인테리어와 풍수응용
◆ 주거설계와 풍수응용
◆ 풍수를 통한 부동산 전략

자연치유 분야
◆ 사주학을 통한 한방 연구
◆ 대체의학을 통한 자연치유
◆ 기공을 통한 건강생활
◆ 전래 한방비전 연구

주택풍수감정법
천명사주감정법

교재 최초 공개!
저자직강 노 병 한 교수

◆ 모집정원 : 각 과정 30명
◆ 수강료 : 각 과정 100만원
(2과정 동시 수강 시 25만원 할인)
◆ 교육기간: 18주
(기초 5주 / 실전 13주)

접수 및 등록기간
2005. 1. 10 ~ 2. 25

◆ 수강대상 :
– 남 · 여, 학력, 연령 제한 없음
◆ 교육기간 :
– 2005년 3월 첫 주부터(16주)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사진(3cm×4cm) 2매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성취감을 느껴 보실 분은 우리 홈페이지로 오세요
www.dongbang.ac.kr 문의전화 : (02)745-2141

안양불교대학교 신입생모집

2005년 기초반 8기, 경전반 6기



본 지장선원은 부처님 정법을 매월 기도와 참회로써 인간 내면의 어둠을 밝혀 올바른 생활과 양질의 삶을 위하여 부처님 교법을 배워 실천수행하기 위하여 대덕 큰스님과 훌륭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교 수 진
• 前 동국대학교 총장, 현 가산불교문화원장, 조계종 원로위원 - 지관 큰스님
• 前 해인사 주지, 서울 수안사 주지, 지장선원 회주 - 세민 큰스님
• 동국대학교 교수, 前 동국대 정각원장 - 법산 큰스님
• 동국대학교 교수, 한국 선학회 회장 - 현각 큰스님
• 중앙승가대학 교수 - 태원 큰스님
• 해인사 해인총림 율원장 - 혜능 스님
•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주지 - 현호 스님
• 前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장 - 권기종 교수님
• “불교방송 108가요” 진행자, 불자 가수겸 탤런트 - 최영준 거사님

강의 일정표
• 입 학 식 : 2005년 3월 11일 예정
• 강의내용 : 기초반 강의 – 기초교리, 불교학개론, 천수경
경전반 강의 – 금강경 (권기종 교수님 강의)
• 강의시간 : 기초반 –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 ~ 4시
경전반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야간반 – (안양시청 공무원 불자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9시
• 접 수 처 : 본 대학 사무실
• 접수마감 : 2005년 3월 5일
• 전화 : 031)444-5935, 5936
팩스 : 031)444-5655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선원 · 안양불교대학

나의 수행법

김기현 (하)



화두참구 이레째,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화두 기운이 폭포 밑에 머물러 있을 때는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가만히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은 지루하고 끝이 없는 것 같았다. 언제 나타날지도 모를 그것을 기다리며 시간과 싸우고 있는데, 어느덧 선방에는 나를 포함해 십 오명만 남았다. 남들은 모두 화두공부상의 맛을 보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나는 아직도 헤매고 있으니. 난 이 공부와 인연이 없는 걸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데 저녁 늦게 쯤 알 수 없는 기운이 솟구쳐 오를 기미가 보였다. 뭉쳐진 화두 기운에 온 힘을 집중하니 온몸과 머리가 심하게 요동쳤다. 화두 의심으로 비롯된 기운과 씨름하기를 수십여 차례. 어느 순간 내게 편안함이 찾아왔다. 아니 앓던 이가 빠지는 통쾌함이라고나 할까? 이것이 화두 공부의 맛이구나 싶었다.

뭉친 화두에 힘 모으니 온몸과 머리가 요동
그간 날 괴롭혔던 갑갑한 기운이 빠져나갔다

그런데 기숙사로 돌아와 다시 화두를 들어보니 아직도 화두 기운은 폭포 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두 공부 맛을 조금이라도 보면 천근의 짐을 내려놓듯 맑은 하늘에 벼락 치듯 매미가 허물 벗듯이 시원하고 통쾌하다"고 했는데, 내겐 아직 그런 통쾌함은 없었다. 다시 밤을 세워 정진했지만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화두 참구 여드레째, 오후에 스님이 공부점검을 해줬다. 그래서 어제 일어난 현상을 말씀 드렸더니, 좀 더 공부하라고만 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기소임을 다하는 것이 용맹이니 다시 한번 용맹을 떨쳐보라", "마지막 관문을 넘는 것은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힘이 드니, 죽을 각오로 다시 용맹을 떨쳐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며 격려해 줬다.

그리고 난 이렇게 생각했다. '오늘도 화두 공부의 맛을 못 보면 올 여름에 계획한 내면으로의 여행은 실패다. 그래 크게 한 번 죽어 보자! 어차피 스님이 참선 중에 잘못되는 일은 없다고 했으니 믿어보자'라고.

다시 화두 참구에 들어갔다. 화두 의심으로 비롯된 기운을 살피면서 그 기운에 온 힘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힘이 빠지면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힘을 쓰길 몇 번. 그간 날 괴롭혔던 갑갑한 기운이 정수리를 통해 밀려나간다는 생각과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하는 확신이 밀려들었다.

동시에 갑갑함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나도 모르게 미소가 떠올랐다. '9일이라는 긴 여행을 마쳤다는 생각', '화두공부를 통해 대자유인으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는 생각에 가볍게 선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9일간 간화선체험은 많은 경험을 주었다. 우리 내면에는 불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간화선 체험을 통해서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믿게 됐다. '우리 각자는 미래의 부처님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법당에서 절을 하는 것도 미래의 부처님인 우리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고, 현재 모든 사람은 미래에 부처님이기에 현재의 모든 사람은 위대하고 소중하다'는 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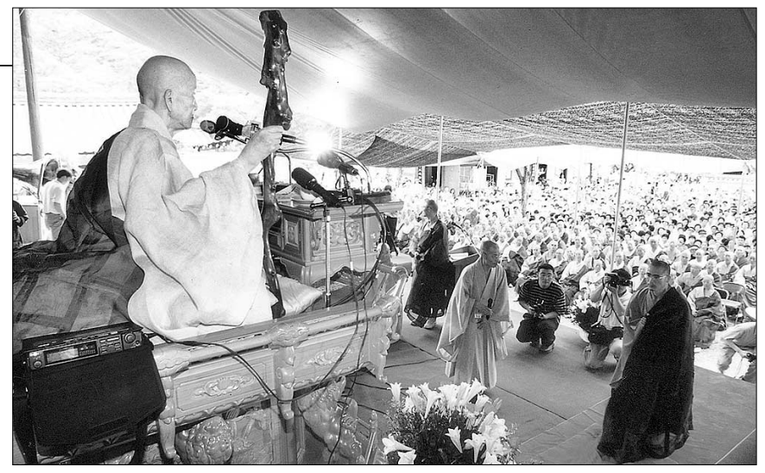
짧은 기간동안 스님의 집중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이제 좌복에 앉지 않아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참선을 할 수 있게 됐다.

물질세계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자신에게 무한한 정신세계가 있음을 알게 돼 기쁘다. (끝)

■ 변호사

법거량, 그것이 알고 싶다

언어 초월한 깨달음의 상징



지난 2000년 8월 백양사에서 열린 '제2회 무차선법회'에서 고불총림 방장 서옹 스님과 한 수좌의 법거량 장면.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최근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이 숭산 스님의 49재 법석에서 내린 법어와 현장에서 오간 말들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보기 드문 법거량(法擧量)이 이뤄졌다는 평가와 그렇지 않다는 시각이 팽팽하다.

하지만 백담사 선원장 신용 스님은 "당시 상황은 법거량이 아니었다. 하나의 해프닝이었다. 송담 스님은 숭산 스님이 해온 해외포교의 원력을 역설적으로 찬탄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럼 법거량이란 무엇일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왜 법거량을 하는지, 한국불교계의 선문답 현실은 어떤지를 진단해본다.

법거량(法擧量), 왜 하는가

인가(認可)를 중시하는 선종, 특히 화두참구로 깨달음을 얻는 간화선 수행전통에서 법거량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수행자의 화두타파 유무, 깨달음의 증득 여부 등을 판단할 기준이 법거량에 있기 때문이다.

법거량은 보통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뤄진다. 제자는 자신의 깨달음의 경계를 드러내고, 스승은 제자의 공부됨됨이를 점검한다. 또 이미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은 깨친 법을 서로 확인하기도 한다. 그래서 법거량을 일반적으로 '선문답'이라고 한다.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계를 드러내고 확인하기에 그렇다.

법거량의 방식은 '즉문즉답(卽問卽答)'으로 진행된다. 한 치의 양보도, 알음알이도 끼어들 틈 없이 치열하다. '할'(喝;깨우쳐주기 위해 '억!'하고 큰 소리를 지름)과 '방'(棒;죽비나 손으로 일격을 가해 깨우침을 주는 행위)까지 날린다.

법거량의 이 같은 '파격성'은 '응병여약(應病與藥)'의 원리에 있다. 즉 말, 행동, 소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자가 앓고 있는 병(의심)에 맞춰 약(점검)을 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 직지인심의 기연을 제자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 법거량의 핵심이다.

법거량이 어려운 이유는?

법거량은 언어를 초월한 깨달음의 상징이다. 해석 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유자재한 선의 세계를 문자 또는 말로써 풀어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문답 과정에서 서로의 경계 드러내고 확인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오해 일으키기도

또 법거량이 갖는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도 한 이유다. 이는 깨달은 사람만이 법거량의 참 뜻을 알 수 있는 특성을 간과하기에 그렇다. 여기에 행간 의미를 놓고, 논리적인 뜻풀이에 관심을 두려는 점도 같은 요인으로 작용한다.

봉화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은 "법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법거량을 논리적인 사고 틀에서 알음알이로 이해하면서 오해 또는 곡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짐작과 분별로써 법거량을 해석하려는 태도를 극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주사 총지선원장 함주 스님도 "법거량은 일종의 법담이다. "있는 그대로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의 가치판단으로 가늠하면 안되는 자리다. 특히 알음알이를 가지고 보면 천리 만리로 멀어진다"고 조언한다.

법거량,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재가불자 간화선 수행모임인 선도회 박영재 지도법사는 "법거량은 일종의 '응용공안'"이라고 말한다. 즉 법거량은 역대 조사들이 주고받은 공안, 선어록 등의 내용인 만큼, 그것들을 화두 참구하듯 공부하는 것이다.

박 법사는 특히 대기설법을 연원으로 한 법거량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때문에 박 법사는 공부의 깊이를 헤아려 본다는 측면에서 법거량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수행이 깊지 못한 사람들이 '왜 마음공부에 미숙했는지'에 대한 반성조차 화두참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수행자는 늘 스스로 여법한 자리에서 법을 올바르게 드러내고 경계나 말에 쫓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시험 ·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박 법사는 우선 수행자들은 스승을 부단히 대면하면서 정기적인 입실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실참이 이뤄지고, 궁극적으로는 선교쌍수(禪敎雙修)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불교계, 법거량 전통이 살아 있는가?

대다수의 선사들은 이미 사리진 지 오래라고 입을 모은다. 아니 사실상 끊겼다고 말한다. 물론 백양사 고불총림이 1998년, 2000년, 그리고 부산 해운정사가 2002년에 조사선(祖師禪) 수행 풍토의 선양과 승속의 구별 없이 깨달음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무차선법회를 봉행했지만, 여전히 법거량 전통의 복원을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진정한 고수는 드물고 앵무새만 늘고 있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간화선이 '의리선'(義理禪;뜻과 이치로만 헤아리는 선)에 빠졌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참 없는 법거량의 위험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은 "오늘날 한국불교계는 문자선, 의리선, 구두선 등으로 '말길'로만 선어록을 외는 죽은 법거량을 하고 있다"며 "법거량 전통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말 이전의 소식을 보고 들어 마음자리에 곧장 계합할 수 있는 선문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대원 스님은 특히 조실 스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행자의 눈을 뜨게 해 줄 명안종사를 길러내야, 법거량 전통이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이 대원 스님의 설명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어떤 가르침 주나

의심·신심·발심 일으켜 공부 도와

법거량은 수행자에게 화두참구의 필수 조건인 3심(의심, 신심, 발심)을 일으킨다. 스승이 제자에게 발심의 기회, 신심 증대, 의심 해소 등의 기폭제를 준다. 이를 통해 공부의 진척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법거량의 이 같은 가르침은 중국 임제 선사가 스승 황벽 선사에게 맞은 '30방(棒)'에서도 엿볼 수 있다. 3년을 넘게 공부를 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자, 임제 선사는 황벽 선사에게 "어떠한 것이 부처입니까?"라고 세 번 찾아가 묻는다. 하지만 족족 30방만을 맞는다. 영문도 모른 채 얻어맞은 임제 선사는 고한의 대우 선사를 찾아 자초지종을 말한다. 그러자 임제 선사는 "황벽이 그렇게 자비스러운 법을 폈다"는 대우 선사의 말을 듣고, "황벽의 불법도 몇 푼어치 안되는구나!"하고 확철대오한다.

황벽 선사의 30방 법거량은 제자에게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켜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봉화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은 "법거량은 "법의 궁금증을 일으켜 공부하려는 의지를 북돋아줘 조사선 수행점검법의 핵심이 된다"고 말한다.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인모집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현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한국 불교 통신대학. 대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나란다 삼장불학원 학인모집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5년 3월 10일 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김진궐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나란다 삼장 불학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지진해일 피해 지역에 자비를…

제천 송화사 성금 160만원 기탁



충북 제천 송화사(회주 경암 · 불입종 총무원장)는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 돕기에 써 달라며 거사회에서 모은 성금 1백60만원을 2월 7일 본사에 기탁했다.

경암 스님(사진)은 "거사회 회원들이 피해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차원에서 성금을 모금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이 될 수 있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나눔의 손잡기 성금

김용순 이수진 임재연 이아리 김종현 하혜경 :253,280원

총누적금액: 37,975,060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친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한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한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보도한다. 후원을 할 불자들은 단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을 별도로 소개한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된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는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할 수 있다.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연계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생명나눔 실천회의 골수기증 및 혈소판 모으기 행사에 후원사로 참여한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사업을 전개한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해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소개한다.

♥ **나눔장학금 전달** 2005년 하반기에는 지방에 소재한 12개 종립학교 학생 72명에게 사찰체험을 시켜주고 장학금을 전달한다.

♥ **김창배 화백 지상 선묵화전** 담원 김창배 화백이 보시한 선묵화 30점의 지상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인터넷 전시회도 열어 작품을 판매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틈날때마다 다시 올게요"

고등학생 · 외국인들 '나눔의 집'서 자원봉사

낮에는 청소봉사, 밤에는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는 '나눔의 집' 자원봉사캠프 참가자들의 모습.

"청소할 때는 꼭 할머니들께 여쭤보고 하세요. 2층 법당은 구석구석 잘 닦아야 해요."

2월 5일 경기도 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의 터전 '나눔의 집(원장 원행)'에서 열린 '자원봉사캠프'. 보조교사 목정하(30)씨의 인솔로 2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나눔의 집' 이곳저곳을 비질하고 치우느라 부산하다.

그런데 이 학생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유창하지만 어딘가 서툰 한국말을 구사하는 일본인 자원봉사자들과 전북고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를 하고 있다는 미국인 레이첼(한국명 권수연 · 30)이 그들이다.

이 중 일본 정토진종 승적을 가진 오시우미 타테모리 스님은 '나눔의 집' 내에서는 일본 이름 대신 '봉수'라는 한국 이름만 쓸 정도로 '한국사랑'이 깊다. 성균관대 어학당에 다니고 있는 봉수 스님은 평소 "스님 행세를 하고 싶지 않다"며 합장반배도 마다하지만 아침에는 꼭 법당에서 할머니들을 위해 기도드린다.

할머니들을 이해하고 싶어 한국말 단어 카드를 들고 다니는 레이첼은 '나눔의 집' 내에 있는 위안부 역사관에서 할머니들이 심리치료 요법 중의 하나로 그린 그림에 큰 감동을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나눔의 집'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계속 할머니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절반 정도만 성공한 상태다.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무르고 있는 외국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를 머무르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전쟁의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의식에 대한 토론을 한 학생들이나 '나눔의 집'을 체험하고 난 이후 한결 같이 하는 말이 있다.

"시간 날 때마다 이 곳에 오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리는 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어려운 이웃에 좀도리쌀 전달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연합회(회장 유용상)는 2월 4일 영등포 '보현의 집(원장 지거)' 앞마당에서 이웃돕기를 위해 '사랑의 좀도리쌀 모으기'를 통해 수집된 쌀을 배분했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해 대한성공회 푸드뱅크,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스러기 나눔 선교회, 먹거리 나눔 협의회 등 5개 단체가 참여, 각각 20kg들이 200여 포대씩 지원받아 산하 복지단체에 다시 쌀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날 행사에 앞서 새마을금고연합 유용상회장과 보현의 집 원장 지거 스님, 성공회 푸드대표 공동대표 김재열 목사는 영등포 보현의 집을 둘러보며 쉼터 노숙인들과 대화를 하고 이웃들에게 나눠줄 가래떡을 썰기도 했다.

김강진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사팀 울타리회

"남들과 조금 달라도 사랑스러워요"

"어디든지 도움이 되고 어떤 곳이든 보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울타리'에요."

장애아동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자 8명의 회원들이 똘똘 뭉친 '울타리회'는 여느 목요일마다 그래왔듯 2월 3일에도 서울시립아동병원을 찾아 그 곳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최미애(47) 팀장을 비롯한 3명의 봉사자들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비누칠을 하고 물을 끼얹는 곳은 205호 중증 지체장애아동들이 치료를 받는 공간이다. 아이들의 뒤틀리고 굳어버린 몸을 씻겨주는 자연스런 손놀림은 5년 동안 한결같이 해오다 몸에 밴 것이다.

아이들의 놀이방처럼 꾸며져 있는 301호에서도 울타리회 봉사자들은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고 있었다. 301호에서 봉사자들은 이름 대신 누구누구의 '엄마'로 통한다.

"애들이 엄마, 엄마 그러더라구요. 그럴 때마다 진짜 이 아이 엄마구나 싶어요."

유필수(53)씨가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여섯 살 선미(가명)를 끌어안으며 "아이고, 예뻐라"를 연발했다.

5년 전, 한두 번 찾아왔을 때는 아이들의 중증 장애 때문에 밥 먹기조차 괴로웠다는 울타리회 봉사자들. 그러나 "애들은 애들이고 우리를 알아보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꾸준히 봉사의 길을 걸어왔다.

"앞으로 아이들은 계속 바뀌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아이들 옆에 있을 것입니다." 김강진 기자



최미애 팀장을 비롯한 울타리회 회원들이 2월3일 서울 시립아동병원에서 중증 지체장애 아동들에게 목욕봉사를 하고 있다.

▌후원자를 찾습니다 - 수원 연꽃마을 '행복한 집'

수원 시청관사에 마련된 연꽃마을(원장 각현) '행복한 집'에는 5명의 남 · 여 중학생과 정석 스님(충남 예산 묘법사)이 살고 있다. 아이들은 지역 내 소년소녀 가장으로, 스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서 식구가 됐다. 벌써 8년째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정석 스님이 '출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 속에서 어렵게 모은 식구들이다.

이곳을 돕고있는 울타리회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을 살려줄 수 있는 예체능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울타리회 김선희(53)씨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접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불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031)258-5727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무기와 번뇌의 마음을 무념과 반야로 바꾸는 수행방법과 수행단계

서울 법기불교대학 제4기 모집

바른수행과 바른깨침의 길을 제시하는 서울 법기불교대학이 제4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자예절, 기초교리에서부터 불교의 핵심인 참선수행에 이르기까지를 강의와 수행지도, 점검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법기불교대학 제4기 과정에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법기불교대학 강의일정]

차례	강 의 내 용
1강	입재, 불교바로보기 / 사찰의례 (삼귀의, 사홍서원, 전각·법당, 사찰예절, 합장, 절하는법, 예불문), 108배
2강	중생의 마음 (무기·번뇌, 가아·진아) / 친목의 시간
3강	수행방법 (관법과 염법) / 법담 나누기
4강	요처수행(산행)
5강	기초교리 (4성제8정도, 3법인, 5온, 12처18계, 연기법) / 호흡점검
6강	삼매와 삼매관성, 경계와 법, 업장소멸의 원리 / 선배의 수행경험담
7강	|토요일| 철야정진 / 상기의 극복(멜로디), 지식호흡과 반지식호흡
8강	수행자의 건강관리 / 반별 법담 (도반의 수행담)
9강	좌선과 행선 (1시간) / 수행단계와 수행방법
10강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돈오, 무념, 반야, 삼신불) / 이근관, 안근관, 호흡점검
11강	봉사활동
12강	기복불교, 북방불교, 남방불교의 비교분석 / 멜로디 연습
13강	불교상식 바로 알기 / 설문조사, 발원(정근)
14강	수료식 / 선지식 법문

[개강]
· 주간반 : 2005년 3월 4일(금요일) (오후 2:00 - 4:00)
· 야간반 : 2005년 3월 5일(토요일) (오후 7:00 -9:00)

[접수]
· 서울법기선원 (T.02-854-1848)
· www.bubkisa.or.kr (한글도메인 '법기사')

[수강료]
· 총 95,000원 (교재비 포함)

* 강의 내용은 선원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BUBKI BUDDHIST TEMPLE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 기 선 원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3W, 5W, 10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제10회 신행수기 입상작
특별상(천태종 총무원장상)

되찾은 희망 (상)

변숙이 (대구시 북구 관음동)

내 나이 스물여덟 되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칠월칠석을 앞두고 친정엄마의 권유로 단양 구인사라는 곳을 찾아 갔다.

그 때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으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고생하고 그 악몽을 꾸고 나면 곧 생활에 연관돼 '또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고민과 두려움으로 지장이 참 많을 때였다.

나는 9개월 된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구인사를 찾아 갔다.

4박5일 기도표를 끊어 법당에 참배하고 대조사님 산소에 다녀오고 나니 노곤하고 기운이 없어, 지금은 구름다리 밑의 장작이 가득 쌓여 있는 비석자리 옆에서 2박3일 동안 밥도 먹는 둥 마는 둥하고 계속 잠만 잤다. 깨어나면 후회하고 또 잠에 취해 자고 그러던 중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4박5일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 사람만 종정 큰 스님 친견을 위해 삼보당으로 모이라는 방송이었다. 난 답답한 심정에 친견을 하고 집에 가야겠다는 결심으로 아침부터 줄을 서서 삼보당에 들어갔다.

큰스님을 친견하니 "기도 열심히 해"라는 그 간단한 말씀 한 마디뿐. 다른 사람들은 처방도 많더라만….

기대에 비해 너무 간단히만 말씀하셔서 혼자서 실망을 하다가 다 치우고 집에 가려고 했다. 남편과 자식 걱정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괜히 왔다는 생각에 후회스럽고 답답하기까지 했다.

친견을 마친 다른 신도님들과 함께 줄지어 삼보당을 나오는데 갑자기 비구스님이 "보살님?"하며 큰 소리로 불렀다. 큰 스님 방 앞에 있는 작은 쪽문을 지키던 스님이었다.

사람들이 수근 거리며 뒤돌아보았다. 자꾸만 외치는 그 소리에 나도 뒤돌아보았다. 그 스님의 눈빛이 곧 나를 바라보며 부르는 것 같았다.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으며 "저 말입니까?"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오늘 친견 날짜가 아닌데 하는 죄책감에….

북새통 속을 빠져나가 스님 앞에 다가서니 스님께서 "보살님! 보살님 집에 가는 날짜가 언제입니까?"라고 물었다.

"예? 집에 갈 날짜는 며칠 남았는데 오자마자 계속 잠만 자고 기도도 안 되고 해서 그만 집에 가려고 친견을 받고 나왔습니다" 했더니만 스님은 하늘을 쳐다보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보살님! 보살님은 잠을 자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공부가 잘 되고 있으니 꼭 4박5일 날짜를 채우고 가십시오"라고 하셨다.

"예"하고 돌아서는 순간 답답한 마음이 눈 녹듯이 가라앉으면서 머릿속에는 의문이 남기 시작했다. 잠만 잤는데 공부가 잘 되고 있다니….

저녁 공양을 하고 5층 법당 뒤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내 기도소리에 내가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다. 몇 시간이 흘러갔을즈음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느낌과 동시에 마음은 고요히 착 가라 앉으면서 입에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부르는데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이 마치 TV를 보듯 한순간 스쳐 지나갔다.

내 육체가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에 손으로 넓적다리를 꼬집어보았다. 내가 제 정신인 것이 맞는데 왜 이럴까?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졸은 것도 아니고 정신은 초롱초롱 맑은데….

멀리서 들려오는 비구니스님들의 기도소리를 좇아 열심히 기도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더 없이 보배로운 생활의 지침서를 그 때 주신 것 같다.

그 날 저녁 나는 내게 세 가지 보배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 중 하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어온 선업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조계종 절에 다녔다. 고등학교 다닐 때였다. 절 법당 부처님 앞에는 법사님 부인만 꽃 공양을 올리곤 했는데 어느 날 법사님께서 나를 보고 "그믐날이 되거든 국화꽃을 사와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거라"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법사님은 영이 맑으신지 신기가 많으신지 참으로 까다로우셨다. 그때부터 난 용돈을 아끼고 정성들여 결혼할 때까지 꽃 공양을 올리라는 법사님 말씀대로 약8년 동안 꽃 공양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인사에 가서 기도하니 제일 먼저 그 기억이 떠오른 것이다. 눈앞의 사찰 도량이 부채춤 추듯이 감싸고 그 안에서 스님들이 줄지어 목탁을 치며 도는 모습과 겹겹이 쌓인 온 산이 마치 국화꽃처럼 보이면서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 전에 올린 그 꽃이 다 모여 저렇게 많구나. 그러니 공든 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너무나도 순간이고 찰나였다.

두 번째로는 인연법의 보배를 주셨고 세 번째로는 조상님 천도와 효에 대한 보배를 주셨다.



그림 · 문병성

악몽 떨치려 구인사서 기도, 계속 잠만 쏟아져 포기할까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노라니 "기도 열심히 해" 하시던 큰스님 말씀이 자꾸 맴돌았다.

'아! 하면 되는구나, 열심히 해 봐야지.'

집에 돌아와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남편의 불평은 점점 커졌다. 생각 끝에 남편을 포교하러 구인사 3일 기도를 갔다.

"부처님! 남편을 불제자가 되게 해 주신다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원을 세우고 부처님 앞에 빌고 또 빌었다.

5층 법당에서 한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관음전을 거쳐 삼보당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아! 몇 년 전 저 쪽문을 지키던 스님, 그 스님이 나를 그 때 불렀었지. 그 스님이 누굴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우물가엔 비구니스님들이 생각을 씻고 있었다. 다가가서 여쭤보았다.

"스님! 5년 전 쯤 저 쪽문 지키던 스님이 누구십니까?"하니 수군수군 의논 하시더니 "무원 스님"이라 하셨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날 아침공양을 하고 내려오는데 저 앞에 스님 한 분이 뒷짐을 지고 올라오고 있었다.

자꾸만 '저 스님이 그 스님이 아닐까'라는 예감이 들어 어떤 노 보살님께 물어보았다. 무원 스님이라 했다. 너무도 신기해서 다른 처사님을 붙잡고 또 물어보았다. 역시나 무원 스님이셨다. 그 후 구인사의 모든 행사에 참석할 때나 기도하러 갈 때면 꼭 그 스님을 보게 되었다. 그 때마다 스님 뒷모습을 보며 '스님, 저 왔어요. 스님, 고맙습니다'라며 마음속으로 꼭 인사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남편에게 구인사 가서 4박5일 기도하고 오라고 사정했다. 불교에 익숙하지 않은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었다.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다가 제의했다. 직장이 구해지지 않으면 당신 뜻대로 절에 다니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다. 그 말 책임지느냐고 다그치더니 각서 쓰라고 했다.

남편은 구인사로 떠나고 난 집에서 부처님께 기도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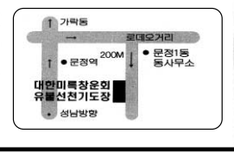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 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아름다운 기와 문양을 직접 탁본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 박물관'에 가면…

보고 만지고 찍고 조상들 지혜에 '흠뻑'

"나는 첨성대 조각을 맞춰야지"(전승철, 화랑초 3)

"난 고선사터 3층 석탑. 누가 빨리 만드나 내기하자."(장우혁, 화랑초 3)

승철이는 첨성대 조각 맞추기를 시작했는데 좀처럼 잘 맞춰지질 않아 심각하다. 우혁이는 벌써 탑 모양이 완성돼 가는데 말이다. 첨성대와 고선사터 3층 석탑 모형조각을 맞추는 승철이와 우혁이의 모습에서 옛 신라 조상들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이것 봐. 멋있지? 이것이 '귀면와'라는 거야. 내가 만들었다."(최윤아, 계림초 2)

설화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진(계림초 3)이가 윤아의 자랑에 얼른 기와 만들기 코너로 달려갔다. 윤아는 유진이가 끼고 있던 헤드폰을 얼른 받아 끼더니 금새 재미난 설화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설 연휴기간동안 국립경주박물관의 특별전시관 지하는 어린이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김성구)이 특별전시관 지하에 수장고로 이용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어린이 박물관으로 꾸며놓았기 때문이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알록달록한 실내디자인으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220여 평의 공간은 보고 듣고 만지며 옛 신라시대 조상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으로 가득하다.

국립박물관으로는 두 번째이자 영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관한 어린이 박물관은 입구를 지나 들어서면 중앙에 제일 큰 홀인 체험 학습실이 보이고, 우측에는 강당 좌측에는 공작교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헤드폰을 끼고 고대설화를 듣고 있는 어린이들.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체험 학습실은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내주는 힌트를 이용해 문화재퀴즈에 도전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형태로 꾸며져 있고, 그 중앙을 중심을 '놀이로 체험하기', '컴퓨터 속으로의 문화여행', '직접 만들어 가져 가세요' 코너가 마련돼 있다.

강당은 1954년에 문을 연 경주어린이박물관의 수업을 위해 마련됐는데, 토요일 수업시간외에는 어린이들이 도서 열람과 인터넷검색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대형프로젝트가 마련돼 있어 간단한 공연이나 영화상영도 가능하다. 공작교실은 주말이나 공휴일 전문 강사와 함께 여러 가지 전통공예품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진행된다. 어린이들에게는 최고의 학습공간이자 놀이공간인 셈이다.

지난 1월 31일 열린 어린이 박물관 개관식. 경주국립박물관 김성구 관장, 경상북도 경주시 교육청 김동훈 교육감, 포항시 교육청 유권재 교육장을 비롯한 지역 교육 일선에 있는 선생님과 학부모 어린이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하지만 행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벌써부터 박물관 구석구석을 누비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만큼 어린이 박물관은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식이 끝나자마자 첨성대 블록 쌓기를 해야지."

희철이는 교육감 선생님 뒤에 보이는 블록조각에 이미 시선이 고정돼 있다.

마침 설화이야기 코너 옆에 자리 잡은 기탁이는 개막식 도중에도 헤드폰을 끼고 있다. 교육감 선생님의 축하 말보다는 설화이야기가 더 재미있는 게 사실이다.

개막식이 끝나자마자 어린이들은 순식간 박물관 곳곳에 흩어져 관람과 체험을 시작했다. "무엇을 할까?"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눈치만 살피는 친구도 있다.

기훈이는 첨성대 모형 블록 쌓기에 도전했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옆에 친구가 이렇게 저렇게 훈수를 두는 통에 더 헷갈린다. 토기 조각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친구랑 같이 머리 맞대고 하니까 그 재미가 쏠쏠하다.

21세기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가 빠질 수 없다. 컴퓨터 게임을 통해 문화재를 배울 수 코너가 또 인기다. 부처님의 손 모양과 신라문자 알아 맞추기, 무덤에서 출토된 금관과 금제 허리띠장식으로 왕과 왕비꾸미기 놀이도 재미있다. 신라 노래방에서는 서동요, 풍요, 헌화가 등 신라향가를 흥얼흥얼 따라 부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직접 만들어 가져가기' 코너. 어린이들은 소매도 걷어붙이고 점토로 신라 문양 찍기에 여념이 없다. 연필이랑 종이만 있으면 성덕대왕신종 모형에서 아름다운 무늬를 얼마든지 재현할 수도 있다.

어린이박물관 개막식을 보러 온 경주지역 어린이들은 두드리고 찍고 만지고 하는 동안 어느덧 우리조상들의 지혜와 미에 흠뻑 젖어들었다. 동생 수진(3학년)과 함께 온 양혜리(용광초 6) 양은 "성덕대왕 신종의 무늬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고 말했다.

어린이박물관을 기획한 정성희 담당 학예연구관은 "경주가 옛 신라문화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신라문화박물관이라는 특징을 살려 어린이들이 신라의 문화재와 문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찰흙으로 기와를 만들었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그리고, 신라 노래(향가)듣기도 좋았다. 어린이 박물관이 생겨서 너무 좋다." (강진님, 화랑초 6)

이날 어린이들은 돌아가면서 입구에 마련된 노란 엽서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과 바라는 점 에 대해 글을 남기고 돌아갔다.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물음도 남겼다.

어린이 박물관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어린이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어린이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답장도 보낸다. 이것이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또 다른 자랑이다.

경주박물관은 50년 넘게 이어온 어린이박물관학교도 계속 운영하며,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만들기 대회를 개최하고, 여름 어린이 박물관 교실, 낙도 오지 어린이 초청 박물관 체험 교실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게임이나 프로그램들도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글=배지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지하 수장고 개조, 어린이 놀이 · 학습공간 마련
퀴즈 · 공작교실 · 컴퓨터 문화여행 등 코너 다양
신라의 역사, 문화 체험 통해 쉽게 배울수 있어


선생님과 함께 모형 석가탑을 만드는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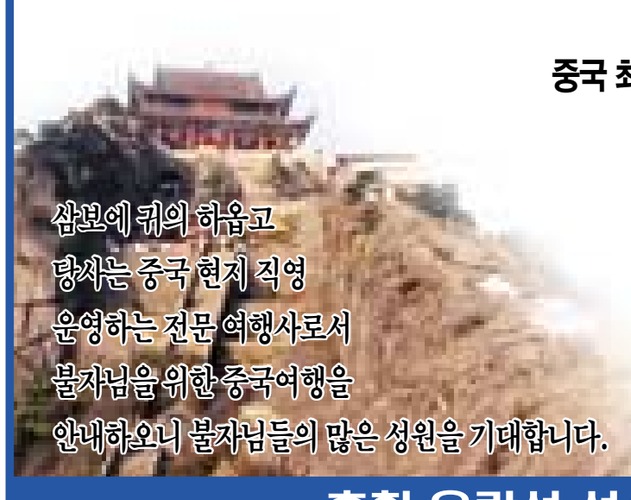

어린이들이 토기 조각 맞추기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연필과 종이를 이용해 성덕대왕 신종의 무늬를 탁본하고 있는 어린이.

■ 어린이박물관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면

어린이박물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4회로 나누어 운영한다. 월요일은 휴관하며, 토요일 오후에는 박물관학교 강의가 이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체험시간은 1시간 30분이며, 1회 입장가능 인원은 50여명 정도. 따라서 체험을 원하는 학생은 최소한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은 전화로 하거나 현장에서도 가능하다.
입장은 무료이며, 프로그램에 따라 1천원 가량의 재료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 (054)740-7591, 740-7538(월요일에는 이 전화로만 예약 가능)
http://gyeongju.museum.go.kr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30-0705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 소림사, 용문석굴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686 CZ3962	12시 인천 공항 출발/대련 도착 송산사 순례 및 대련 관광/정주로 이동
2 일	전용버스	개봉-용정, 철탑, 포공사 관광
3 일	전용버스	소림사, 탑림, 백마사 순례
4 일	CZ3961	중국의 3대석굴인 용문석굴 순례 대련으로 이동/러시아 거리 관광
5 일	CZ685	08시 30분 대련 출발/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옹화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곡부 6일 (천불동, 영암사, 잠산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 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화선사, 용문사 순례
3 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 일	전용버스	심천-소인국 민속촌 관광
5 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9>



미안해요 지율 스님

자연은 그릇이고, 인간은 그 속에 담긴 내용즉, 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릇을 넘으면 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삶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릇을 함부로 대하면 금이 갑니다. 그러면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삶은 역시나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한다고 큰 소리치지만 실은 자연의 질서에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만 그릇인 자연이 깨어지지 않고 오래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자연이라는 그릇의 크기에 지배받고 순응하면서 그릇이 튼튼하게 유지되어 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 이나 있을까요?

갠지스강 한켠에 우담바라 숲이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우담바라의 붉은 열매가 가지에 가득 영글면 온갖 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숲에는 수천 마리의 앵무새가 살고 있었는데 젊은 앵무새의 왕은 우담바라 열매가 익어서 넘치더라도 필요한 분량만큼만 먹고 그 이상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없어지면 나무가 말라죽지 않을 정도로 나무의 씨앗이나 잎을 씹어 먹고 갠지스 강의 물을 마시며 만족하였을 뿐 결코 떠날 수가 있었니?"

백조는 앵무새왕의 말에 감동하였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도타운 우정이구나. 우정을 가르쳐준 너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 너는 뭘 원하니?"

"우리의 바람은 이 나무가 되살아나는 것뿐이야. 그 이상은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

앵무새의 이 말을 듣자 백조는 곧 제석천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갠지스강에서 물을 길어와 바스러진 우담바라 나무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나무는 금새 생기를 되찾았으며 순식간에 가지를 뻗더니 푸른 잎이 무성해지고 붉은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을 보며 앵무새들은 좋아 어쩔 줄 몰랐고, 제석천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목숨이 있는 자라면 모두 이같이 앵무새왕의 마음을 닮아야 하리라."(쟈타카 429번째 이야기)

저는 바로 며칠 전에도 KTX를 타고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KTX를 탔을 때는 그토록 멀게 느껴졌던 부산을 3시간 안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 바로 위에 있는 밀양까지 강의 때문에 몇 번 연속적

자연과 살고자 배고픔 견딘 앵무새의 마음 조금이라도 닮아가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제석천은 감동하여 시험해보려고 신통력을 부려서 우담바라 나무를 모조리 말라죽게 하였습니다. 땅에는 가루처럼 부서진 나무들이 산더미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앵무새들에게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새들은 나무의 가루를 먹고 강물로 허기를 달래었습니다. 그래도 새들은 숲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제석천은 백조로 모습을 바꾸어 숲으로 내려가 앵무새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추위에 강한 우리도 강추위에는 먹을 것을 찾아서 살던 곳을 떠난단다. 새란 본래 그런 것이지. 그런데 너희를 보니 먹을 것 하나 없는데도 이 나무를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자 앵무새왕이 백조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이 나무에 기대어 연명해왔지. 어느 때는 과일과 잎을 먹고 어느 때는 가지에 앉아 쉬며 이 나무와 이야기 나누면서 나날을 보내었단다. 그러니 이 나무는 우리의 벗이며 피를 나눈 친구라고도 할 수 있어. 진실한 친구라면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법 아니겠니? 나무가 말라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금방 이 숲을 으로 타고 다니다 보니 어느 사이엔가 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쩜 이리도 느릴까. 제 속도 다 내면 지금보다 한 시간은 더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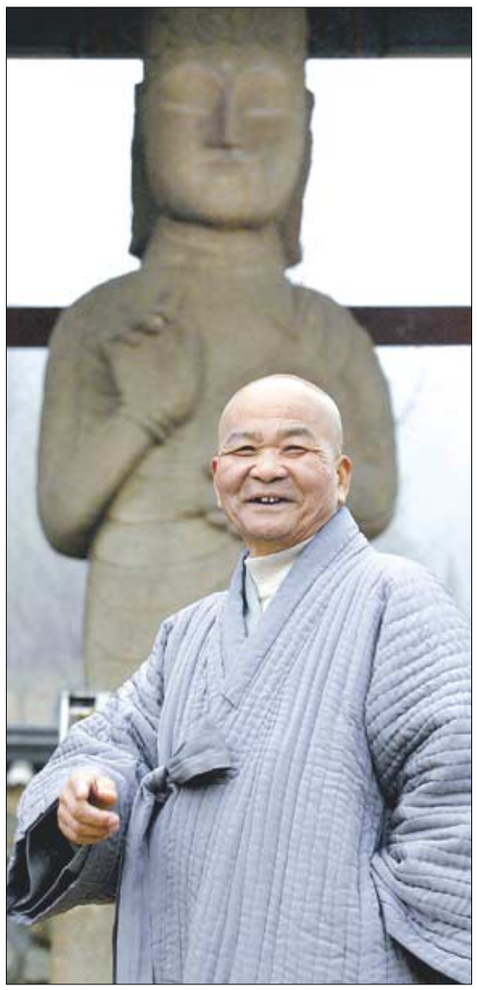
신속하게 공사를 끝내지 못하는 철도청측이 미련하고 무능하게 느껴진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고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제 이메일에는 천성산을 살리자며 공명(共鳴)해 줄 것을 호소하는 글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더딘 개발에 분개하였던 경험을 지닌 터라 차마 공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한 사람의 편리를 위해 그까짓 산 하나쯤이야 파괴되든 말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터에 손가락 몇 번 클릭으로 지율 스님의 그 실천에 동참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율스님.

지율 스님은 "나를 보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보아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스님께서 어서 기력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려고 굶주림도 감수한 앵무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지극한 맘으로 '몸·입·뜻' 바르게



의룡스님은 어린시절 미륵당 인연 따라 스스로 '자심란야'라고 이름지은 토굴에서 주석하고 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복을 준다는 미륵과 스님의 미소가 닮았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비난만 말고

전생에 내가 지은 악업의 연장으로

여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 들여봐

지상 백고좌

의룡 스님

(서울 각황사 조실)

의룡 스님은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간간히 서산 마애삼존불의 천진한 미소가 떠올랐다. 올해 고희를 맞은 천진불 의룡 스님을 경기도 안성의 죽산 미륵당 토굴에서 만났다.

"난 워낙 건강이 좋은 사람이여" 의룡 스님은 마침 전날 황석공(黃石公)의 고사가 얽힌 중국 '장가계'와 교각 스님이 수행했던 '구화산'을 둘러보고 왔노라고 했다.

마을 한가운데 서있는 미륵당은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거대한(5.6m) 미륵보살(경기도 지정문화재 제37호) 위로 누각이 서있는 곳이다. 논산 관촉사의 미륵불 보다 크기는 다소 작지만 아기자기한 장식이나 기교는 그에 못지않다. 이 미륵당과 이마를 맞대고 있는 초라한 누옥이 스님의 토굴이다. 스님이 '자심란야(慈心蘭若 · 마음을 자애롭게 하는 곳)'라고 이름 지은 토굴 출입문에는 '入此門來 莫存知解(이문을 들어오는 이는 알음알이를 모두 놓고 올 것)'라는 경고문(?)이 큼지막하게 써 붙여져 있다. 선을 드는데 불필요한 근심거리나 알음알이를 들이지 말라는 선가의 경구다.

요즘 근황을 여쭈었다. "선(禪)도 하고, 경(經)도 보고, 그냥 놀고 지내지 뭐, 허허허. 간혹 이곳저곳 다니면서 법문도 하고. 헌데 뭐, 불교는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깐…. 그게 다 소용없는 짓인데… 허허허. 이젠 책도 내지 않아. 선현들이 다 잘 해 놨는데 내가 써 봤자 표절 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런 것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 당대의 강백으로 이름 높았던 스님은 이제 일상의 모든 것에서 집착을 놓고 여여한 모습이었다.

의룡 스님이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은 지난해 봄이다. 상좌들의 만류가 대단했지만 기어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어린시절부터 동경해 왔던 미륵당의 인연이 스님을 이곳으로 이끈 까닭이다. 스님에게 미륵당은 각별한 곳이다. "사실 이곳 안성은 내 속가 고향이여. 내 외가가 안성인데 왜정 때 이 앞으로 충주까지 다니는 철도가 있었어. 그 시절 할머니랑 기차를 타고 지날 때마다 창문 밖으로 높이 솟은 '미륵당'을 봤지. 그 때 이미 멋 훗날 이곳에 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여, 결국엔 소원을 이뤘지 허허허."

스님의 출가 인연은 특이하다. "내가 어려서 10살이 채 못됐을 땐데 용을 꿈에서 본거야. 그때 내가 뭐, 시골에서 용을 보기나 했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용꿈을 꾼 거야. 큰 연못 한 가운데서 물결이 일더니 용이 머리를 내밀고 솟구쳐 오르는 거여. 물이 어떻게나 맑은지 몸에 난 비늘 하나하나가 모두 또렷하게 그대로 보여. 아! 저게 용이구나 하며 넋을 놓고 쳐다봤지. 연못가 수양버들 한가운데 난 구멍을 지나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 어찌나 신기하던지. 한번 꿈틀거리며 오를 때 마다 오색구름이 생겨. 마침 뒤에서 긴 머리를 산발한 도인이 나타나 '너 용 처음 보지?' 하더니 '저렇게 용이 구름을 만들며 하늘을 오르는 걸 '도운승천(圖雲乘天)'이라고 한다'고 가르쳐 줬지. 그러고는 잠에서 깬 거야. 그길로 용주사로 달려갔지." 스님은 이미 만들어진 구름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구름을 의지해 하늘을 오른다는 '도운승천'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어린나이였지만 무언가를 이루려는 인물은 시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이치를 깨닫고 출가를 결심한 것이다. "그 꿈을 꾸고 내가 용주사에 간 거야. 부모님한테 말도 않고 그냥 무작정 가출한거지. 나중에 2년이 지나서 겨우 집에다 알렸어. 내 법명이 '의룡(義龍)'인 것도 그런 까닭이야. 은사스님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출가의 뜻을 말씀드리니 내 법명에 '용'자를 넣어 주셨지. 용꿈 덕분인지 내가 뭐, 대단한 '신통묘용'은 없어도 평생을 강사로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살았어요."

강백으로 일생을 보낸 의룡 스님은 최근까지 직지사 강주소임을 지냈다. 현

불교지도자와 재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경기북부 교양대학 제3기생 모집

1. 대학설립 취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여법하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임,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 강좌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화합 불교사상을 널리 펴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있음.

2. 교 과 목
● 전통의식반(제공의식 포함) 주 1회 (금요일) / 시간 : 15:00 ~ 19:00
▸ 기초(사물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제공의식)
▸ 연구(제공의식, 현장실습)

3. 교육기간(6개월)
● 원서접수 : 2005년 2월 14일 ~ 3월 19일 (토요일) ● 개강일시 : 2005년 3월 25일 (금요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4. 특 전
본대학은 조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시 지원 및 편의제공
본대학 전통의식과정 졸업자가 지도자과정으로 입학 할 경우 입학전형에 특전부여

5. 교 통 편 : 차량운행

3. 문 의
경기북부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전화 : 031)864-0033
팩스 :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곡리 380번지 기원정사

신간안내
• 제 목 : 불교범음의식집 • 저 자 : 백설운 스님
• 출판사 : 이화문화출판사
• 금 액 : 35,000원
• 구입문의 : 031)864-0033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북부 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화동섬유의 발명특허 제품 특허 제0306034호 지압사 사용



발 갈라짐, 습진, 발냄새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LIHIS 건강지압 양말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국가가 기술력을 인정한 특허제품입니다.
(특허 제 0306046호 획득)

15일정도 계속 사용해 보세요.

※ 관절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팔, 다리 보호대를 권합니다 ※

정맥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압베개, 침대요, 카바패드

(주)화동섬유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3동 2293-1
053)627-1244, 657-1244
www.lihis.co.kr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쪼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숯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쪼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쪼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물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쪼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 · 금낭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T,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쪼끼, 바지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장 교직자로 오랜 세월을 보낸 스님은 종단의 승가교육제도개혁과 관련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의외로 스님은 요즘 강원교육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요즘처럼 강원 하기 쉬운 때가 어디 있어? 공부하려는 사람이 없어 허허허, 이전처럼 죽기 살기로 공부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가르치기가 어려운데, 요즘 누가 공부하려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저 허허허 하고 계속 웃는 듯 했지만 이내 날카롭고 뼈있는 말씀을 계속 이어나갔다.

"조계종은 선종이잖아. 불립문자 견성성불인데 뭐 하러 공부해. 경은 배워서 뭐해. 깨달으면 다 해결되는데, 뭐 하러 경을 봐. 이젠 왜 공부 안하느냐고 강사들이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이전에야 강사라고 하면 예우가 대단했지만, 이젠 강사 말을 누가 듣나?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경 안 봐도, 때 되면 다 깨닫는다고 가르친 일부 선대 스님들의 인과응보니 어쩔 수 없지." 스님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흘러가는 윤회를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음을 받아들일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 인과나 윤회로부터 오는 고통을 벗어나는 지혜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되물었다.

"가혹해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처님 법대로야. 내가 원인을 지어 놓은 대로 지금의 내게 고통이 오는 것이니, 전생에 받아야 할 빚을 이생에서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사회적으로 도둑질이나 나쁜짓 하는 사람, 내 주변

단전에서 끌어올린 호흡을 등 뒤로

정수리까지 올렸다 내리기 반복하는

여래선은 망상없이 바로 삼매 들어

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비난만 하지 말고 전생에 내가 지은 악업의 연장이라 생각하면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 않겠어? 거기서 나아가 현생에 스스로 악업을 삼가려는 마음을 가지는 방편이 된다면 더 좋겠지. 좋은 원인은 안 지어 놓고 좋은 결과 받으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 결국 몸과 입과 뜻(身口意)을 바르게 하는 게 최고의 방편이여.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해야 해. 이게 해결되면 삶의 고통도 다 해결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스님은 인도 최초로 통일 왕국을 이룩한 '마우리아(Maurya) 왕'의 전생담을 들려 줬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하러 가시는 길에 소꿉장난을 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부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부처님은 참으로 높고 귀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무엇이든지 공양을 올려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모래로 지은 밥을 엎드려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어. 부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는 빙그레 웃으시며 아난에게 "이 모래를 가지고 가서 내 방의 허물어진 곳에 바르도록 하여라" 하시고 말씀하시길, "아이가 환희심으로 모래를 보시하였으니, 그 공덕으로 다음에는 국왕이 되어 삼보(三寶)를 받들고 여래를 위하여 팔만사천의 보탑(寶塔)을 세울 것이다"라고 수기를 주셨지." 스님은 이렇게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선업 쌓기를 권했다.

스님은 미륵당으로 거처를 옮긴 요즘, 이전보다 더 가행정진중이다. 겉보기에는 특별히 바쁠 것도, 서두를 것도 없는 듯하지만 스님의 하루 일과는 이전 도심생활이나 교직에 있을 때 보다 더 옹골차다.

동내 복판이라 목탁대신 죽비로 매일 새벽 5시 미륵당에서 예불을 올린다. 저녁예불은 6시. 예불을 마치면 '나무미륵보살' 정근을 100번하고 경전을 읽는다. 그리고 틈틈이 참선 삼매에 든다.



흙벽에 매달린 마른 호박과 메주는 지난 가을 스님이 손수 만든 먹거리다. 평생을 후학 지도에 매진한 스님은 매사 말보다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신다.

스님은 드물게 여래선을 닦는다. 간화선 중심의 종단풍토에서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스님은 누구보다 여래선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

"내가 보기엔 최상승선은 여래선이여. 여래선는 호흡으로 법륜을 돌리는 거야. 법륜을 여법하게 돌리면 망상심 없이 그냥 삼매에 들어."

스님은 그 자리에서 가부좌를 틀고 시범을 보였다.

"앉은 자세나 손모양은 일반 참선과 똑같아. 심호흡이 제일 중요해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호흡을 등 뒤로 정수리까지 올렸다가 앞으로 다시 내리는 거야. 여래선에선 화두는 안 해, '이 뭣고'는 망상이여. 선은 생각이 없게 하는 건데,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 그 자체가 망상이지. 대신 호흡하는 그 정신은 계속 따라 다녀야 해.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법륜 돌리듯이 '호퇴강(呼退降 · 6후), 흡상승(吸上昇 · 6후)'을 반복해.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 몸안의 불기운을 내리고, 물기운을 올리는 법륜을 반복해서 돌리면 삼매에 금방 들지."

오래전부터 삼매를 강조해 왔던 스님은 서울 불광동에 '삼매정수선원'을 창건해 재가 불자들의 수행을 지도하기도 했다. "스님들이 법문하기 전에 입정에 들라 하잖아. 이 입정이 삼매여, 삼매에 들어야 법문을 들어도 제대로여. 부처님은 중생들을 제도할 때 이 삼매의 힘으로 제도를 했어. 요즘은 이 삼매의 힘이 없기 때문에 법문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마친 스님은 기자와 함께 미륵당을 참배했다. 부처님 열반 후 5십6억7천만 년 뒤, 말법 세상을 구제하러 온다는 미륵보살은 모든 재물을 끌어와 복을 이룬다는 '권오수인'을 취하고 있다. 얼마나 오랜 세월동안 가난한 백성들이 미륵의 영험을 빌었을까? 불황과 실업으로 침체된 경기 때문인지,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는 요즘이다. 2005년 새해,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미륵당을 나섰다.

글=조용수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30여년 강사 소임…손수 농사짓고 밥하고 빨래하며 공부

의룡스님은 의룡(義龍)스님은 1936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다. 14살이던 50년에 일해 스님에게 비구계를 받았다. 어려서 출가했지만 절집의 생활과 예법, 경전 공부까지 남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익혀 어른 스님의 총애를 받았다. 탄허, 관응 스님에게 교학을 배우고 35세 되던 해에 '한영-명봉 스님'의 강맥을 이어 받았다. 일생을 제방 강원의 강사로 살아온 스님은 2002년 직지사 강주를 끝으로 강단에서 물러났다.

2칸 남짓한 '자심란야'에는 스님이 즐겨보는 경전과 불서들이 사방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스님은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한 것 말고는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토굴생활의 모든 것을 손수 해결했다. 작은 텃밭에 심은 깨는 지난해 소출이 별로였다. 그러나 올해는 더 잘될 것이라고 했다. 흙벽 위로 말린 호박과 손수 만든 메주가 널려있었다.

60년전 처음 출가했을 때나, 지금이나 스님은 여전히 스스로 농사짓고 밥하고 빨래하며 공부한다.

지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자광 스님

자광 스님, 그는 늘 웃고 있었다. 개구쟁이처럼 장난꾸러기처럼 웃는 스님의 모습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그것이 그의 독특한 모습, 아름다운 그만의 진실한 표정이었다.

스님은 항시 일을 했다.

일을 해야만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한다는 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루종일 일을 했다. 가만히 두어도 괜찮을 석축을 허물어 버리고 다시 그 석축을 새로이 쌓아 올리고 쌓아 올리고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사람의 손이 가면 또다시 새로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면서 변모해 가는게 자연의 법칙이 아니든가.

그는 그렇게 이것저것 손댈 곳 안 댈 곳, 건드



그림 · 문병성

리고 건드리면서 도량의 이모저모를 나름대로 꾸미고 꾸미며, 그것으로 나름의 삶을 꾸려왔다.

벌써 한참이나 지난 이야기다. 자광 스님이 여기 청량산 청량사의 위쪽, 외청량 응진전에서 머물 적 이야기이다. 스님은 건강했고 활달했고 아무런 거침도 없었다.

도량 주변 가꾸는 걸 좋아했고, 조그만 야생의 풀 한포기, 거기서 피어나는 봄의 꽃 한 떨기를 소녀처럼 쳐다보며 좋아했다. 그는 언젠가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스님, 제가 적음 스님이 계시는 토굴에 가서 산죽(山竹) 몇 뿌리와 몇 달째 계속 피고 진다는 국화 몇 뿌리를 얻어서 심어 놓았어요. 이것들이 잘 자라 꽃을 피우고 또 산죽이 싹을 틔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님은 내게 이렇게 말하면서 활짝 웃었다. 그, 적음 스님의 토굴에서 가져다, 옮겨다 심은 산죽과, 오래피고 진다던 국화꽃이 지금도 살아서 그의 뜻대로 염원대로 있다고 들었다.

그는 지금 여기 없다. 저 어디 청송 어디쯤의 후미진 한적한 곳에 새로 둥지를 틀고 있다고 들었다. 거기서 대추농사도 하고 고추농사도 하고 그러면서 한가롭게 삶을 꾸려간다고 들었다.

자광 스님, 그의 내력은 조금 특이하다. 그의 내력을 여기서 언급하긴 참으로 저어하지만, 우리 불가에선 귀한 법(法)의 소식이기에 전하려 할 따름이다.

스님의 세 형제는 모두 스님이다. 둘째가 원공 스님이고, 셋째는 일공 스님이다. 원공 스님은 불화(佛畵)를 그리기도 하고 조각을 하기도 하면서 그 자신만의 부처의 세계를 천착한다고 들었다.

막내인 일공 스님은 김천에 있는 직지사포교당 개운사의 주지를 맡아 한참동안 일하다 지금은 원공 스님이 머물고 있는 경주의 유학사(柳鶴寺)에서 함께 지낸다.

속세에선 별스럽게 가까이 지내지 못했는데, 이제 부처님의 법계(法界)로 들어와 다시 그야말로 정다워졌노라고, 자광 스님은 내게 말하며 그 답지 않게 눈시울을 붉혔다.

자광 스님, 그의 어머님은 유학사에서 둘째 원공 스님과 함께 계시다 얼마 전 지병으로 멀리 회향하셨다. 세 자식 모두 부처님 품으로 보냈

일이 수행인듯 늘 부지런 도량 구석구석 예쁘게 가꿔

으니 그냥 그러하지만, 조금은 허무하다고 하시면서 늘 되뇌이시던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자광 스님은 눈시울을 붉혔다.

중도 자식이거늘, 어찌 혼자 계시는 어머님을 모시고자 아니하랴.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는 어느 날 밤,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그는 큰 울음을 울었다고, 짐승처럼 울었다고 했다. 그의 울음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귓전에 메아리처럼 회향하기를 바란다.

불가(佛家)에선 일찍이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뭇 중생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기란 지극히 어렵고,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여도 남자로 태어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에 가깝고, 설사 남자로 태어난다 치더라도 불연(佛緣)을 입어 입산수도하기란 또한 지극히 어렵고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하건대 한 집안에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세 명의 형제가 불연을 입어 입산수도하고 있으니 이 어찌 감탄할 일이 아닌가.

자광 스님의 세 분 형제는 비록 생전의 어머님에겐 크나큰 불효를 저질렀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큰 은덕을 어머님께 베풀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 명도 아닌 세 명의 형제가 불문에 귀의하여 큰 법(法)의 세계에 몸담고 있음은 축복이다. 그렇다. 커다란 축복이다.

■ 봉화 청량사 주지



삼가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 합니다.
포교 일선에서 중생제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스님께 업드려 삼배 올리옵니다.
잉어는 공룡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류중에서 생명력이 아주 강하며, 우리나라의 어느 하천에서도 타 어종과 더불어 살아가는 잉어과의 황금잉어입니다. 또한 황금색은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륜 행실도, 신이담, 등용문, 한국민화 등등 많은 곳에서 잉어가 길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금번 정월방생법회에 황금잉어가 필요하신 대중스님들께서 연락 주시면 전국 어디나 정성을 다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주문방법 ● 크기는 15cm이상 ● 수량 100마리 이상 ● 10일전까지 전화예약 ● 콜벤비용은 별도부담

황금잉어 유통

충남 천안시 원성동 450-8번지

TEL 041-622-4985

H·P 018-690-4985

역학 전문 교육 마스터 과정

수년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역학에 관심이 있는 분을 모시고 주지스님 직접강의.
누가 남의 운명을 함부로 말하는가!
교육과 실습을 겸비한 강의로 수료와 동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

● 교육내용 : 명리학, 성명학, 간지체성론, 직업분류, 택일론, 격국론, 용신정법, 신살론, 암장법, 궁합론, 조후용신, 격국용신, 통관용신, 학과 선택론
● 교육대상 : 스님, 교임, 무속인, 역학인, 일반인
● 교육일정 : 매주 월, 화요일 주2회 1일 4시간 3개월 약 100시간
● 개강일자 : 2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정각
● 교 육 비 : 200만원, 교재 6권 무료제공, 자격증수여 보충 교육비 없음
● 등록방법 : 온라인 아나 직접 방문 하셔서 등록바람 3명이상 단체등록시엔 소정의 할인 혜택드림 교육 준비 관계로 2월 26일 까지 등록 마감함 개인지도 받으실분은 상담요망
● 안내전화 : TEL 054)956-1662 H·P 011-825-1662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387 성불사 (시내버스 608번 다산종점)
사단법인 성불사 부설 역학전문 교육원 원장 주지 혜주 합장

전생! 빙의 전문 치유사 교육 마스터 과정!

스님, 교임, 무속인, 법사님, 이것만 배우면 만사 해결!
상담자 본인이 직접 몸속의 영가와 직접 대화 할 수 있으며 제3자를 통하여 영가를 확인 할 수 도 있다.
언제 죽었으며? 왜 죽었으며? 나이가 몇이냐? 환자와 어떤 관계냐? 어떻게 죽었느냐? 원하는게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물어보고 직접보고 느끼고 확인 할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으며 국제 학술 단체에서 인정하는 정통 학문입니다.

● 교육내용 : 빙의진단, 악령 제압법, 영가 유도법, 영가와의 대화법, 원격 재령법, 연령 퇴행법, 자율 훈련법, 제 접신 방지법, 자기 최면, 타인 최면
● 교육일정 : 7주간 매주1회 1일 4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 교 육 비 : 200만원, 교재 무료제공, 실습 테잎제공, 빙의 전문 치유사 수료증 수여, 보충 교육비 없음
● 교육대상 : 스님, 교임, 무속인, 법사, 기공사, 역학인, 일반인
● 개강일자 : 2월 25일 금요일, 교육 준비 관계로 2월 22일 까지 등록 마감 합니다.
● 등록방법 : 온라인 이나 직접 방문하여 등록
● 온 라 인 : 농협 731052-51-020063 (예금주:성불사)
● 상담전화 : TEL 054)956-1662, H·P 011-825-1662
3명이상 단체 등록할 시엔 소정의 할인 혜택 드림
개인 상담 하실분은 미리 예약 바랍니다.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387 미륵산 성불사
사단법인 성불사 부설 전생, 빙의 교육원장 주지 운상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32)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자유롭게 본다는 것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듣고 독송하는 <반야심경>은 <금강경>과 더불어 불교의 지혜, 그 핵심이자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蜜多時 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초벌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제, 오온(五蘊)이 모두 공(空)함을 통찰하시고, 일체의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벗어나셨다." 너무 익숙한 구절 같겠지만, 이 속에는 수많은 곡절과 최상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지혜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그야말로 일체의 삶의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율했고, 이 말에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를 따라 오신 분들은 이 지혜의 그림자라도 엿보았을 것입니다.

아직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을 위해 무딘 혀를 다시 한번 두드려 볼까 합니다.

공(空)과 아원자 세계는 관련이 없다

세계는 공(空), 즉 '비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오해하시는데, 공(空)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계(法界)가 여여한데, 그게 왜 없다고들 하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空)이란 자기 이해와 관심의 탈각을 뜻합니다.

공(空)은 세계에 개입하는 주관적 태도, 바로 그것을 문제 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공(空)을 이해시키겠다면서 현대물리학의 성과를 끌어들여 아원자 세계의 빈 공간이니 쿼크니 하는 어법을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불교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십만 팔천리도 그런 십만 팔천리가 없습니다. 공(空)은 무아(無我)와 동의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색(色)과 공(空)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방해받지 않으면서 나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공(空)인 색(色)의 세계란 번역하자면, 자아에 의해 오염되거나 굴절되지 않은, 나아가 인류의 집단적 환상과 편견으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세계(法界), 있는 그대로의 세계(眞如)입니다.

그 여여(如如)한 세계는 바로 코앞에 역력히 있기에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계만큼 아득히 먼 것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무시이래의 무명(無明), 즉 자기관심의 색안경을 벗어던지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딜레마가 불교 전체를 수놓고 있는 역설의 진원지입니다. 불도(佛道)는 너무 쉬우면서도, 또 너무나 어렵습니다. 조고각하(照顧脚下), 발뒤꿈치 한번 돌리면 환하게 열리는 소식이지만, 그러나 억겁을 뼈를 깎고 피를 태워도 여전히 아득한 이 소식을 어찌 하오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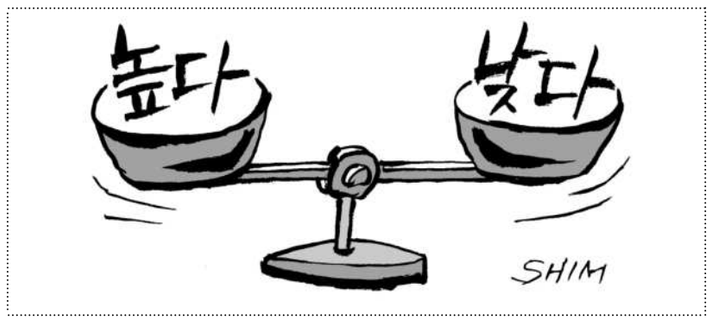
관견(管見), 대롱으로 보는 세상

관자재보살은 바로 그것을 성취한 사람, 즉 '이제는 자유롭게(自在) 사물을 볼(觀) 수 있게 된' 분을 뜻합니다. 자유롭게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유롭게 본다는 것은 전망대 위의 망원경처럼 사방팔방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관견(管見)이란 말이 적실히 말해 주듯,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관심이라는 좁은 대롱을 통해서만 사물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태의 다른 측면은 물론이고, 전체를 보기는 더욱 더욱 아득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통찰력, 즉 일체지(一切智)는 여래와 부처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생들에게 세상은 모두 나(我)의 이미지(相)로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다만 욕망과 관심이라는 색안경을 통해서만 사물을 보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불교는 그 좁은 새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창공을 날고, 거기서 독수리처럼 세상을 조견(照見)하라는 '조감(鳥瞰)의 권고'입니다. 이 조감이 무슨 이득을 주느냐고요. 그 바라봄으로 하여, 오직 그 통찰을 통해서만 인간은 일체의 고통과 번민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아도 안아도 아득한 아내의 허리



우리는 사람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상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가깝다는 가족이나 친구도 까마득히 멀어보기 쉽습니다. 시인 고은은 이렇게 읊은 적이 있습니다.

"안아도 안아도 아득한 아내의 허리…."

우리는 바로 앞에 선 사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자기 욕망의 투영인 '이미지(相)'를 통해 그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며, 나를 찬양했거나 모욕했고, 내가 좋아하는 혹은 싫어하는 스타일에,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인상에, 습관에, 또 내가 존경하는 지식 혹은 내가 경멸하는 지적 수준에, 내가 샘내는 부귀 혹은 내가 천시하는 가난에,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득을 준 사람, 혹은 줄 사람 또는 내게 해를 끼친 사람, 혹은 끼칠 사람….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만 상대와 나는 관계를 맺습니다. 아내, 남편, 아이, 이웃, 나라, 지도자나 정치가들, 대상은 달라도, 흡사 카메라가 서로 다른 피사체를 찍듯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패턴은 가깝거나 멀거나 꼭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날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늘 불행한 이유입니다.

아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으로 눈멀어 있다면, 우리는 황혼의 저녁이나, 뜰에 핀 꽃, 아내의 젖은 손이나 남편의 어깨 위에 앉은 비듬을 볼 수 없습니다.

20세기 현대 철학을 이끈 하이데거는 인간의 근본 조건을 바로 이 염려(Sorge)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무시이래 인류의 마음 밑바닥에 깔린 이 불안의 중심을 통찰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인간적 삶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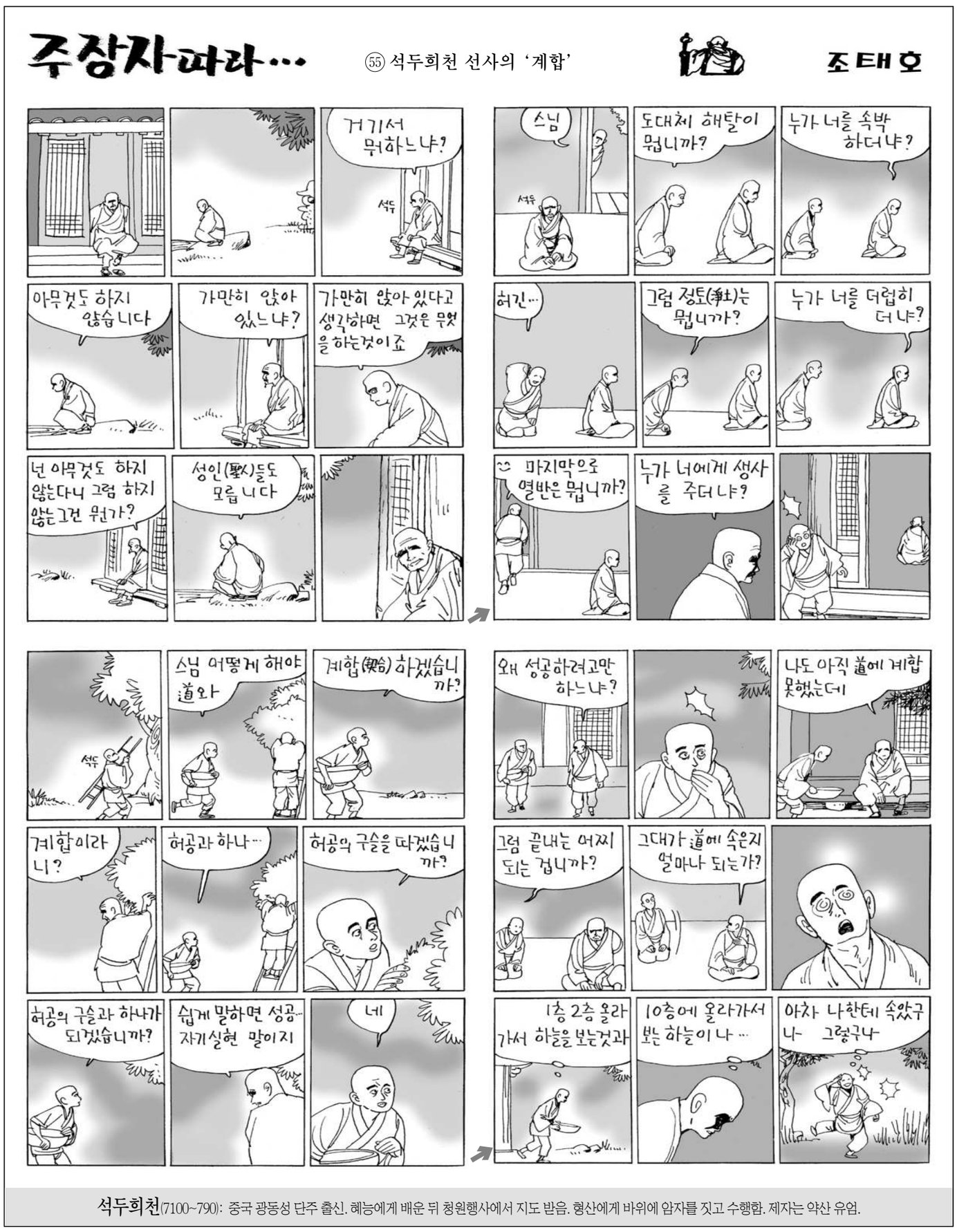
이들 이미지들 때문에 우리는 자연과의 생생한 접촉을 잃고,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놓치고 맙니다. 이 공허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매체로 도피합니다. 술과 도박이며 외도뿐이 아닙니다. 책과 TV, 극장과 공연장, 미술관으로 가는 발걸음 속에도 그 도피가 은밀히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창공을 나는 새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무엇보다 '사람의 얼굴'에서 아름다움을 본다면, 우리는 미술관이나, 애완견에 그토록 몰두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시답잖은 강의를 듣겠다고 귀한 시간을 쪼개 신문이나 붓다뉴스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내 욕망과 기대를 통해 아내와 남편, 가족과 친구들을 평가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미지(相)를 버리고 실제(法)와 만나십시오. 아내의 젖은 손을 잡아주고, 남편의 지친 어깨에 묻은 비듬을 털어주십시오.

"네가 왜 이런 일을 해 주지 않지?"라는 불평과 기대를 접고, "내가 무슨 위로를 주고, 무슨 힘을 보태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까"를 생각하십시오. 생각 하나가 우주의 균형을 바꾸고, 불가사의한 기적을 하루아침에 만들어 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석두희천(7100~790): 중국 광동성 단주 출신. 혜능에게 배운 뒤 청원행사에서 지도 받음. 형산에게 바위에 암자를 짓고 수행함. 제자는 약산 유엄.

네티즌 교리문답

"삼법인의 내용과 순서가 왜 다릅니까?"

문 초기불교에서 삼법인은 분명히 제행무상(諸行無常) 일체개고(一切皆苦) 제법무아(諸法無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법인(法印)이라 결정해 놓은 것을 바꿔 버리고, 일체개고를 열반적정으로 또 순서도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 등 바꿔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whoami555)

답 1 : 삼법인이란 위에 열거한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 혹은 열반적정을 말합니다. 물론 법의 도장이라는 의미는 진리라는 뜻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어째서 일체개고도 되고 열반적정도 되느냐, 무슨 법의 도장이 바뀌느냐가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습니다.

이는 바뀐 것이 아니고 일체개고가 열반적정이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생명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괴롭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 어려움이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것이 남으면 저것이 부족하여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체가 다 괴로움이라고 했는데, 깨닫고 나면 이런 일들이 다 해결되어 괴로움이다 할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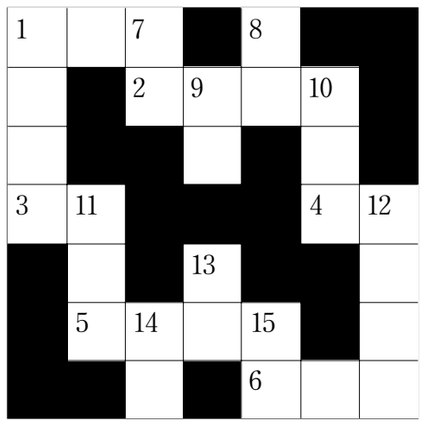
그래서 일체개고는 곧 열반적정인 것입니다. 고뇌의 불길이 꺼진 곳에 열반락만이 존재하는 적정한 상태로 고요하게 된다는 것으로 일체개고와 열반적정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체개고를 벗어나면 열반적정이고 열반적정을 벗어나면 일체개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체개고와 열반적정은 둘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심하게 법인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체개고와 열반적정이 둘이 아닌 것으로 이러나 저러나 삼법인이 맞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습니까. (김치)

답 2 : 만유(萬有)란 항상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변해가는 그것에는 나라고 할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에 집착하면 버려야 할 때 고통이 되고 괴롭습니다. 또 그런 줄 알고 열반의 경지를 득해 평안함을 얻으라는 의미이나 일체가 고통이라고만 하면, 수행자는 한 법도 없다는 공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도로서 행하라는 의미의 열반적정이 포함된 것입니다. 시대와 때에 따라서 쓰임은 다를 수도 있겠으나 근본의 가르침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삼법인이든 사법인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갈대)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19면에

가로 1. 손으로 던지는 근접 전투용의 소형 폭탄 2. 전북 남원에 있는 누각과 정원으로 이몽룡이 성춘향을 처음 본 곳 3. 깊은 밤 4.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곳 5. 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음을 뜻하는 사자성어 6. 강철로 나사처럼 만든 탄력이 강한 물건.

세로 1. 여우가 죽을 때 제 살던 굴 쪽을 향해 죽는다는 고사성어 7. 석탄을 캐내는 광산 8. 돌이나 자기로 만든 문방구로 먹을 가는데 쓰임 9. 대전의 순우리말 10. 광무연대에 생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극장 11. 밤에 벌이는 시장 12. '사마귀가 앞발을 들어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려 한다'는 고사성어로 불가능을 뜻함 13.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는 사람 14. 조선시대에 소과의 종장에 합격한 사람을 일컫는 말 15. 사람이나 물건 등을 쓰거나 부림.

등록문화재 제도 확대 운영

불교계 근대문화유산 관리에 청신호
개정된 보호법 7월 28일 부터 시행

비지정문화재로서 방치되고 있는 근현대 불교문화유산 관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월 27일 개정 · 공포돼 7월 28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건조물이나 시설물에 한정되던 등록문화재 제도를 모든 문화재로 확대키로 한 것. 개정된 법은 또 사업시행자와 결탁해 지표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현행법을 악용하는 지표조사기관 제재, 정부가 담당하던 문화재 관리 업무 일부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공주 한 사찰의 독성도(1933), 습기와 곰팡이로 인한 훼손이 심각하다.

▷등록문화재 제도 확대 운영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항은 지금까지 건조물이나 시설물에 한정돼 운용되던 등록문화재 제도가 모든 문화재로 확대된다(제42조 1)는 점이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제작연대가 얼마 되지 않아 지정 가치는 부족하나 문화재로서 잠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146건이 등록돼 있다. 이중 불교 등록문화재로는 군산 동국사 대웅전(제64호)이 유일하다.

등록문화재 제도가 확대 운영되면 근대에 조성된 많은 불교문화재 관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충과 습기, 촛농과 그을음으로 인한 근현대 비지정문화재들의 피해가 심각(본지 509호 13면 참조)해 보존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소유자에 대해 세금감면 외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등록문화재 제도 확대 운영을 환영하면서도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기준을 연구 ·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표조사 기관 제재근거 마련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는 지표조사 기관의 조사결과 왜곡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사업시행에 불리한 지표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업시행자와 지표조사기관이 결탁, 유물 분포 가능성이 높아도 그런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문화재청장이 '고시'를 통해 문제기관을 제재하는 방식을 취해야 했고,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제74조 2)해 지표조사기관 제재의 법적 근거를 확립했다.

▷발굴조사관련 제도 변경

발굴완료 후 2년 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발굴기관 및 대표자는 일정 기간 동안 발굴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제44조)

발굴 매장문화재 공고 절차도 변경됐다. 매장문화재 발굴시 경찰관서가 행하던 소유자 확인 공고를 문화재청장이 하도록 해, 공고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야기됐던 국가 귀속 처리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했다.(제46조)

▷시 · 도문화재위원회 격상

이번 개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문화재청이 담당하던 업무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됐다는 점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등록사무가 시 · 도로 이양(제18조)됐고, 문화재청에 한정돼오던 국가지정문화재 기록 작성 주체를 시장 · 군수 · 구청장 · 관리단체 장까지 확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 관리 · 변경사항을 모두 기록할 수 있게 했다.(제19조 1)

같은 맥락에서 시 · 도조례에 규정돼 있던 시 · 도문화재위원회 설치 근거를 문화재보호법에 명시, 시 · 도문화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했다. 시 · 도문화재위원회는 시 · 도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제55조 2)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 신라 역사 속 '닭'을 만난다

신라의 역사 · 문화 속의 '닭'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전시 '여명의 동물, 닭'이 국립경주박물관(관장 김성구)에서 시작됐다.

닭의 해(을유년)를 맞아 개최된 이번 전시에는 천마총 출토 '장군과 계란', 전(傳) 민애왕릉에서 발견된 '납석제십이지신상-닭', 경주 하구리 절터에서 발견된 '십이지신상석탑면석-닭' 등이 출품됐다.

전시기간은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전시장소는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로비다. (054)740-7518

■ '전통문화 홍보관' 개관



지하상가에 마련된 전통문화홍보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순직)이 을지로 지하상가에 '대한민국 전통문화홍보관'을 2월 3일 개관했다.

지하철 2호선(을지로입구역~을지로3가역) 연결 지하보도 유휴공간에 문을 연 전통문화홍보관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전통 공예품을 가깝게 감상하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05호 백산 김정옥 씨의 조선백자 및 분청사기, 중요무형문화재 제6호 서암 김진한 씨의 남포벼루, 도천 천한봉 씨의 다완 등을 비롯한 명인들의 옻칠기, 화각장, 화문석, 나전칠기, 한복 등을 만날 수 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측은 이번 전통문화홍보관 개관이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02)774-0061

박익순 기자

박영균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4>

시각의 과학과 '금강경'

겨울에 흰눈이 내리는 것은 축복이다. 우리는 흰눈에서 지고의 순결을 느끼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싸인 눈으로부터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 나뭇가지를 보기도 한다. 마치 시어에 의해서 세상 모습이 다르게 드러나듯이. 눈으로 새로워진 세상은 보는 것의 축복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한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는 것일까. 과학은 보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서양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초록색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태양 빛이 나뭇잎에 비치면 나뭇잎은 스스로 필요로 하는 빛은 흡수하고 나머지는 반사한다. 따라서 초록색은 나뭇잎으로서는 싫어하는 색이라 할 수 있다.

육체적 눈은 생존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시각의 한계 벗어나 참 모습 볼줄 알아야

과학자들은 빛을 파동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 마치 파도가 퍼지듯이, 빛 역시 파도와 같이 태양에서 지구로 전해진다. 파도에는 물이 높고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 사이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한다. 태양의 빛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는 것은 여러 개의 파장을 가진 파동 때문이다. 나무가 광합성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 때 사용하는 빛은 공기 분자에 가장 흡수가 안 되는 긴 파장을 가진 붉은 색이다.

이같이 시각은 작게는 지구, 크게는 우주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 눈으로 들어온 빛이 눈동자에 의해서 망막에 초점을 맺게 되면, 시신경에 의해 전기신호로 바뀌어 뇌로 전달된다. 여러 신경 다발이 다른 색깔을 분리해서 전달하면, 색, 모습, 운동 정보들이 각기 뇌의 다른 부분에서 조합되어 보는 모습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시각을 담당하는 뇌는 머리 뒷부분에 자리하고 있는데, 눈과 시신경 다발, 그리고 시각을 담당하는 뇌 뭉치를 떼어서 보면, 원시 초기 생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임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시각이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에 비해서 우리의 개념 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연애를 할 때, 연인을 보고 싶어서 못 견딘다고 한다. 결코 목소리, 냄새 때문에 못 견디는 경우는 드물다. 오죽했으면, 백문이 불여일견, 'Out of sight, out of mind'라 했겠는가. 큰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눈과 뇌 집합에 의해서 구성되는 시각은 극히 제한된 파장, 제한된 방식으로만 모습을 재구성해낸다. 우리의 눈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생존에 적합하도록 세계의 모습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금강경> 18장, '일체동관분'에서는 보는 것의 단계를 육안(肉眼), 천안(天眼), 혜안(慧眼), 법안(法眼), 불안(佛眼)으로 나누고 있다. 육체적인 시각으로부터 발전해서, 깨달음까지 가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진화의 결과인 육체적인 눈에 의한 모양에만 집착하면 존재의 참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장이다.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눈에 보일 때, 이유 없이 마음에 끌리는 모습이 나타날 때, 시각의 한계성을 되새기도록 하자. 그리고 그 느낌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주시하는 습관을 붙이다 보면, 어느새 <금강경> 가르침에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경주 원원사지 삼층석탑 보물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최근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원원사지 동 · 서 3층석탑(사진)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원원사지 동 · 서 3층석탑은 높이 7m의 2중 기단 3층석탑으로 상 · 하층기단의 면석에는 각각 두개의 탱주와 우주가 모각돼 있고, 상층기단 4면의 각 기둥 사이에는 짐승의 머리에 몸체는 평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한 십이지신상이 조각돼 있다. 이 탑의 1층 탑신 4면에는 사천왕상이 조각돼 있는데,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채 악귀를 밟고 서 있는 형상이다.

문화재청은 "상층 기단면석의 십이지신상이 격조 있게 조각됐고, 1층 탑신의 사천왕상이 매우 사실적으로 조각된 통일신라시대(8세기 중엽)의 우수한 석탑이다"며 "이 사천왕상은 9세기 석탑의 중심을 이루는 장엄의 선례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지정사유를 밝혔다. **박익순 기자**

'대념처경' 통해 초기수행법 집중 토론

제11회 선우논강, 2월 26일 실상사

최근 초기불교의 수행법과 대승불교 수행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상사 선우도량(대표 철오 · 현각)은 초기불교수행의 원형을 명확히 밝히고 부처님의 사상과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수행법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한다.

선우도량은 11번째 주제를 '<대념처경(大念處經)>으로 읽는 초기불교의 수행'으로 정하고 2월 26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공개 논강을 펼친다. 논주인 초기불교연구원 각묵 스님의 3시간의 집중 강의와 종합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선우논강은 몸(身) · 느낌(受) · 마음(心) · 법(法)의 네가지 주제로 초기불교수행법을 집대성한 <대념처경>을 통해 위빠사나라는 이름으로 실천 수행되고 있는 남방상좌부 불교의 수행전통을 집중 조명한다.

논주로 나선 각묵 스님은 "남 · 북방의 수행법이 다른 것은 후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부처님의 수행정신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논강이 "부처님의 근본정신인 8정도 가운데 올바른 수행의 기본 바탕이 되는 '정념(正念)수행'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63)636-3031 **조용수 기자**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엄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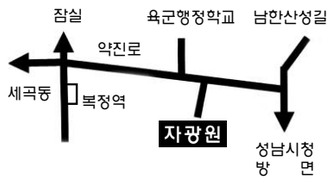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



사막과 같은 인생 지혜롭게 헤쳐가기

사막을 건너는 여섯가지 방법
스티브 도나휴 지음 | 고상숙 옮김
김영사 펴냄 | 9천9백원

인생은 산보다 사막을 더 닮았다.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막막함 때문이다. 산은 정상이라는 목표가 있고, 나무 그늘에서 쉴 수도, 계곡의 물을 마실 수도 있다. 하지만 사막에는 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적 컨설턴트 스티브 도나휴(49)는 수차례에 걸친 전직과 이혼, 자녀양육 등의 인생 역정을 거치며 삶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기존 관념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그의 방황은 목적지에 이르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딘지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20대때 경험했던 사하라 사막 여행을 재해석하며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사막을 건너는 것과 더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사막을 건널 때에는 산을 오를 때와는 다른 계획과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인생이라는 변화무쌍한 사막을 건너는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 왔다. 그것을 한데 묶은 것이 바로 <사막을 건너는 여섯가지 방법>이다.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도 있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며 신기루를 좇기도 한다. 그리고 때론 절망 속을 헤매기도 한다. 마치 사막을 여행할 때처럼 말이다.

지은이는 사막여행 체험과 컨설턴트로서 수많은 상담 및 적용 사례를 종합해 고안한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을 씨실과 날실을 엮듯 절묘하게 결합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사막을 슬기롭게 건널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지은이는 사막에서 보이는 목표물은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양이 변하는 모래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라고 조언한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 수 있다면, 길을 잃었을 때에도 지도가 없는 곳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고자 하는 방향만 올바르다면 목표가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여정 자체에 중점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은이는 1977년 스물을 갓 넘은 나이에 프랑스에서 무작정 '남쪽'을 향해 떠났다. 프랑스 인 친구 두 명과 차를 얻어 타고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40여 일의 고된 여정은 그에게 삶의 진정한 모습과 그것을 감내하는 법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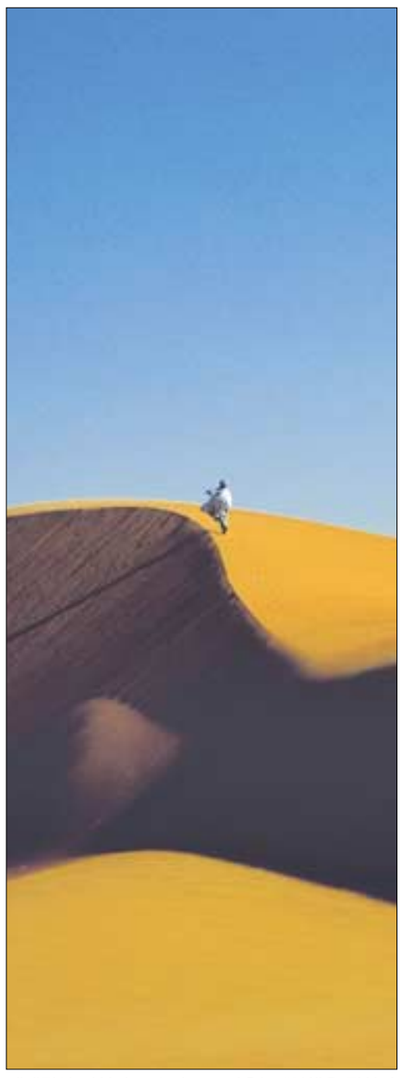
지은이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면, 시간이 날 거라고 생각하며 눈 앞에 다가오는 오아시스를 지나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이 끝난 뒤에도 사막은 한없이 계속된다. 그래서 지은이는 여가 시간과 주말, 사교의 시간을 빼앗는 핸드폰과 이메일로부터 해방되라고 조언한다. 오아시스에서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고, 사막을 건너는 일에만 몰입하느라 소홀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막에서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는 것도 지은이가 제시하는 여섯 가지 방법중의 하나다. 우리는 흔히 자동차 바퀴가 모래에 빠지면 악셀레더를 더 밟아 빠져 나오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럴수록 바퀴는 헛돌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만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막 한가운데서 차를 들어 올릴 수도 없다. 이럴때 바퀴의 바람을 빼면 의외로 쉽게 모래밭을 빠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벽에 부딪히면 팽팽한 바퀴에서 바람을 빼야 한다. 자존심을 버린 채 사과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머리를 숙이고 아쉬운 부탁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자기 주장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민망하게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야 할 때도 있다. 지은이는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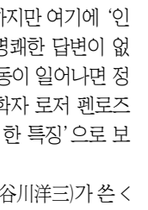
이외에도 지은이는 "인생의 사막에서는 때때로 다른 차에 깃발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모든 일을 혼자 하려다 결국 구조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기 전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한다. 또 "안전하고 따뜻한 캠프에서 나와 사막의 깜깜한 어둠 속으로 나아가라 .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 1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을 때, 새 직업에 적응하고 비로소 휴가를 가게 되었을 때 등 경계선을 넘어서면 다시 즐겁고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다."고 조언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세계적인 컨설턴트 스티브 도나휴는 "인생은 정상이나 목표물이 없는 사막을 닮았다"고 말한다.

전문가 서평



기독교와 불교의 동질성
하세가와 요조 지음 | 이동형 옮김 | 붓다의 마을 펴냄 | 1만3천원

서울 혜화동 로타리 위편 어느 큰 교회 벽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라…'는 구절이 새겨져 있다. 이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이야기로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앞 구절이다.

나는 기독교의 '영생'이 불교의 '니르바나'와 동의어인지는 확실히 모른다. 다만 이 구절에 나오는 '나'를 바로 우리 자신, 즉 '나 자신'을 가리킨 것이라고 보았을 때 해석은 사뭇 달라질 수 있다. 왜냐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깨달음의 인자(因子)를 가지고 있다(一切衆生 皆有佛性)'는 불교의 중심사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날 과학계는 '빅뱅(big bang)' 이론과 '진화론'을 일반적인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서양 학문에서는 인식의 주체로서의 생명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것 같다. 생명은 빅뱅 이후 지구가 생겨나 '원시 바다의 생명 재료 물질에서 단백질과 핵산이 만들어지고 단백질과 핵산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

불교와 기독교 뭐가 닮았나

는 대사 기능이나 자손을 남기는 자기복제의 기능을 가지도록 독자적으로 진화해 왔던 것'으로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인식기능'이 어떻게 개입하게 되었는지는 아직 명쾌한 답변이 없다. 단지 중국 역학에서는 '음양이 합실하여 운동이 일어나면 정신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이고,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Roger Penrose)는 '정신을 어떤 물리적 구조의 한 특징'으로 보려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차에 최근 번역된 일본 하세가와 요조(長谷川洋三)가 쓴 <기독교와 불교의 동질성>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새롭게 생각하게 해준다. 그는 기원전 아쇼카(Asoka)왕이 중동아시아에 불교의 전법사를 파견해 불교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쿰란(Qumran)의 공동체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부터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불교의 삼신(三神)'과의 유사성을 조목조목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 그는 요한복음 12장 44~46절, 49절 등을 내세워 예수가 불교적 무(無)를 실천했던 인상을 심어주면서 <복음서>와 <법화경>을 논리적으로 비교하여 하느님을 '우주생명의 근본적 작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바로 우리 자신이 우주의 본질로서 그 본질 작용의 주체로 제자리를 찾자는 것일 터이다.

여기에 물리학적 설명을 가미하면, 우주의 거시세계로부터 양자역학적 미시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본질은 실체가 없는 그것이지만, 그 실체 없는 작용이 우리들 자신이기도 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구절의 '나'라는 1인칭대명사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래야만 기독교와 불교의 동질성에 부합될 뿐 아니라 하느님이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 아닌 '우주생명의 근본 작용'으로서 산 사람들의 하느님이 될 때, 기독교와 불교의 동질성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지견 (작가)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청운 스님 약력
대한천문풍수명리성명협회 대구지부장
평화불교대학 중앙이사
대한불교 법사단 자비 봉사회 사무총장
티베트 승황으로 불교대상수료
대한불교조계종 광혜정사 주지
한국불교태고종 보경사 주지
장애인 재활 모임체 초심의 집 복지원장
現 대한불교曹溪조계종 만복사 주지

진품액자 + 열쇠고리 + 휴대폰줄 + 달마카드 + 탁상액자
9개(1세트) 가격 98,000원 ※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적극 권해드리고 싶으신 분..
• 삼재가 드신 분 • 건강이 나쁘신 분
• 사업 하시는 분 • 이사 가시는 분
• 각종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 집안의 만사형통을 기원하시는분



▮복돼지액자 ▮달마도액자
▮소재 : 아크릴액자+pp금장



▮앞면 : 달마도 ▮뒷면 : 만사형통부 건강부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75mm × 50mm
※ 사찰이름 새겨드립니다



▮소원성취 ▮재수대길
▮켓츠아이 핸드폰고리
▮소재 : 켓츠아이+순금도금

▮재수대길 ▮소원성취
▮Fe니켈도금+순금도금



▮진품달마도 액자 규격 : 44cm × 5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06-5587
•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참옻의 신묘한 약성을 조청으로 먹는다!

山寺 참옻조청 • 약도라지조청

어혈, 노폐물, 피로독소, 적체의 해소 / 손발저림, 몸의 냉증, 다이어트 / 위장, 심장, 신장등 / 오장육부기능 정상화 / 신경조율, 관절염, 항암, 원기회복에 기여

기관지, 천식, 기침의 완화 / 호흡기 질환개선 / 폐기능 강화, 피로회복 / 거담, 배농 작용에 기여

속이 편안하면 오래살고
몸이 따뜻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

● 山寺 참옻조청 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 연구가 김지문거사님의 비법으로 참옻 나무의 유독성은 제거하고 좋은 약성만 추출, 농축하였으므로 누가 먹어도 옻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山寺 참옻조청 은 국내산 좋은 원료만을 사용하여 사찰에서 7일동안의 정성으로 겨우 한 솥 고아지는 극소량의 명품조청입니다.

● 山寺 약도라지조청 은 천연 야생 약도라지에 야생약초를 가미하여 약도라지의 약성을 배가시켜 고농축 시킨 고품격 조청입니다.

문의 및 주문처 : 054-372-3166 금용사
054-372-5721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 현순희
(산사 참옻조청과 약도라지 조청은 주문에 의해서만 만듭니다)

생활상담, 최면-전생상담, 빙의치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심리상담전문가이지 최면-전생치료전문가가 직접 상담과 교육을 해드립니다.

- 불안증
- 우울증
-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 각종 알레르기 문제
- 비만문제
- 홧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 빙의 문제

• 상담지도전문가 –



설기문 박사 : 교육학박사, 상담심리 전문가, 최면 및 전생치료전문가, NLP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치료"과 같은 다수의 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마인드피트니스 코리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 1062-2번지
031-442-5598, 011-1762-4598
www.mindcoach.co.kr mindcoach@naver.com

석불 보면 푸근해집니다

석불사진 550여장 책으로 엮은 이호섭 박사



주말마다 전국 누비며 20여년간 석불 답사

"그저 석불이 좋아서 쫓아다닌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나 석불을 보고 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고요해짐을 느낍니다."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호섭 박사(73, 이호섭이비인후과의원 · 사진)가 지난 20여 년간 전국 550여 곳의 석불을 답사하며 찍은 사진을 담은 <천년의 미소-한국의 석불을 찾아서>를 펴냈다. 직접 찍은 수천여 장의 석불 사진 중 550여 장을 고르고 석불 답사를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 약도와 석불의 조성연대, 특징 등을 간단히 정리해 덧붙였다.

불자는 아니지만 처음 석불을 보게 됐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이 박사는 이후 주중에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주말이면 전국을 누비며 '천년의 미소'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석불을 찾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당시만 해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표지판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동네 주민들조차 석불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점심도 빵으로 대신하며 4~5시간씩 산 속을 헤매다 겨우 석불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의 말대로 석불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끈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인도나 중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석불은 한국인의 자비와 정감을 담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얼굴과 수인(手印)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석불들에서는 은은하고 고요한 미소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날 석불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보호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불상이나 문화재와 달리 야외에 모셔진 석불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도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답사를 다니며 불상을 받치는 대좌를 건물 축대로 사용하는 경우나 타종교인들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도 목격했다고 한다. "석불이 불교미술이라고 해서 불자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시간과 건강이 허락되는 한 더 많은 석불을 친견하고 싶다는 이 박사는 "이 책이 석불을 찾아나서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나침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천년의 미소-한국의 석불을 찾아서
이호섭 글/사진
문창출판사 | 9만5천원

조각으로 읽는 중국불교



중국 조각사
랑티앤용 · 리쩡 지음
전창범 옮김 | 2만5천원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드는 '조각(彫刻)'의 역사는 깊고도 유구하다. 신석기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한 손에 쥘 수 있는 토우(土偶)부터 수십 미터에 이르는 불상까지, 인류는 수많은 재료를 이용해 상징물을 만들어왔다. 그 시대 사람들의 애환과 염원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조각사는 그 나라 역사와 다름이 아니다.

<중국 조각사>는 조각상을 통해 중국 역사의 흐름을 짚어보는 책이다. 중국 닝샤(寧夏)인민출판사가 2000년 11월에 발간한 <전채중국조소예술사>를 전창범씨(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강사)가 우리말로 옮겼다.

많은 미술사 개설서들이 학술적인 설명에 치중한 것과 달리 이 책은 500여 장에 달하는 사진을 통해 조각사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각 시대별 조각사의 특징과 주요 미술용어풀이 등을 간략히 실었고 '조각상을 통해 본 말 품종의 변천' '후어취삥 무덤석각의 배치는 어떤 의의가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특히 책의 많은 지면을 할애해 설명하고 있는 불교조소는 중국 고대조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가 오랜 역사를 거치며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형상화됐고 이는 중국만의 예술적 특징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불교가 인도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전파되는 경로를 따라 건립된 돈황, 운강 등의 석굴사원들과 위진남북조시대의 단독불교조소, 불교미술의 전성기를 이룬 수당시대의 불상 등이 소개된다. 또한 당 말기 이후부터 오대 및 원 · 명 · 청나라를 거치며 불교예술이 쇠퇴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불교의 중국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을 무렵 조성된 북량 금탑사의 미륵불상과 운강석굴의 좌불, 뉴욕시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북위시대의 금동석가입상 등 다양한 불교 조각상의 모습을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다.

지은이들은 중국소조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꼽는다. 첫째는 사물의 형식보다 그 내용와 정신에 치중해 표현하는 사의성(寫意性)과 비사실성이다. 이는 자연과학식의 정확함과 사실성 대신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은이들은 설명한다. 둘째는 조소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눈이나 몸의 장식, 의복의 무늬 등을 붓을 사용해 그린 회화성(繪畵性)이다. 셋째는 장식성이다. 조소는 그 자체가 장식품의 용도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종교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불교조소는 일정한 장식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중국 운강석굴의 좌불과 입불. 북위시대(460~465)에 조성된 이 불상은 웅장하면서도 정교한 조각수법을 보여준다.

책을 옮긴 전창범씨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조소예술사에 대한 중국학계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행복은 바로 여기에

<깨어 있는 삶으로의 여행>은 위빠사나의 세계적 권위자인 조지프 골드스타인이 그동안 저술한 그의 책에서 고갱이들만을 추려 정리한 '명상수행 지침서'다.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값비싼 명산센터에서 하는 여가생활쯤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지은이는 일상에서의 호흡의 움직임, 몸동작, 의식, 감각의 연쇄 작용 등을 관(觀)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의 특징은 알기 쉬운 어휘로 명상법을 소개한다는 것. 때문에 독자는 마치 지은이와 직접 대화하는 듯한 느낌으로 책을 읽어갈 수 있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처음 위빠사나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으로 시작해 쉽고 재미있게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의 명상 방법을 선사하고 있다.

1~3장이 초보자에게 나타나는 수련 중 장애 극복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면 제4장 '명상을 위한 시간', 제5장 '마음의 탐구'는 깨달음에 다다를 무렵의 자만심과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을 깊이 느끼고 음미함으로써 전체적인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방법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처음부터 의식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책을 지은 조지프 골드스타인은 1974년부터 통찰력 명상을 전수하고 있으며 1989년 동료 및 제자들과 불교연구를 위한 '바레 센터'를 설립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깨어있는 삶으로의 여행
조지프 골드스타인 지음
김은주 옮김
문화사랑 | 8천5백원



고려불교 몰락엔 간화선이 있었다?



고려후기 간화선 연구
조명제 지음 | 혜안 | 1만8천원

'고려불교는 왜 몰락했을까?'

<고려후기 간화선 연구>는 이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 보는 책이다. 또 중국 원의 간섭기를 거쳐 권문세족과 결탁한 불교계의 부패와 타락, 주자학을 수용한 신흥사대부가 역성혁명을 통해 사회적 모순을 개혁했다는 기존 연구시각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때문에 책은 고려불교의 몰락 이유와 배경을 '복선적'으로 이해할 것을 주문한다. 고려불교가 불교사 흐름 속에서 갖는 한계는 무엇인지, 주자학 수용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함께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일본 교토대에서 유학 중인 지은이 조명제씨는 이런 연관성을 고려후기 선불교의 흐름을 주도한 간화선에서 찾고 있다. 고려중기, 원 간섭기, 고려말 등으로 나눠 각 단계별 간화선의 사상적인 전개과정을 짚어보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특히 조씨는 간화선의 수용, 주자학과의 관계를 탄탄한 사료분석으로 추적한다. 먼저 13세기 지눌과 혜심 선사가 전개한 수선사(修禪社) 결사운동을 간화선 형성시기인 중국 송대와 연결해 접근한다. 간화선 수행체계를 확립한 대혜종고 선사가 당시 금나라와 맞선 남송 사대부들과 사상적 접점을 찾았던 것처럼, 지눌 선사의 수선사 결사운동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 조씨는 간화선 일변도 경향을 고착화한 <몽산법어(蒙山法語)>와 <선요(禪要)>의 수용과정을 설명하면서, 불교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한계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조씨는 이와 함께 당시 불교계와 사대부간의 관계가 절대적인 대립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선종의 절대화 경향이 대두되기는 했지만, 선승과 사대부들은 활발한 교유와 간화선을 비롯한 선사상에 대한 상호소통을 이어왔다고 설명한다. 김철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2	입보리행론	샨티데마	하연연꽃
3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서광 스님	불 과
4	오체투지	한경혜	반디미디어
5	불자의 가족사랑과 기도법	우룡 스님	효 림
6	보살예수	길희성	현암사
7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8	도심속의 도인 석주 큰스님	김현준	효 림
9	말씀 부처가 보이신 길	청화 스님	이른아침
10	물 속을 걸어가는 달	김진태	학고재

도서 안내 : (02)737-0695

선수행 문답집,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억겁 무명의 체증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어줄 선수행에 대한 문답집!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안목으로 통쾌하게 답하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른불교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기적의 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 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찬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공주대학교 석불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2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현풍F&B HYUN PUNG F&B CO., LTD.

불자생활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서울 : 1억5천, 2억5천(300평) 4억(600평山中)4억3천(400평) 7억(800평절경)7억(280평)
- 사찰납골당 ① 7억5천(대:2200평, 건250평) ② 8억(대:3000평,건100평)

※ 사찰, 사찰터 多, 공양주 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갈현동 구산역 부근
- 평수 : 150평
- 가액 : 답사 후 결정

행 자 모 집
011-9150-9190

사찰(터)안내
- 산세수려한곳 사찰터 최적지
- 대지 2천평 (총 6천평)

055)794-5252

포교원안내
- 위치: 수원시 장안구
- 3층건물 중 3층. 70평
- 내부시설 A급
- 가액: 1천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6304-0036

사 찰 안 내
- 경북 시내 한눈에 보임
- 땅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 18평 외 미륵불
- 요사 : 23평, 산신각
- 급매 : 1억4천만원,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천평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강남구
- 부지 : 11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6억
- 산속에 있으며 교통요지임
- 위치 : 구리시 근교
- 부지 : 7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100평
- 가액 : 10억
- 산세좋으며 유서깊은 사찰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충남(온양에서 20분거리)
- 평수 : 사용평수 200평(대지48평)
- 건물 : 법당1동, 산신각1동 요사채1동, 방3개, 주방, 방1개
- 가액 : 4천만원

※ 스님이 사정상 급히 지방으로 이주하는 관계로 저렴하게 인연이 되실분 찾습니다
041-841-3090
017-337-4168

사찰 안내
- 위치: 밀양시 얼음골
- 총평수 : 전답 임 포함 약 3천7백평
- 가액 : 15억. 현주위시세 평당 30만원

※ 명산,계곡절경,등산객 피서객 항상 많음
010-4876-5535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엄광리 엄광사
- 법당에 부처님 10분, 후불탱화, 산신탱화, 용궁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지장탱화
- 가액 : 1억3천만원

011-824-5939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청 옆
- 대지 : 310평
- 건물 : 3층건물 1동 100평, 슬라브 기와 1동 45평, 부속 건물 1동 10평 (소나무 조경 및 그림같은 포교당)
- 가액 : 8억 5천만원

010-4876-5535
011-584-4418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 2층건물 2층 총 60평에 법당 30평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불 지장탱화 영가단 앰프시설 범종 에어컨 옥탑에 삼성각 요사채 30평 방 4칸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에어컨시설(즉시법회가능)
- 가액 : 2000만원 월 60만원 모든집기와 시설비는 답사 후 절충

010-6319-6885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보리암
- 법당,주방,방2개,실내화장실 총 40평 에어컨, 집기일체 완비
- 가액 : 총 2천만원 월 23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십시오
011-9850-2946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룡동
- 대지 : 약 5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54)334-4231

사찰안내
- 위치 : 상도동 장승백이
- 대지 : 66평, 건평 56평 1층– 요사채 2층 – 법당
- 가액 : 4억 8500만원

02)815-0302

사찰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갓바위 옆(도로 2분거리)
- 면적 : 950평 중 허가 대지 150평
- 건물 : 양옥 20평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전망이 매우 좋음
- 가액 : 평당 30만원 답사 후 가액절충 可

011-804-1748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석보면
- 요사채 2동, 부엌2, 방4개, 임법당1채, 황토흙집1채,
- 석조약사여래, 좌불 조성
- 대지 : 1200평 중 747평. 건물 등기 가능
- 특징 : 산세수려, 넓은계곡,병풍바위 있음. 주변에 유실수, 약초재배가능
- 2차선포장 도로 ● 가액 : 2천만원

010-3130-096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 법당 : 40평
- 특징 : 옥상시설 사용 13평, 판넬
- 보증금 : 1천만원,월 40만원 시설비 : (삼존불)2천5백만원

053)957-9551
011-398-9807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시내 대로변
- 건물 : 2층 건물 중 2층, 법당, 주방, 화장실 22평, 옥상에 방 2개 (요사채)있음, 8평
- 가액 : 시설비 1200만원 (에어컨 집기류 일체 포함) 전세 500만원, 월세 30만원

052)292-3131/017-841-4869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 600평 (대지 402평) 대웅전 33평(3존불) 삼성각 10평, 칠층석탑, 요사 66평
- 경치 전망 좋고, 산세 수려함.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가액 : 7억

011-9411-5302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평수 : 100여평
- 시설 : 오존불, 108부처, 방4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8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0-2330-7784

포교원/사찰 최적지
- 위치 : 서울 동작구 흑석동(중앙대 근처) 지하철 9호선 5분거리(개통 예정)
- 구조 : 단층 단독주택
- 대지 45평, 건물 26평, 방3개, 거실1, 화장실1, 올수리
- 산밑이라 공기좋고, 조용함, 한강조망 특A
- 가액 : 4억2천만원(절충가능)

016-9797-5335
(주인직접)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중구 면목 3동
- 평수 : 15-20평
- 법당1, 방2개, 화장실, 주방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합해서 1천3백만원에 월60만원

016-9511-0840

토굴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불광전철역에서 10분거리
- 평수 : 단독 30평
- 가액 : 5천만원 (시설비포함)
- 꼭 인연되실 분만 전화주세요

02)352-981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내 15년된 사찰
- 전세없음, 월세 2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주차장 넓고, 지하수, 교통편리, 숲속 위치 경관 좋음

010-6355-639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대동면
- 대지 : 170평, 건물 40평 (대웅전, 요사채, 행랑)
- 가액 : 3억 5천만원

절터안내
- 경남 양산시 어곡동
- 임야 3천평, 전 500평 ● 가액 : 3억

011-864-7332

영남범음범패
천도재, 49재, 수륙재 바라 · 나비무, 회심곡, 호적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학인스님 모집. 부산범음범패연수원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공양주보살님모심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교의식	천도재 49재	정	안	식	재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	가	영	불	천도시식전문	명	리	주	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역학으로 영가 보는법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천일지장기도 하실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
011-483-5639

육임역학 비법 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1)245-8575
053)551-1356(011-1763-3567)

천일기도 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44세 비구)
017-515-7527

봉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인연 찾습니다
(55세 이상 男 처사님, 차량소지자, 영남지방 거주자 요망)
011-831-6434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립니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3월 22일(화), 24일(목) 개강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 체계적인 교육
▶주 · 야간반 선착순
- 3월 22일(화)-주간반, 24일(목)
- 주 · 야간반 각 요일 선택, 주 1회
- 불교 TV 금강경강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큰스님들의 특별 법문
- 인터넷방송국,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출가 학교 및 행자 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문의-대구큰절: (053)474-8228, 경산도량: 811-0337, 칠곡도량: 312-8221
인터넷 홈페이지 : www.TVbuddha.co.kr

(주)야단법석과 함께 할.... 모집합니다

· 수익사업을 생각하는 사찰
· 기금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신도회 불교단체
· 신행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갖고자 하는 불자

야단법석은...

- 문수사업부 -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봉축행사, 산사음악회 기획 연출

- 보현사업부 - 다음 생을 위한 법회, 사십구재보험

스님은 다비와 사십구재, 신도는 시다림과 사십구재

- 관음사업부 - 법회때마다 음향때문에 고생하셨다면……

2005년 음향 임대 사업 시행

- 지장사업부 - 다비는 스님의 마지막 法門입니다.

충남 금산 서대산 일불사, 전북 정읍 용천사 지정 다비장 운영

문의 : 050-5244-0108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기존의 음향 시스템에서 스피커선 하나만 교체 하여도 음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 야단법석은 불기 2549(2005)년부터 음향시스템 임대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예산 때문에 제대로 된 음향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면 ㈜ 야단법석의 음향시스템을 임대하여 사용하십시오.

▌좋은 제품으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면 제품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목돈보다는 월 임대료로…
불사를 하다 보면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음향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여 법당장엄은 잘하고도 싼 음향 시스템을 설치하여 법회 때마다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관리를 해드립니다.
설치하고 몇 년 지나면 부품이 없어서 A/S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단법석은 책임지고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법화 정법회.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찰나찰나 놓고 하루살이로 살아야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한자리를 해 주신 여러분을 볼 때에 정말 100% 벗어나서 세세생생 삶의 보람을 느끼며 자유인으로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우나 더우나를 떠나 테두리 안의 물주머니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얼마나 갸륵한 일입니까. 내가 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여튼 어항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이 공부를, 공부라기보다도 생활 속에서 함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묘법의 도리를 여러분께서 잘 알아서 행하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무리 부처가 된다, 벗어난다, 안다 할지라도 놓아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가고 아는 것도 물어가면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으니 나중에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알아도 질문이고 몰라도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같이 공부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서만이 아니라 알아도 해야 합니다.

단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통 불상을 만 불을 모셔놔도 하나가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가 빠지는지, 또 원효 대사가 설총에게 쓰레질을 하라고 그랬을 때에 깨끗하게 쓰레질을 해 놓으니까 한 무더기 집어서 홀홀 끼얹어 놓는 그 까닭은 무엇인가? 운주사에 천 탑과 천 불이 모셔 있었다고 그러는데 공부한 사람들의 의견은 일 불이 있어도 천 불이며 만 불이고 삼 불이 있어도 삼천 불이 될 수 있고 삼만 불이 될 수 있고 삼십만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불, 앉아 계신 불상, 서서 계신 불상, 목이 잘린 불상, 다리가 잘린 불상, 코가 떨어진 불상 등 이렇게 모두 다양하게 계신 원인이, 산중에도 보면 병들은 나무, 죽은 나무, 삐뚤어진 나무, 똑바로 서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네들의 살림살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가 한 움큼 집어다가 끼얹었다고 하지 않습디까?

완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흐르면 또 들어오고 흐르면 또 들어오고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것이 진리지 완성해 놨다고 끝이다 한다면 끝이 아닌 것이죠. 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도 모자람이 아니고 잘해도 잘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느 모퉁이를 돌아가다가 지쳐서 거기 놓아야 합니다. 구정물이 나오게 입력이 돼 있다면 구정물만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라면 구정물도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새 물을 나오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대치를 해서 거기다 다시 놓는 겁니다. 이것이 글려 놓는 것입니다.

주인공을 믿기는 믿되 글려 놓지 못한다면 생활에 장애가 있어도 타파를 못합니다.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대로 어찌 다 타파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마음으로 하는 작업은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물리가 터져야 되고 지혜가 생겨야 되니까 항상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아서 뚫고 들어가 앉듯 쪼아야 하는 것이죠. 바깥으로 믿고 이름을 찾는 게 아니고 안으로만 믿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너만이 낫게 할 수 있고 너만이 이끌어갈 수 있고 너만이 깨우치게 할 수 있고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일거일동 자기가 움직이고 걸음 떼어 놓는 것까지 오로지 주인공 뿌리에서 나오는 것임을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도리를 배우고 체험하면서 자꾸자꾸 발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의 발전이 돼야 지혜도 생기고 마음의 발전이 돼야 쓰러져서 엉금엉금 기어가 조금씩 흐르는 물을 마시는데 한 모금 마시니까 삼천 모금을 마셨다고 하고 또 한 모금을 마시니까 삼천 모금을 마셨다고 하고, 또 한 모금을 먹으니까 두 모금을 마셨다고 하고, 또 한 모금을 먹으니까 세 모금이 아니라 삼세의 모든 물을 다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가도 없는 것이고 와도 없는 것이고 마셔도 없는 것이고 마시지 않아도 없는 것이구나. 이 없는 것 가운데에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구나. 그 모두가 같이 돌아가지만 모습이 다 달라서 천차만별로 각계각층으로 차원이 되고 그렇게 모두 다 다르구나. 다르면서도 그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법이 되어서 바깥 현상으로 나오게 되고 현상으로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모두가 이러하니 완성을 생각하여 끌을 내려 하지 마시고, 꼭 이것을 알아야겠다 하는 마음도 한 찰나에 놓고 하루살이로 한 찰나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루하지 않고 항상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단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단식이라는 게 밥을 굶고 먹을 것을 안 먹는 것이 단식이 아닙니다. 근본 단식은 먹어도 먹는 사이 없이 먹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단식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기 때문이지 만약 걸음을 걷는 대로 움켜잡고 왔다면 그건 단식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항상 이걸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고 먹습니까? 그냥 먹게 되면 먹는 거지요. 똥을 누는데도 눠야 될까 안 눠야 될까 하고 똥을 눕니까? 일상생활이 그대로 단식이고 그대로 활공법이며 여러분이 그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서도 마음에 관습 집착 욕심이 끼어 밝게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발을 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겁니다. 그대로 묘법이고 그대로 활공법임을 제대로만 안다면 그대로 넉넉할 겁니다. 그래서 단식이란 닥치는 대로 먹되 먹은 사이가 없이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단식이란 말을 안 할 뿐 단식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몸속의 많은 자생중생들이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혼자 먹는 게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혼자 먹는 게 없고 혼자 보는 것도 없고 혼자 듣는 것도 없고 혼자 가고 혼자 오는 것도 없고 혼자 사는 것도 없고 혼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혼자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여여하게 걸림 없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본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수화풍이 본래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인해서 광력 자력 통신력 전력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못났든 잘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본래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안 되는 것은 '구정물이 새물로 나오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바꿔 시야를 넓힐 수 있고 넓게 들을 수 있기에 한 걸음 떼어 놓을 수 있고 한 걸음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듭 반복되는 시점을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자유스럽게 삶을 살 수 있어야겠죠. 그 때문에 부처님께서 49년 설해 주신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세상을 보면, 상대를 믿고 상대에게 기도를 하고 상대에게 원을 세우고 상대를 스승으로 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 됩니다. 석존이 여기 계시다 할지라도 석존의 육신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세워야 석존의 마음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됐다 석존이 됐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꽃이 내가 되고 내가 꽃이 되고 석존이 내가 되고 내가 석존이 되고, 또는 몸 안의 수많은 중생들이 내가 됐다가 맘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생각 하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사람이 와서 묻기를 "스님,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묻기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겁니다." 하니까 "올해는 잘 보는 사람이 그러는데 물에 빠져 죽을 운수라고 하면서 물가에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없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물귀신이라면 물귀신한테 말려서 죽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물귀신하고는 멀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물귀신이니 물귀신한테 말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니깐 고개를 갸우뚱하고 가더니,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 후 몇 달 후에 다시 와서 하는 말이, 물가엔 안 나가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손님이 오신다고 깨끗이 물청소 해 놓은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만 물에 미끄러져 곤두박질을 치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 몇 달을 못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봉변을 당했는데도 물귀신이 없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아,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당신이 물귀신한테 말린 거지 다른 게 물귀신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이 물귀신이기 때문에 물귀신이라는 마음에 몸이 말린 겁니다." 그래도 알아들으셨는지 못 알아들으셨는지 그러냐고 그러고는 가십디다. 그리고 여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쭙잖은 말 같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사실 한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업이 망해서 홀떡 넘어가게 생겼는데 한생각을 몰아서 그냥 꽉 하니까 활기를 띄고 다시 일어났답니다. 한생각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은 한생각을 우습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생각이라는 것은 공덕을 말합니다. 한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의 의식들이 한데 합쳐 주고 일체제불의 마음이 한데 합쳐 주는 한 생각입니다.

개별적으로 혼자 하고 혼자 살고 혼자 했고 혼자 벌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원리의 물리가 터져야 우리가 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공해서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발을 떼어 놓고 움죽거리고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듣고 살아도 혼자 듣고 보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혼자 봤다 들었다 산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이 속에서 '어허! 너 아직도 꾀가 많구나. 내가 이렇게 작용을 해 줘서 네가 다니는 줄 모르고 나를 무시했어? 너 그러면 좀 망해 봐라!' 이럴지도 모르지요.

▲질문자1: 스님, 한마음 도리를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음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안다는 것과 마음을 본다는 차이점에 대해서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안다는 것도 아니고 봤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평상시 똥 눌 때 똥을 눠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눕니까? 또 먹어야 하나 안 먹어야 하나 하고 먹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대로 스스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보고 듣고 그냥 하고 있지 않아요? 말과 행과 뜻 모두가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니깐 한마음을 봐라, 참 마음을 찾아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있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지요. 자기 참마음과 몸이 둘 아니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질문자1: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참마음은 성품의 작용에 의해서만 볼 수 있습니까?

▲스님: 실체가 없이는 참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참마음이라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참마음과 실체가 둘이 아닌 까닭에 그대로 동시에 움죽거리는 그 자체가 그대로 실체이며 참마음에서 나오는 움죽거림이지요.

▲질문자1: 상대성원리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스님께서 마음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째 내가 죽어야 하고, 두 번째는 너와 나와 더불어 죽어야 하고, 세 번째는 더불어 나툴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과, 유가 유를 죽이면 무가 되고 유 · 무를 동시에 죽이면 중도이자 공이 되며 유가 무를 살리고 무가 유를 살리면 그 활공법이 전자의 말씀과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스님: 유무를 같이 동시에 놔서 함이 없이 한다면 그것이 활공법이죠. 그런데 그것도 이름해서 활공법이지요. 아까 나툴 죽여야 나툴 본다 그랬지요? 내가 죽어 모든 것을 놓아 나툴 발견하고 내가 탄생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갓난 어린애와 같아서 첫 번에는 내 자생중생하고 둘 아니게 죽어야 됩니다.

나툴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은 내 자생중생들을 나와 더불어 둘 아니게 만드는 것으로 그것이 나를 깨닫는 법이요 내가 탄생하는 법이죠. 두 번째 둘이 아니게 더불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외부의 모두와 둘 아니게 죽는 도리를 알아야 둘 아닌 도리를 안다는 것이고, 셋째는 둘 아닌 도리를 알기 때문에 둘 아니게 나툴 줄 알게끔 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처음에도 죽어야 하고 두 번째도 죽어야 하고 세 번째도 죽어야 한다, 나라는 걸 세울 게 없어야 죽는 것이죠. 나라는 걸 세울 게 없어야 둘 아니게 고개가 숙여져요. 둘 아닌 도리에 의해서만이 여래라는 이름이 나왔고 부처라는 이름이 나왔지, 각각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고 나툴 세운다면 부처가 될 수 없고 여래가 될 수 없고 둘 아닌 도리의 나툼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거일동 자기가 움직이고 걸음 떼어놓는 것까지

오로지 주인공 뿌리에서 나오는 것임을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아집을 갖지 말고 공심 공용 공체로 공식화하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좀더 깊이 생각해서 알게 되면 모두가 유해지고 상대방이 갈고리를 쥐고 찍으려고 하다가도 상대방까지 유해지고 찍으려고 하던 것이 슬며시 놔진다 이 소립니다. 악해졌던 마음들이 선해져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화해서 바뀐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나에게도 이익되고 상대에게도 이익이 되어 인과응보에서 벗어나고 유전성에서 벗어나고 영계성에서 벗어나서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균성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업보 속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스스로 자유스러워진다 이 겁니다. 누가 자유스러워라 자유스럽지 마라 하고 억압적인 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구덩이에 빠질 건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안에서 잘 인도하여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자동 컴퓨터처럼 자기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상대를 원망 안 하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돌아가느냐에 달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잘못해서 내 탓으로 돌립니까?" 합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내 탓이죠. 항상 그런 말 합니다만 소가 가다가 언덕이 없으면 비비지 않습니다. 언덕이 있기 때문에 비비죠.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이 나온 자체가 바로 내 탓인 것입니다. 잘못하고 잘하고 간에 말입니다.

▲질문자2: 스님께서 법당을 오르내리실 적에 자명등이 서 있습니다. 그 자명등에 불을 붙여 주시면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자명등이 될 것입니다.

▲스님: 전부 석등이죠. 석등에 불이 원래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죽거리지요. 본래 켜져 있으니 그 본래 켜져 있는 광명의 빛을 자기가 응용해서 켜고 끔이 없이 켜고 끄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명등의 불은 켰다 안 켰다가 없이 본래 켜져 있습니다. 활활 타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간직하고 활활 타고 있는 불을 못 보고 모르기 때문에 못 쓸 뿐이니, 그 불이 여러분 앞에 자유스럽게 쓸 수 있게끔 켜져 있다는 것을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광력 전력 통신력이 충만하게 주어져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광명등입니다.

☞18면으로 계속

우리는 정신계와 물질계의 교차로에 서있어

☞17면에서 계속

▲질문자3: 지난 달에 스님께 말씀드리고 돌아가면서 느꼈던 게 나도 이 공부를 해서 중생구제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중생구제란 무엇일까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진짜 무슨 원력을 갖춰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참된 것이 되겠지만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스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하소연하는 그 분들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확신시켜 주고 그게 길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힘을 자신이 스스로 밝혀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시니 중생이 부처임을 알아서 부처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 참된 구제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아무튼 그날 스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제가 제 실생활에 한번 체험을 해 보기 위해서 주위의 아픈 분들이나 저의 부모님 경우를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잘 안됐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안된다고 해서 물러날 나도 아니고 내 평생토록 맡긴 게 다 안된다 하더라도 나와 둘이 아닌 역대 조사들이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입증을 해왔고 또한 스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활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왔는데 잘못이 있다면 내가 잘못을 했겠지 그 마음도리가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고 내가 과연 무엇이 모자랐고 뭐가 부족했을까? 그것을 고쳐 나가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스님께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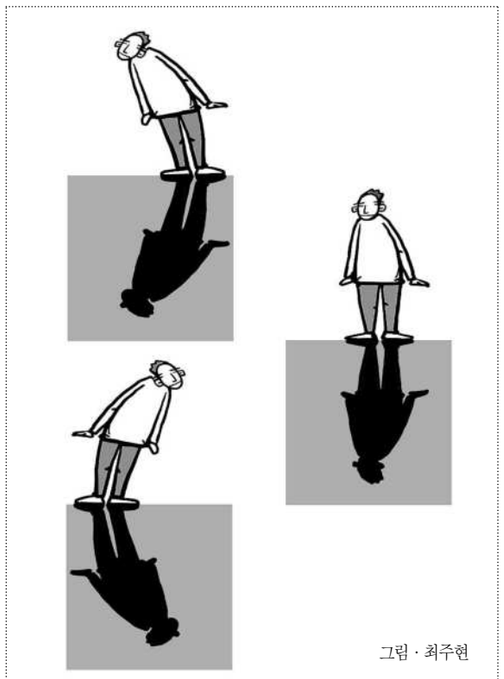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석 다 으스러진 상태에서 병원을 찾았으나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기를 권했습니다. 병원을 옮겨 그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보자며 두 차례 수술을 하였습니다. 또 업친 데 덮친 격으로 백혈구 수치는 삼만까지 올라가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지원의 스님들, 그리고 회장님의 주선 아래 처사님이 스님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친견하고 온 후 제 몸은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백혈구 수치도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저는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스님을 얼마나 찾으며 주인공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스님! 제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가게 해 주십시오. 주인공! 당신이 있다면, 정말 당신이 있다면 아내로서의 임무와 엄마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갈 수 있도록 당신만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하면서 주인공을 찾으며 소리없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스님! 제가 제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제 이웃의 아픔을 알았고 만물만생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워있는 동안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매달린 의사들이 흉부외과 정형외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분야별로 네 분이나 됐는데, 그래서 '그래 주인공, 이것도 당신이 하는 것이잖아!' 하면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손으로 살며시 골반뼈를 만져 보니 주위가 딱딱하면서 튀어 올라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침을 하니까 이젠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뼈가. 그전에는 기침을 하면 근육에 따라 뼈가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뼈가 제자리로 들어갔는가보다 하면서 다시 사진을 찍고 진료를 해 본 결과 "아줌마! 안심하십시오. 뼈가 다 제자리에 제각기 찾아 들어갔으니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제가 수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올 때는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 했고, 모든 일가친척 주위 사람들 전부 가망이 없다고 한 제가 너무나 급속도로, 정말 급속도로 빠르게 나아지기 시작하자 의사들은 제가 화제거리이고 또 관심거리였는가 봅니다. 의사들은 "아줌마는 우리가 의술 배운 데 대한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줌마가 참아주신데 대해 우리는 아줌마가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도 "아줌마는 기적이고 운이 좋은 겁니다." 하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어찌 이 법을 알겠습니까? 광대무변한 이 묘법을 어찌 당신들이 알겠습니까?' 하면서 주인공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살지도 못한다 했던 제가 2개월 만에 퇴원하는 영광을 찾았습니다. 제가 스님께, 그리고 우리 법우들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말이 막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원의 스님들, 그리고 회장님 또 수많은 법우들이 저와 함께 항상 한마음으로 이끌어 준 데 대해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고 무지한 저에게 이 법을 가르쳐 주신 큰스님께 너무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덤으로 얻은 이 육신은 오직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한마음법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뿌리만이 나무를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퉁그러진 뼈가 제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는 것도, 태가 잘못 앉았다가 제자리에 가서 앉아 임신을 제대로 하게끔 뵐 수 있는 것도, 몸을 맘대로 움죽거리게 하는 것도 자기 뿌립니다. 자기 주인공 뿌리만이 움죽거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내 몸속에 있는 의식 생명 모습들만이 내 몸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몸 안에 들은 의식들이 내가 주인공을 진실로 믿고 맡길 때 통신이 되는 겁니다. 통신이 되면 그 안에서 통신을 받아 가지고 전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바꿔질 수도 있고 퉁그러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어떤 애고든지 불에 타버리는 겁니다.

▲질문자5: 오늘도 스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양식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두서없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부 하기 이전에는 못 배웠고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큰 법을 받든 뒤부터는 모든 즐거움이나 괴로움도 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겨우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님 법문이나 책자를 많이 보고 절실히 느낀 것은 머리로 알기 이전에 단 한 가지라도 마음으로 알아야만이 진실한 법을 조금이나마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 알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님: 그럼, 앞으로 잘 살겠네요.

▲질문자5: 예. 그런데 제가 어떤 인연이 닿아서 올 여름방학 때에 일주일 단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 주일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단식에 관해서 물어보길래 제가 한 방법대로 해 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그분이 간암환자여서 제가 덜컹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나서 단식을 좀 더 전문적인 분한테 여쭈어 보고 하지 왜 저한테만 물어보느냐고 하니까 꼭 그 방법대로 하고 싶다 하기에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 그분이 3일 동안 물만 먹고 그 다음에 21일 동안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포도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단식을 했는데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건강상태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저에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자꾸 매달리고 있는데 저는 그 환자를 낫게 해 줄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인연인지 물라도 자꾸만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하고 마음이 통하지만 치료는 안되었습니다. 스님,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 관하는 법을 가르쳐 주든지 어떡하든지 그거야 보살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의 단식이라는 것은 몸 안에서 전부 작용을 해 주는 묘법의 단식이고 음식을 끊어서 단식하는 거는 잠시 몸을 좀 비워서 병을 낫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식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몸을 위해서 한번 해 보는 단식이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의 단식이기 때문에 마음에 의해서 전체가 거기 붙어

나라는 걸 세울 게 없어야

▲스님: 맹물을 싫다고 할 때는 설탕을 가미하든 소금을 가미하든 가미를 해야 잘 먹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슬쩍 가미를 하라고.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불을 켜려면 소켓트도 달아야 하고 이러지 않어? 그런데 그냥 무조건 불을 켜려고 한다면 켜지나, 어디? 그러니까 가미를 해, 하나로. 이 스님도 때에 따라선 끌어다 쓰라고. 가미를 해서 줘야 제대로 먹혀 들어갈 수 있잖아. 잘해 봐요.

▲질문자4: 저는 질문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고 스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새 생명을 얻고 환생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스님께 감사드리며 주인공 자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봄 저는 교통사고가 나서 온 몸이 만신창이 되고 산산조각으로 다 부서졌습니다. 어깨뼈 갈비뼈 14개, 장 파열과 콩팥 파열 골반뼈 구석구석 다 으스러진 상태에서 병원을 찾았으나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기를 권했습니다. 병원을 옮겨 그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보자며 두 차례 수술을 하였습니다. 또 업친 데 덮친 격으로 백혈구 수치는 삼만까지 올라가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지원의 스님들, 그리고 회장님의 주선 아래 처사님이 스님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친견하고 온 후 제 몸은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백혈구 수치도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저는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스님을 얼마나 찾으며 주인공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스님! 제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가게 해 주십시오. 주인공! 당신이 있다면, 정말 당신이 있다면 아내로서의 임무와 엄마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갈 수 있도록 당신만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하면서 주인공을 찾으며 소리없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스님! 제가 제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제 이웃의 아픔을 알았고 만물만생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워있는 동안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매달린 의사들이 흉부외과 정형외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분야별로 네 분이나 됐는데, 그래서 '그래 주인공, 이것도 당신이 하는 것이잖아!' 하면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손으로 살며시 골반뼈를 만져 보니 주위가 딱딱하면서 튀어 올라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침을 하니까 이젠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뼈가. 그전에는 기침을 하면 근육에 따라 뼈가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뼈가 제자리로 들어갔는가보다 하면서 다시 사진을 찍고 진료를 해 본 결과 "아줌마! 안심하십시오. 뼈가 다 제자리에 제각기 찾아 들어갔으니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제가 수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올 때는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 했고, 모든 일가친척 주위 사람들 전부 가망이 없다고 한 제가 너무나 급속도로, 정말 급속도로 빠르게 나아지기 시작하자 의사들은 제가 화제거리이고 또 관심거리였는가 봅니다. 의사들은 "아줌마는 우리가 의술 배운 데 대한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줌마가 참아주신데 대해 우리는 아줌마가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도 "아줌마는 기적이고 운이 좋은 겁니다." 하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어찌 이 법을 알겠습니까? 광대무변한 이 묘법을 어찌 당신들이 알겠습니까?' 하면서 주인공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살지도 못한다 했던 제가 2개월 만에 퇴원하는 영광을 찾았습니다. 제가 스님께, 그리고 우리 법우들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말이 막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원의 스님들, 그리고 회장님 또 수많은 법우들이 저와 함께 항상 한마음으로 이끌어 준 데 대해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고 무지한 저에게 이 법을 가르쳐 주신 큰스님께 너무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덤으로 얻은 이 육신은 오직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한마음법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둘 아니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질문자5: 오늘도 스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양식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두서없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부 하기 이전에는 못 배웠고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큰 법을 받든 뒤부터는 모든 즐거움이나 괴로움도 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겨우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님 법문이나 책자를 많이 보고 절실히 느낀 것은 머리로 알기 이전에 단 한 가지라도 마음으로 알아야만이 진실한 법을 조금이나마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 알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님: 그럼, 앞으로 잘 살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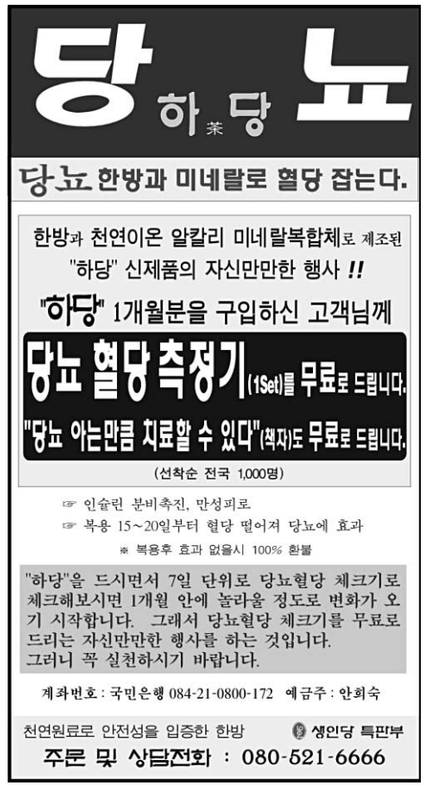
▲질문자5: 예. 그런데 제가 어떤 인연이 닿아서 올 여름방학 때에 일주일 단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 주일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단식에 관해서 물어보길래 제가 한 방법대로 해 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그분이 간암환자여서 제가 덜컹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나서 단식을 좀 더 전문적인 분한테 여쭈어 보고 하지 왜 저한테만 물어보느냐고 하니까 꼭 그 방법대로 하고 싶다 하기에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 그분이 3일 동안 물만 먹고 그 다음에 21일 동안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포도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단식을 했는데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건강상태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저에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자꾸 매달리고 있는데 저는 그 환자를 낫게 해 줄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인연인지 물라도 자꾸만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하고 마음이 통하지만 치료는 안되었습니다. 스님,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 관하는 법을 가르쳐 주든지 어떡하든지 그거야 보살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의 단식이라는 것은 몸 안에서 전부 작용을 해 주는 묘법의 단식이고 음식을 끊어서 단식하는 거는 잠시 몸을 좀 비워서 병을 낫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식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몸을 위해서 한번 해 보는 단식이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의 단식이기 때문에 마음에 의해서 전체가 거기 붙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단식의 신호가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다 작용을 스스로 해 주게 돼 있으니까 마음의 단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부처님들께서도 마음의 단식을 권하셨지 먹는 걸 끊어가면서 단식하는 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계와 물질계의 교차로에 섰다고 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이 교차로를 넘어서서 둘 아니게 응용하신다면 앞으로 사는 데 좀 더 편안하게 공심으로서 공용을 하고 사실 겁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75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이 우 상
소설가 · 대진대 문창과 겸임교수

100일 단식의 불이법문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선 꼴을 당랑거철(螳螂拒轍)이라고 한다. 도저히 될법하지 않은 싸움을 일컬음이다. 기독교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 한다. 영국 속담에는 파리가 거북을 물어뜯는 격이라고 한다. 천성산을 살리려는 지율 스님의 단식투쟁이 그랬다. 2003년 부산역 앞에서 38일간 단식을 할 때 세상은 무심했다. 뜨거운 뙤약볕만이 내리쬐었다. 그 후 45일간 매일 3천 배기도, 또 다른 45일간, 58일간 단식 때도 마찬가지였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 홀로 외로웠다.

대통령 선거공약이 철통같은 약속인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검토위원회가 열렸지만 지율 스님은 배제되었다. 이성적, 합리적 문제 해결과는 간격이 점점 벌어졌다. 연약한 비구니 스님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또다시 단식밖에 없었다.

단식 31일째 그의 일기는 이렇게 적고 있다.

'걸을 때마다 발꿈치가 신발에서 빠져나간다. 이제 모든 것이 내게서 헐거워져 가고 있다. 자꾸 흘러내리는 바지춤과 품이 넉넉해지는 적삼도.'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싸움이 100일 단식에 이르러 목숨이 민들레 홀씨처럼 허공에 흩날릴 지경이 되어서야 세상이 법석을 떤다. 모든 언론의 첫머리에 지율이란 이름이 창처럼 펄럭인다. '풀었다, 살았다, 이겼다'는 함성이 들린다. '단식에 밀리고, 법적공방에 휘둘리고, 천문학적 비용손실'이라는 탄식도 들린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다. 승자가 웃고 패자가 우는 싸움이 아니다. 지율 스님은 승자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규정하는 잣대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목숨을 걸어야 하나의 잣대가 세워지는 관습을 타파해야 한다. 3 · 8선 긋듯이 책상 위에서 줄을 그으면 산을 뚫고 물을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목숨을 걸지 않아도 환경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앞으로 3개월간 환경영향 공동조사 기간 동안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전부다. 지율 스님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공동조사의 공정성, 엄격성, 정확성, 미래지향성 뿐 이다. 그 원칙이 지켜진다면 지율 스님의 단식이 세상에 던진 교훈은 크다. 목숨을 걸어야 하나의 원칙이 세워지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덜먹고 덜자며 지구촌의 여러 곳을 다녀보았다. 나라마다 환경 지키기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다. 보이지 않던 것, 들리지 않던 것들이 정수리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심각하게 다가왔다. 한반도는 너무 좁다. 함부로 부수고 뭉개기에는 여백이 없다. 편리를 목적으로 여기저기 들쑤셔 볼 공터가 없다. 있는 것을 오롯이 지키는 데에 힘을 모으는 것이 백번 옳은 일이다. 재생될 수 없는 것이 생명이요 환경이다.

체중 30kg이 될까 말까한 비구니 스님이 세상을 향해 부르짖었던 절규가 우리 모두를 일깨우는 찬물이다. 단식을 풀며 지율 스님은 말했다.

"모든 생명과 우리들이 둘이 아니라는 데서 천성산 이야기를 시작했으며 지금은 대립되는 듯 보이는 정책과 저희들이 동화처럼 쓰는 도롱뇽 이야기가 둘이 아니라는 데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미숙함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이제 마른 땅에 심어진 생명의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그 영지가 우리와 아이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불이법문이 극단과 적대가 아닌 세상, 여법하게 회향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는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일이 없기를, 잘못 꿰어진 첫 단추로 인한 갈등과 폐해가 종식되는 계기가 되길 염원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큰 절'의 변화에 박수를…

사찰을 통해 전해 내려온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찰이 현대사회의 요구와 흐름에 부응하는 변화를 이룩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실상에 있어서는 서로 반대되거나 충돌하는 일이 아니다. 사찰의 본질과 의미를 투철하게 이해할 때 그 본질적인 면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실에 맞는 변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들려온 해인사의 변신 선언은 이렇게 사찰의 본질을 지켜가면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사찰의 한 본보기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이다. 전문 연구진을 강화하여 교학 연구의 전통을 이어가며,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을 충실히 받은 국제 전법사를 양성하고, 목판인쇄박물관을 개관하여 사찰을 전문적인 문화보존과 선양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하며, 교구 말사의 분담금을 다시 말사로 지원하여 지역불교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등의 사항 하나 하나가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올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이러한 결정으로 하여 앞으로 해인사는 우리 한국불교계를 앞서 이끌어가는 사찰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다.

이러한 사찰의 변신이 해인사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고, 또 해인사도 이번의 변신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은 해인사의 모델을 검토하여 각 사찰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변신을 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간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요, 그것을 현실화하는 제 2, 제 3의 변신 모델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 사찰 구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지역사회와 호흡하고 일반인들의 수행도량이 될 수 있는 수행과 문화의 공간을 새롭게 배치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행과 포교의 중심으로서 그 기본기능을 충실히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정신적 문화적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사찰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모색이 절실한 때이다. 해인사의 변신선언이 이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현대'만평 심 민 섭



특별기고

천성산문제의 본질과 향후 대책

이병인 (밀양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지율 스님의 단식을 통해 천성산 문제는 현재의 화두가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단순한 지율 스님 개인에 대한 생명보존과 국책사업을 방해한다는 식의 의미로서 천성산 문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천성산 문제의 본질은 지율 스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오늘날 한국불교계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한 단면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를 것 같다.

그동안 우리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개발위주의 잘못된 관행을 묵인해주는 사회의 큰 흐름 속에서 살아왔다.

천성산 문제나 새만금 문제의 핵심은 국책사업으로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과 경제적 효과가 아니라, 원초적으로 잘못된 정치적 결정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것에 있다.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그로 인한 부작용과 원천적인 문제점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또한 형식적인 재검토과정에서도 대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대안 검토가 원천적으로 배제됐다는 사실이다. 더욱 갑갑한 것은 이와 같은 개발당시의 문제점과 논리가 아직까지도 관성의 법칙으로 묵인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최근에는 환경친화적이라는 미명아래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기에도 개발논리만 있지 환경에 대한 배려는 없다. 어설픈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요건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환경업무를 전담하는 환경부는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다. 이번 지율 스님의 단식에서도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환경부는 없었고, 개발부서인 건교부만 있었다. 침묵하는 환경부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개발논리만을 내세우는 정부와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의 어려운 싸움이었고, 그 과정에서 지율 스님이 가야 할 길은 항시 마지막 길이었다.

이제부터라도 불교계에서는 지율 스님이 이룬 힘겨운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 새만금과 북한산에서 보여준 수경 스님의 삼보일배와 지율 스님의 단식은 불교계와 우리사회 전체가 이어가야 할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불교계는 환경문제에 관한 한 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고 불교적 장점을 바탕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천성산 문제의 해법은 이제부터이다.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합리적 과정에 의한 적절한 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교계 내부에서도 잘못된 관행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정부당국에 대한 무비판적인 동조가 있었다는 자성이 있었다.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을 잘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불교계가 국책사업 덜미를 잡았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천성산 문제의 앞날은 환경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역할과 활동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다.자성과 참회, 교계의 전문화 및 체계화, 내부교육과 홍보, 불교환경가르침의 생활화 등이 지금의 이 시점에서 다시 정립 · 실천되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추진하는 불교환경의제21 사업은 현실 속에서 생활화하고, 다시 실제적으로 강화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천성산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고 일시적이 아닌 보다 체계적 · 조직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그동안 종단이나 불교계의 대응은 분명히 현안중심의 일회성 대응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정치적인 부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다보니 결국 지율 스님 혼자만의 일로 남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교계내의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모두의 관심사, 모두의 일이어야 한다.

천성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후의 조치는 지난 재검토위원회와 같이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어야 한다. 실질적인 협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총력을 모아 다음과 같은 점을 이루어야 한다.

잘못된 관행부터 고쳐야 환경도 산다

첫째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그룹 확보 및 검토이다. 그동안의 재검토위원회는 정말 형식적인 위원회로서 제대로 된 검토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다. 단기간에 걸친 조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신있는 위원들의 집중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천성산에 대한 사후환경관리방안 및 그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이다. 이전의 공동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는 이후 진행될 천성산 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공동조사에 의하여 문제점이 확인되어 천성산을 관통하지 않은 대안노선이 확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셋째는 천성산 백서 등 천성산 관련 자료들을 자료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잘못된 정부와 사회의 개발논리를 확인하고, 천성산의 생명존중과 사랑에 대한 환경보존에 관한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립 · 홍보하여 이 시대에 드러내고, 장려하는 일이다.



넷째는 천성산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일이다. 앞으로 3개월간 진행될 공동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와 지속적인 여론화과정으로서도 중요하다. 월1회 이상 교계내의 주요 단체의 주도로 천성산의 중요 현안에 대한 정기적인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지율 스님에 대한 지속적인 상징성을 홍보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이해를 장려하여야 한다. 이점은 특히 불교환경운동의 상징적인 존재로 특성화하여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물상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종단차원에서도 지율 스님을 활용하여 불교적 장점을 살리는 환경활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천성산 문제는 이 시대 불교계의 역량과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이자, 지표가 되고 있다. 부디 사부대중의 노력에 의하여 불교계가 이 시대의 충실한 지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

12면 상식퍼즐 정답

수	류	탄	■	벼	■	
구	■	광	한	루	원	
초	■	■	밭	■	각	■
심	야	■	■	■	사	당
■	시	■	생	■	■	랑
■	장	생	불	사	■	거
■	■	원	■	용	수	철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법사의 삶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요.

출강 통신 **법사학인 수강생 모집**

13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불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5학년도 제14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사)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종단 · 법인등록 포함)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교육방법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학습도량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5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팩스 접수 가능)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팩스737-5305

베스트 셀러

속을 보이는 사람들

해탈이란 마음의 해탈이다.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해탈이다. 이것과 저것을 가르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르는 분별심을 버리고 마음 깊숙이 들어 앉은 내면의 소리를 끄집어내는 그것이 해탈이다.
"저를 해탈하게 하소서."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승찬 대사의 해탈법문을 듣는 순간 온갖 번뇌와 미혹, 망상과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를 얻은 구도자는 훗날 제4대조가 된 도신 대사이다.

본문 해탈이란 무엇인가? 中

• 해광스님 지음
열린출판사 / 값 9,000원

해광(海光)스님 저 서 — 불교비전의숲서 「불가비의」 / 실용 역학서 「운명비결」 / 최초의 소설식 불교교리서 「왕 초보 절에 가다」 집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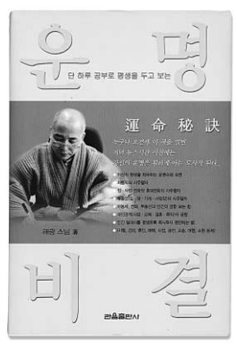
「운명비결」「속을 보이는 사람들」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등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교보,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리브로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행자 전수자 모집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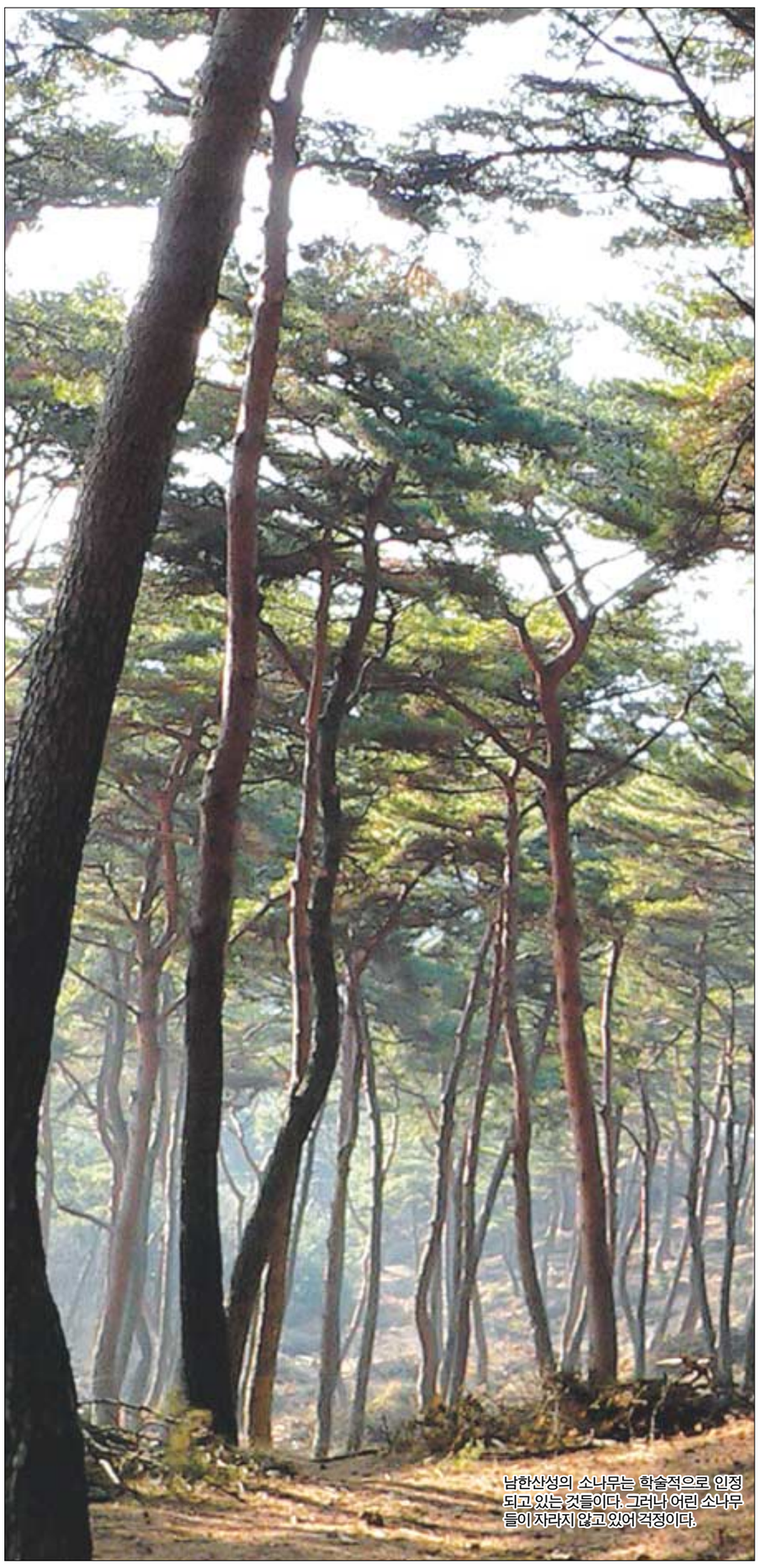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해광스님 지음
신국판 / 양장본 / 416페이지
정가 12,900원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수와 숙명
- 자동차의 사주팔자
- 집,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사주팔자
- 부동산(집, 땅, 가게, 사업장)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교제, 결혼, 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금강선원 해광스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1-14 TEL 032)665-8472


남한산성의 소나무는 학술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어린 소나무들이 자라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활엽수 도전에 소나무 숲 위기

성안 9개 사찰 중 장경사만 옛모습 온전
들꿩, 어치, 노랑턱멧새 등 산새들의 城

踏雪夜中去 不須胡亂行
눈 덮힌 밤길 지날 때는 함부로 걸음을 떼지 말라
今日我行蹟 遂作後人程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언젠가 남한산성 옛 절터에서 발굴되었다는 청허당 서산 대사 시비에 나오는 시의 한 구절이다. 시대를 넘나드는 좌우명이다.

남한산(南漢山)은 안성 칠장산에서 금북정맥과 갈라져 북상한 한남정맥이 한강을 저만큼 내려다보며 솟구친 산이다. 이 산의 마루금을 이는 남한산성은 인조 때인 1624년, 후금(청나라)의 침입에 대응하고자 옛 토성을 석성으로 개축한 것이다. 벽암(碧岩) 대사가 이회(李晦)장군과 함께 승군들을 동원해 2년 만에 축성했다.

성 안에는 축성 전에 있었던 망월사와 옥정사 2개의 사찰과 축성과 함께 창건된 7개의 사찰이 있었다. 그 가운데 장경사만 옛 터에 모습을 지키고 있을 뿐, 나머지는 자리를 옮겨지어졌거나 아직도 주춧돌로 남아있다. 이번에 국청사, 옥정사지, 망월사, 장경사, 개원사 주변을 돌아보았다.

종로 네거리에서 침괘정 옆을 지나면 새로 복원된 행궁이 자리하고 있다. 행궁 위쪽으로는 우람한 장송(長松)들이 넓게 포진하고 있다.

남한산의 상징인 소나무 숲은 수령이 70~90년생에 이르는 노장목으로, 모두가 일제강점으로 나라를 잃은 후에 태어난 나무들이다. 주인이 쫓겨난 땅에서도 저리 굳건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산성마을 사람들의 정성 덕분이다. 당시 마을 주민 303명이 벌채를 금지하는 금림조합을 만들어 숲을 정성들여 보호했다. 행궁터 옆에 갑술년(1934)에 세운 '금림조합불망비(禁林組合不忘碑)'가 서 있다.

남한산의 소나무는 학술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소나무 품종 가운데 중남부고지형에 속한다. 이 형질의 소나무는 평안남도에서 전라남도에 걸친 내륙지방에 분포하는 것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줄기에 붉은 기운이 돌며, 가지가 마치 우산처럼 위에서 무성하게 펼쳐져 있다.

그러나 남한산 소나무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어린 소나무들이 송송 자라주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생태적 천이(遷移)에 따라 참나무와 같은 활엽수들의 도전이 거세다. 이 소나무 숲을 지켜내자면 하는 수 없이 인간의 간섭이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당국이 소나무들을 위협하는 활엽수 경합목들을 제거해주고 있다. 그리고 어린 솔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임상의 채광을 위해 일부 소나무의 무성한 가지들도 함께 쳐주고 있다.

그러나 소나무만을 위한 관리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소나무 아래 관목과 아교목들을 모두 제거해버리면 곤충과 조류와 포유류 같은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파괴되어 그들의 공간이 없어져 버린다.


들꿩은 인적 드문 산속의 활엽수림에서 생활한다.

서문에서 북문을 거쳐 벌봉에 이르는 성곽은 당시 벽암대사의 지휘 아래 우리 승군들이 쌓은 것이다. 성곽을 따라 계속 가면 벌봉[峰岩]에 이른다. 다산 정약용이 당시 벌봉에 있었던 동림사(東林寺)에서 <맹자(孟子)>를 공부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보아 동림사가 폐사된 것은 그리 오래된 옛 일 같지는 않다. 등산객들은 벌봉에서 장경사까지 이어진 성곽을 따라 하산한다. 그 덕분에 사람 발길이 끊어진 장경사 뒤쪽 구역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엽수들이 빼곡하다.

남한산성은 산새들의 성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산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박새류, 직박구리류를 비롯해 노랑턱멧새, 붉은머리오목눈이, 어치, 까마귀, 양진이, 꿩, 들꿩 등등이 모두 이 지역에 서식하는 조류들이다.

들꿩은 인적 드문 산속의 활엽수림에서 생활한다. 낙엽과 비슷한 바탕색깔에 어두운 흑갈색 얼룩무늬가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주위에 기척이 나면 나뭇가지를 횃대 삼아 올라앉아서 꼼짝하지 않는다. 숲바닥을 걸어 다니며 낙엽더미를 헤쳐서 그 안에 숨은 벌레나 열매들을 먹는 것도 닭을 닮았고, 번식기에는 암컷이 병아리들을 여기저기 몰고 다니는 습성도 닭과 흡사하다.

장경사 주변의 식생은 원래 있던 소나무들이 사라지면서 신갈나무와 굴참나무가 자연스레 들어섰고, 지금은 서어나무와 물푸레나무를 중심으로 극상림을 이루어가고 있다. 남한산 전체로 보면, 신갈나무군집, 굴참나무군집, 서어나무군집, 물푸레나무군집 등의 면적비율은 47.13%로 소나무 군집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장경사를 비롯하여 망월사와 현절사 일대의 숲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남한산성에서는 장경사 앞은 자리가 가장 양명하다. 시원히 열린 시야 저만큼 성곽이 지나가고, 덩굴식물인 사위질빵이 성곽에 올라가 있다. 줄기와 잎은 이미 시들고 씨앗만 여기저기 엉켜 있다. 꽃이 시든 자리에 맺힌 하얀 씨앗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 바람에 불면 부드러운 솜털이 씨앗을 멀리 옮겨준다.

장경사에서 망월사 가는 길은 지반이 약해서 곳곳에 산사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 비탈에 물오리나무들이 눈에 많이 들어온다. 물오리나무는 이름 그대로 비교적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한다. 한때 산사태를 방지할 목적으로 많이 심었다, 장경사와 망월사 주변에서 관찰되는 물오리나무도 모두 인공 식재된 것들이다. 가지가 떨어진 자리가 마치 사람의 눈 모양 같아서 재미있다.

망월사(望月寺)는 축성 전부터 있었지만, 오래전에 소실되고 지금의 망월사는 옛 터에 다시 지은 절이다. 다만, 군데군데 옛 축대가 남아있어서 옛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주변식생은 장경사와 마찬가지로 신갈나무 등을 중심으로 한 활엽수가 우점하고 있다.

망월사를 내려오면 동문 밖으로 산성천이 흐르고 있다. 한때는 산성마을과 식당촌에서 쏟아내는 생활하수로 크게 오염되었으나, 근래 위쪽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계곡 생태계를 되살려 놓았다. 여름이면 반딧불이가 장경사와 망월사 주변으로까지 날아다닌다.

개원사(開元寺)는 도총섭이 머무르며 승군을 지휘하던 남한치영(緇營)의 본부였다. 동문에서 걸어서 10여분 거리에 있다. 옛 절은 30년 전 화재로 없어지고, 지금은 그 터에 새 절이 들어서 있다.

개원사에서 남장대 옛 터에 이르는 지역은 신갈나무 등 활엽수가 우점하는 혼효림지대이다. 원래는 이 지역도 소나무가 울창했으나, 30년 전 솔잎혹파리의 대공습을 받아 소나무 숲이 일시에 망가져버렸다. 지금은 겨우 노송 몇 그루만 살아남아있다. 개원사-남장대지역의 가을 단풍이 다른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것도 그 때문이다.

개원사의 본전인 대각전(大覺殿)은 시멘트벽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닥도 온통 시멘트로 미장판을 만들었다. 시멘트가 아무리 싸고 편리하다해도 이건 분명 바람직한 전통불사가 아니다. 생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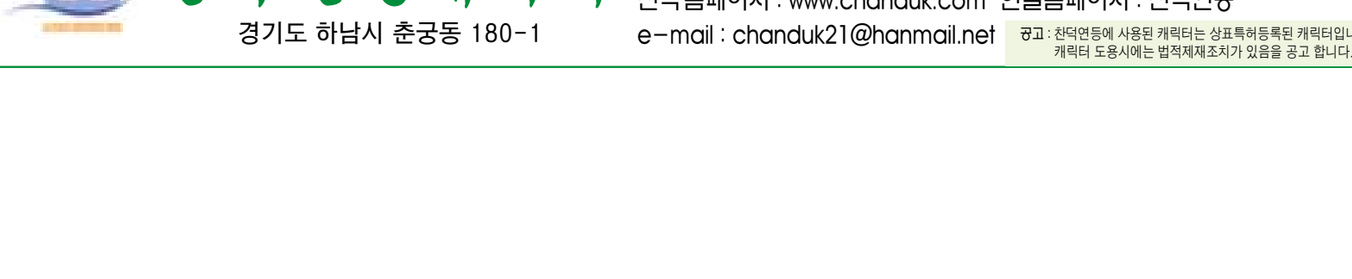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공단등(비단등) 팔모조립등 팔모접등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